

보험동향 2016년 여름호

Ⅰ 총괄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Ⅰ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조용운 (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아름 (연구원)
	국내경제	정인영 (연구원)
	국내금융	이해랑 (연구원)
Ⅰ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조용운 (연구위원)
	생명보험	최 원 (선임연구원)
		이해랑 (연구원)
	손해보험	김경환 (수석연구원)
		정인영 (연구원)
Ⅰ 해외보험시장 동향	해외보험총괄	조용운 (연구위원)
	미 국	이해랑 (연구원)
	영 국	정인영 (연구원)
	일 본	이아름 (연구원)
	중 국	이소양 (연구원)

■ 목차

I. 테마진단

-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예방행위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관계 / 1
- 보험회사 지배구조 OECD 권고안에 비추어 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 이사회 구조 및 권한을 중심으로 / 18

II. 경제금융 동향

- 1. 세계경제 / 39
- 2. 국내경제 / 57
- 3. 국내금융 / 73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 1. 보험산업 총괄 / 80
- 2. 생명보험 / 86
- 3. 손해보험 / 104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 1. 미국 / 130
- 2. 영국 / 139
- 3. 일본 / 147
- 4. 중국 / 159

부록. 통계표 / 170

I. 테마진단

◆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예방행위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관계

이정택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건강한 생활습관(금연, 절주, 건강한 식습관, 운동)과 예방적 의료서비스(건강검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봄.

■ 질병의 양상이 전염성 질병에서 만성질환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인인구(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정신상·신체상 장애를 줄이는 예방이 중요해 지고 있음.¹⁾

○ 2015년도 노인인구의 다빈도 상병을 살펴보면, 입원·외래 부문에서 만성질환이 다빈도 상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²⁾ 노인성 만성질환은 노인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함.

○ 만성질환은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방식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영양공급·예방접종·공중위생 등과 같은 예방보다는 금연·절주·식생활 및 운동과 같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한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음.

1) 만성질환이란 3개월 이상의 발생경과와 회복이 어려운 병리적 상태를 가지며, 후유장애 등으로 장기간의 치료와 관찰이 요구되는 질병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성질환을 다음과 같이 11개 질병으로 분류함: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 신생물(암), 갑상선의 장애, 간질환, 만성신부전증.

2) 다빈도질병통계(2015),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 입원부문에서 백내장, 무릎 관절증, 협심증, 당뇨, 암, 치매 등이 다빈도 상병이며, 외래부문에서는 치주질환, 고혈압, 당뇨, 급성 기관지염 등이 다빈도 상병임. 2007년 기준 4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자는 2003년 대비 49.7% 증가하였고, 이는 노인인구의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는데 기인함(이은경(2011)).

■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건강한 생활습관(금연, 절주, 건강한 식습관, 운동)과 예방적 의료서비스(건강검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봄.

○ 이론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은 예방행위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으로 예방 유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예방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상품 설계 등에 반영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예방의 관계를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내생성(Endogeneity) 통제하에 살펴봄.³⁾

○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사회·경제적인 특징들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으며,⁴⁾ 이러한 두 그룹 간의 차이는 회귀분석 시 내생성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증분석 시 내생성 통제를 고려해야 함.

2. 예방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개념과 중요성

서구화된 식습관·운동량의 부족 및 흡연·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금연·절주·운동 등을 통해 만성질환의 원인인 생활습관을 교정하며, 고혈압·당뇨·비만 등 만성질환 발병의 요인을 가진 사람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여 중증질환으로의 발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예방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정의되나, 본 연구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예방행위’로 정의하고, 건강검진과 같이 의료서비스 이용이 수반되는 것을 ‘예방적 의료 서비스’라 정의함.

3) 내생성(Endogeneity)에 대한 설명은 제4장 분석방법에서 설명함.

4) 김성욱(2005); 강성욱 외(2005, 2006, 2010); 윤희숙(2008); 이현복 외(2013); 정기택 외(2006).

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예방의 중요성

■ 서구화된 식습관·신체활동의 감소 및 흡연·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⁵⁾

- 매년 흡연에 의한 사망자 수는 6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담배에 의한 사망자가 7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운동을 충분히 하는 경우 심장질환, 당뇨, 유방암, 대장암 위험도가 감소하며, 체중 조절과 에너지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⁶⁾
- 고위험 음주는 조기사망과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이며, 음주로 인한 사망의 절반 이상이 암, 심혈관계 질환, 간경화를 포함한 만성질환에 의해 일어나며, 음주가 증가할수록 만성질환의 위험도 또한 증가함.⁷⁾

■ 금연·절주·운동을 통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을 교정하며, 고혈압·당뇨·비만 등 만성질환 발병의 요인을 가진 사람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여 중증질환으로의 발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의료비 절감차원에서 중요함.

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생활습관

■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생활습관을 살펴보면, 높은 흡연율 및 음주율 그리고 신체활동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⁸⁾

-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은 2014년 남자 43.1%, 여자 5.7%로 연령별로는 남자는 40대(54.4%)와 30대(53.2%), 여자는 20대(8.9%)에서 높음.
- 월간음주율(만 19세 이상)은 2014년 남자 74.4%, 여자 46.4%로, 남자는 30대(79.0%), 40대(77.8%), 20대(77.1%) 순으로 높으며, 여자는 20대(60.3%)에서 가장 높음.

5) 박윤희(2014).

6) 운동부족은 주당 5번, 30분 이상의 중등도 이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주당 3번, 20분 이상의 격렬한 활동 또는 그와 동등한 활동을 하지 않거나 그 이하를 하는 것으로 정의함.

7) World Health Organization(2014).

8) 2014년 국민건강통계.

- 월간폭음률⁹⁾은 2014년 남자 53.0%, 여자 22.5%로, 남자는 30대(60.8%), 여자는 20대(39.5%)에서 가장 높음.

■ 비만은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비만문제는 영양섭취의 과다 또는 불균형과 함께 신체활동의 부족에서 기인함.¹⁰⁾

-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며,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20분, 주 3일 이상 실천한 사람들의 비율인 신체활동실천율¹¹⁾이 2005년 29.6%에서 2012년에는 17.3%였음.
- 걷기실천율¹²⁾은 최근 1주일간 1회 3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걷기를 실천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2005년 60.7%였던 것이 2012년 39.4%로 낮아짐.

다. 예방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정의

■ 예방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정의되나, 본 연구에서는 질병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예방행위’로 정의하고, 건강검진과 같이 의료서비스 이용이 수반되는 것을 ‘예방적 의료서비스’라 정의함.¹³⁾

- 공공보건(Public Health)에서 정의하는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은 예방접종, 공중위생과 같이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흡연·폭음을 줄이고 정기적인 운동과 같이 신체적 활동량을 늘리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포함함.
- 2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은 질병 발생 시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행위를 뜻하며, 대표적인 2차 예방은 건강검진임.
 - 심장질환, 암,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 발견하여, 빠른 치료가 중요한 질병으로 질병의 검진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함.

9) 월간폭음률: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비율임.

10) 국민영양조사(2014).

11) 신체활동실천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 또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임.

12) 걷기실천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임.

13) Kenkel(2000); Institute for Work & Health(2015).

- 3차 예방(Tertiary Prevention)은 만성질환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신체장애(Disability)를 줄이고 최소화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만성질환자에게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또는 뇌졸중 환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등이 그 예임.

3. 민간의료보험이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이론적으로 예방행위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인적자본이론에 기초함. 치료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의료보험으로 인해 예방행위와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유인은 더욱 더 감소할 수 있음. 반대로 의료보험을 통해 치료적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사후적 도덕적 해이는 오히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예방행위와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음.

가.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Model)

■ 예방행위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인적자본이론에 기초함.¹⁴⁾

- 개인의 건강(Health Capital)에서 직접적으로 효용이 발생하며, 건강에 대한 투자는 시간, 의료서비스, 기타 재화의 결합에 의해서 결정됨.
- 따라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인적자본인 건강에 대한 수요로부터 발생하며, 건강을 위한 투자로서의 의료서비스는 치료적 의료서비스(Curative Medical Care) 뿐만 아니라 예방행위와 예방적 의료서비스(Preventive Medical Care)를 포함함.

■ 인적자본에 기초하여 예방행위와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학력, 개인의 시간선호율(time preference), 성별, 나이 등이 있음.

- 고학력일수록 흡연율과 음주율이 낮고, 고학력 여성일수록 유방암 검진율과 자궁경부암과 같은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높음.¹⁵⁾

14) Grossman(1972).

15) Kenkel(1991a, 1991b).

- 시간선호율¹⁶⁾이 높은 사람일수록 해로운 재화(담배·술 혹은 약물)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예방행위에 대한 수요를 낮추게 됨.¹⁷⁾
 - 또한 건강의 초기 부존량(initial health endowment)이 높은 사람, 즉,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건강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며, 예방과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수요함.
 - 여성이 남성보다 태아의 건강상태 측면에서 더 건강히 태어나며, 예방과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더 수요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길다고 설명함.¹⁸⁾
 - 의료서비스를 예방적 의료서비스와 치료적 의료서비스로 나누고, 치료적 의료서비스의 생산성은 건강의 감가상각률(depreciation rate)이 커질 때 증가한다고 가정함.
 - 건강의 감가상각률이 높은 사람은 치료적 의료서비스를 더 수요하고, 예방적 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덜 수요하게 됨.
 -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투자 수익을 회수할 시간이 짧아지고, 건강이라는 인적자본의 감가상각률이 높아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감소함.¹⁹⁾
- 인적자본이론에 기초하여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은 질병 발병 시 치료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치료비와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투자임.
- 의료서비스는 치료적 의료서비스와 예방행위·예방적 의료서비스로 구분되며, 예방행위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치료적 의료서비스와의 관계를 통해 발생함.
 - 따라서, 인적자본이론에 기초하여 민간의료보험이 예방행위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민간의료보험이 치료적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효과(도덕적 해이)와 연관하여 살펴보아야 함.

나. 민간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예방

- 민간의료보험이 예방행위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치료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의료보험으로 인해 예방행위와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유인이 감소할 수 있음.²⁰⁾

16) 시간선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미래에 대한 재화·서비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며, 현재의 재화·서비스에 더 높은 가치를 둠.

17) Becker and Murphy(1988).

18) Ehrlich and Chuma(1990).

19) Cropper(1977)

- 건강보험은 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용을 낮추어주고, 임금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할 유인을 낮춤(사전적 도덕적 해이, Ex Ante Moral Hazard).
- 따라서, 식생활과 건강한 생활습관(절주, 금연, 운동)에 대한 유인이 낮을 뿐만 아니라 건강 검진과 같은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유인이 낮아질 수 있음.

■ 이와 반대로 의료보험을 통해 치료적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사후적 도덕적 해이(Ex post Moral Hazard)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예방행위와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음.²¹⁾

- 의료보험을 통해 치료적 의료서비스를 더 이용하고, 의사와의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예방행위와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알 수 있음.
- 따라서 치료적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통해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민간의료보험이 예방행위와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도 상반되므로 실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예방행위와 예방적 의료서비스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할 필요가 있음.

4. 분석 방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와 예방행위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함.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예방행위와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예방행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여야 함. 예방행위의 차이가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한다면 보험가입이 예방행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내재적인 특성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며 비교를 위해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도 함께 이용하여 분석함.

20) Kenkel(2000).

21) Dave and Kaestner(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예방행위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둘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회귀분석이 필요함.

- 예방행위의 차이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한다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예방행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관찰할 수 없는 특징(위험회피정도 등)이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예방행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면 회귀분석 결과를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예방 간의 인과관계로 해석하기 어려움.
- 이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예방행위 간에 내생성이 존재하게 되며, 인과관계를 보이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에서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관찰되지 않는 특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이전 연구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는 인적·사회적 특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의료이용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임.

- 비가입자와 비교하여 가입자의 연령이 낮으며, 가입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도 가입자의 경우가 더 높음.
- 가입자가 속한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더 높으면, 가구 소득분위도 높음.
- 건강측면에서도 가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만성질환 수가 적은 반면, 응급실 이용횟수 및 입원·내원일수가 많으며, 전체적인 의료이용횟수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더 높음.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간의 관찰되는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관찰할 수 없는 특성들도 확연히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와 예방행위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간의 내생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위험회피정도와 같은 응답자의 관찰할 수 없는 특징은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예방행위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수요에 동시에 영향을 줌.
 - 위험회피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으며, 또한 건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더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 패널자료에서는 응답자가 샘플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관찰되지 않는 개인별 특성의 통제가 가능함.

- 동일한 응답자가 샘플기간동안 민간보험 가입 여부의 차이가 발생하고, 개인별 관찰되지 않는 특성들이 시간에 일정한 특성을 갖는 고정효과(Fixed effect)로 간주될 수 있다면, 추정의 편의를 제거할 수 있음.²²⁾

■ 실증분석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여부와 예방행위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함.

- 한국의료패널 자료는 가구일반사항, 가구원일반사항, 경제활동상태 등의 13개 부분의 기본조사표와 10개 부분의 성인가구원 대상 부가조사표로 구성되었음.
- 본 연구는 가구일반사항, 가구원일반사항, 외래의료이용의 기본조사 데이터와 건강생활습관의 부가조사데이터를 이용하였음.
 - 2008~2013년까지 6년간,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조사누락 및 표본 탈락(attrition) 문제로 응답자의 자료 포괄 기간이 달라지는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을 이용함.
 - 가구일반사항 · 가구원일반사항과 건강생활습관의 부가조사데이터를 결합하여 각 응답자의 흡연 · 음주 · 운동 행태를 분석하였으며, 외래의료이용 부가조사데이터를 이용하여 건강검진의 이용행태를 분석함.

■ 기본적인 선택패널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종속변수가 두 가지의 값으로 분류되는 이항선택모형(Binary Choice Model)을 이용함.²³⁾

$$y_{it} = X'_{it}\beta + u_t + \varepsilon_{it}$$

22) 응답자의 관찰할 수 없는 특성들은 오차항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설명변수인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OLS 추정량치에 편의(bias)가 발생함.

23)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항선택모형은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과 로짓모형(Logit Model)을 사용함.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본모형은 선형확률모형이나, 오차항의 이분산성과 관심변수의 회귀계수가 0과 1사이를 벗어난 값을 갖기 쉬운 약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로짓모형도 사용함.

- y (종속변수)는 흡연·음주·운동 행태와 같은 예방행위와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적 의로서비스이며, X (독립변수)는 나이, 성별, 가구소득, 지역,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같은 변수들을 포함함.
- 관찰되지 않는 내재적 속성(u)과 관찰되는 속성(X) 간에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모형 선택이 달라짐.
 -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은 u 를 개체별로 우연히 주어진 오차항의 일부로 간주하여, 최소제곱추정 OLS 대신 일반화된 최소제곱추정 GLS를 사용하여 추정치의 Efficiency를 높임.
- Hausman 검정결과 $Cov(X, u) = 0$ 이 기각될 경우, 즉 관찰할 수 있는 속성과 오차항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은 u 를 각 개체 고유의 상수항으로 간주하여 통제함.
 - Hausman 검정결과가 기각될 경우, 임의효과모형을 사용하면 추정치는 편의가 발생하며 일치추정량이 되지 못함.
- 대개는 조사대상의 관찰되지 않은 내재적 특성이 관찰된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표 1〉 종속변수정의

변수	정의
흡연여부	현재 매일 피우거나 가끔 피우면 1, 아니면 0
음주여부	주 1회 이상 음주하면 1, 아니면 0
과음여부	월 1회 이상 과음하면 1, 아니면 0
신체활동(1)	격렬한 신체활동이 주 3일 이상이면 1, 아니면 0
신체활동(2)	중증도 신체활동이 주 5일 이상이면 1, 아니면 0
걷기	주 5일 이상 걷기를 하면 1, 아니면 0
건강검진	1년간 일반검진 혹은 암검진을 받은 횟수

5. 분석결과: 민영건강보험과 예방의 관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는 나이, 성별, 교육, 소득수준 등에서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예방행위 및 예방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즉,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건강한 생활습관이나 예방서비스 이용에 변화를 주는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음을 의미함. 하지만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에 비해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적 의료서비스 이용은 큰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료패널 2008~2013년의 부가조사데이터에서 관측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입자는 비가입자와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가짐.

- 가입자의 경우 연령이 비가입자에 비해 낮으며, 남성비율은 높고, 고학력인 사람이 많으며,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비가입자에 비해 높음.
- 가입자의 경우 고소득가구에 속한 사람이 많으며, 의료비를 더 많이 쓰고 있음.
- 위와 같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에 관찰 가능한 특성이 다르다면 위험회피 정도와 같은 관찰 불가능한 특성들도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귀분석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내생성을 의심해야 함.

〈표 2〉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특성

구분	가입자	비가입자	T-test
나이	42세	46세	-14.73***
성별	47%	39%	7.13***
교육수준	2.33	2.01	20.21***
1인 가구	79%	64%	17.46***
연간 가구소득	4,840만 원	2,979만 원	29.52***
총가구소득 5분위	3.62	2.59	42.54***
보험종류	1.6%	12%	-35.00***
의료비	40만 원	32만 원	4.30***

자료: 한국의료패널(2008~2013년). 보험종류는 공무원, 교직원, 직장, 지역 건강보험은 1로 그 외의 건강보험은 2 값을 줌.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은 1,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은 2,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은 3, 석사 이상은 4 값을 줌. t-test를 통해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비교하며, 평균값이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각 변수들의 평균값은 차이가 있음.

■ 패널회귀분석 결과(〈표 3〉 참조) 민간의료보험과 예방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고정효과모형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예방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임의효과모형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건강생활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예방행위 및 예방서비스 변수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Hausman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에 내재적인 특성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의효과모형보다 고정효과모형이 타당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예방행위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관계

구분	임의효과모형(RE)	고정효과모형(FE)	hausman-test
흡연	0.0145** (0.0063)	0.0027(0.0077)	94.37***
음주	0.0292*** (0.0091)	0.0007(0.0135)	41.88***
과음	0.0317*** (0.0114)	0.0226(0.0203)	55.49***
격렬한 신체활동	-0.3490*** (0.0822)	-0.1893(0.1805)	98.26***
중증도 신체활동	-0.3525*** (0.0906)	-0.0981(0.2003)	40.01***
걷기	-0.2252*** (0.0694)	-0.0928(0.1652)	127.86***
건강검진	0.2240*** (0.0350)	0.1213(0.1063)	18.63***
관측치	36,798	36,798	-

자료: 한국의료패널(2008~2013년), 각 값은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의 계수값임. 괄호안은 표준편차(standard error)임. Hausman - Test의 값은 카이스퀘어 통계치임.

■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흡연상태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결과,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흡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흡연 변수는 현재 매일 흡연하든지 가끔 흡연하는 경우 흡연자로 보고, 과거 흡연하였으나 금연하는 경우 또는 흡연한 적이 없는 응답자를 비흡연자로 간주함.
-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해 분석한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후 가입자 중 1.4%는 비흡연자에서 흡연자가 됨.
-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예방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한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흡연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음.

■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음주상태에 주는 영향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음주 여부는 현재 주 1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와 그 이하로 음주하는 경우로 나누었으며, 과음 여부는 월 1회 이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 살펴봄.
- 임의효과모형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후 가입자 중 3%는 주 1회 미만으로 음주하다 주 1회 이상으로 음주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고정효과모형에서는 그 효과는 미미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시 가입자 중 월 1회 이상 과음할 확률도 임의효과모형에서는 3.1% 증가하나, 고정효과모형에서는 그 효과가 감소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운동(격렬한 신체활동, 중증도 신체활동, 걷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격렬한 신체활동 · 중증도 신체활동 · 걷기 등의 신체활동에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임의효과모형을 이용해 분석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후 격렬한 신체활동을 주 3일 이상, 중증도 신체활동을 주 5일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할 확률은 각각 34.8%, 35.2%, 28% 확률로 감소함.
 -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면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해지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음.

■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는 질병예방행위 또는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임의효과모형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25% 더 비가입자에 비해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정효과모형에서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이 결과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사후적 도덕적 해이²⁴⁾를 가져온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기각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24)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해 치료적 의료이용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적 의료이용을 높이는 행위.

6.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개인의 민간의료보험의 보유가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인 금연·절주·운동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또한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봄. 분석결과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만성질환의 관리·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생활습관과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개인의 민간의료보험의 보유가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및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사이의 소득·나이·연령·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그룹 간 관측 불가능한 변수들에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내생성 테스트를 한 결과 관측 불가능한 내재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함.
-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특성 차이를 통제하기 전에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은 가입 이후 흡연·음주를 증가시키고, 운동량을 감소시키는 등 사전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통제 후에 그 효과는 사라짐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음.
 -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효과 분석 시 내생성 통제 여부에 따라 결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특성 차이로 인해 내생성 테스트는 반드시 필요함.

■ 분석결과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건강한 생활습관이나 예방서비스 이용에 변화를 주는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가입자는 비가입자에 비해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흡연, 음주를 더 많이 하는 반면, 신체활동은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참조).

■ 만성질환의 관리·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한 생

활습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및 정책이 필요함.

- 현재 민간의료보험은 건강검진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고 있음.²⁵⁾
- 민간의료보험 제품 설계 시 예방행위에 대한 유인을 반영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가입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음.
 -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후 금연·금주·체중관리를 한다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의료보험 할인제도가 건강한 생활 습관과 건강검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법임.

2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은 제외하고 있음.

〈참 고 문 헌〉

강성욱 · 권영대 · 유창훈(2005), 「암보험이 암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미친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_____ (2006), 「암보험이 유방 및 자궁암 환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에 미친 영향」,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강성욱 · 유창훈 · 오은환 · 권영대(2010), 「민간의료보험이 과연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가: 내생성 통제를 이용한 검정」,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김성욱(2005), 「민간보험 가입에서의 선택과 의료서비스 이용」,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박윤형(2014), 「만성질환 관리전략」,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윤희숙(2008),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

이은경(2011),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조세연구원.

이현복 · 남상욱(2013), 「민영의료보험과 의료소비에 관한 실증연구」, 보험학회지.

정기택 · 신은규 · 박창환(2006), 「민영건강보험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실증연구」, 보험학회지.

통계청(2015), 2014 국민건강통계.

_____ (2015), 국민영양조사 2014.

Becker, G.P., and K.M. Murphy(2008), “An empirical analysis of cigarette addi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Cropper, M.L.(1977), “Health, investment in health, and occupational choi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Dave and Kaestner(2009), “Health insurance and ex ante moral hazard: evidence from Medicare”, *International Health Care Finance Econ.*

Ehrlich, I., and H. Chuma(1990), “A model of the demand for longevity and the value of life extens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Grossman, M.(1972), “On the concept of health capital and the demand for h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Kenkel, D.S.(1991a), "Health behavior, health knowledge, and school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_____(1991b), "What you don't know really won't hurt you",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_____(2000), "Prevention", *Handbook of Health Economics*, Volume 1.

World Health Organization(2014),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4".

Institute for work & Health(2015), "Online office ergonomics training program now available from IWH", *At Work*, Issue 80.

◆ 보험회사 지배구조 OECD 권고안에 비추어 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 이사회 구조 및 권한을 중심으로

이승준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는 주주의 재산권 보호 차원을 넘어 계약자,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음.

- 금융회사는 다수의 금융소비자로부터 예금/보험료/투자를 받아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하고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형을 가짐.
-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주주와 경영진 간의 대리인 문제를 넘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통해 다수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금융감독 목적을 위해서도 중요함.

■ 금융위기 이후 드러난 금융회사 지배구조상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OECD, IAIS, BCBS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관련 다양한 국제기준의 재검토가 이루어짐.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을 통해 이사회 리스크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G20의 승인을 받아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발표(2015. 7)
- IAIS 보험핵심원칙 지배구조 관련 내용(5, 7 및 8장) 및 그룹 지배구조와 그룹 내 전략과 소통(23장)(2015. 11)
- BCBS 은행 지배구조 원칙 개정을 통해 이사회 리스크 감독기능 강화(2015. 7)

■ OECD는 일반적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인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별도로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권고안」(이하 ‘OECD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

- 2005년 4월 28일 「보험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¹⁾을 채택함.
- 이후 2011년 5월 이사회 심층 검토를 거쳐 수정안으로 「보험회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²⁾을 채택함.

1)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Guidelines for Insurers' Governance.

- 보험권역의 기존 규제와 감독에 추가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와 함께 보험회사의 주주 보호를 강화하도록 돕는 보충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모든 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지배구조 논의에 더하여 보충적으로 보험권역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얻은 교훈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지배구조 원칙의 수정 내용을 참고하여 OECD 권고안을 개정하였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채택 예정임.

- 보험 및 사적연금 위원회³⁾는 OECD 권고안의 이행 현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OECD 이사회에 권고안 수정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받음.
-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에 필요한 리더십, 경험 및 독립적 결정능력을 갖춘 이사회, 효과적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 보험회사 내 전사적으로 통합된 보고체계, 건전한 보상계약, 투명한 그룹구조 등의 필요성을 다룸.

■ 본고는 「보험회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대한 OECD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이사회 등 거버넌스 구조 중심으로 소개하고 우리나라 보험회사 지배구조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 최근 시행에 들어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이사회 등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고 OECD 권고안의 취지와 비교·검토해 봄.
- 제2장에서 OECD 권고안을 이사회 등 거버넌스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3장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이사회 관련 내용과 비교하며 제4장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봄.

2. 보험회사 지배구조 OECD 권고안 중 거버넌스 관련 주요내용

■ 보험회사 지배구조 OECD 권고안은 크게 거버넌스 구조, 내부 거버넌스 장치, 그룹과 복합그룹, 이해관계자 보호의 4개 부분으로 구성됨.

2)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Guidelines on Insurers' Governance.

3)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Committee(IPPC).

-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는 이사회, 주요 임원, 이사회 구조 및 외부 감사에 관한 내용을 다룸.
- 내부 거버넌스 장치(Internal Governance Mechanisms)는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 통제기능, 보상, 경영구조 및 내부고발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그룹 및 복합그룹(Group and Conglomerates)⁴⁾은 투명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 그룹 전반에 대한 관점, 거버넌스 체계 및 그룹 내 소통으로 이루어짐.
- 이해관계자 보호(Stakeholder Protection)는 상호회사 회원, 유배당보험 계약자, 투명성과 공시, 시장행위와 금융교육 및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장에서는 OECD 권고안의 내용 중 이사회 및 주요 임원의 권한, 책임, 구성 등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근간이 되는 거버넌스 구조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함.

-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이사회 등 각 기능의 주요 의무와 적격성, 독립성과 구성 및 보고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거버넌스 구조는 감시와 행정책임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책임자의 의무, 책임,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주주(또는 상호회사의 사원)의 권리와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보호해야 함.

가.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1) 주요 의무(Key Duties)

■ 이사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지켜 모든 가용한 정보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함.

- 이사는 의사 결정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고려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함.

4) 그룹은 같은 종류의 금융업을 지주회사 또는 모회사 형태로 영위하며, 복합그룹은 여러 종류의 금융 및 비금융업을 영위함.

2) 책임(Responsibilities)

- 이사회는 보험회사 영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감시하여 보험회사가 전략적 목표에 따라 움직이고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정책과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함.
 - 이사회는 정확하고 연관된 정보에 시의적절한 접근이 가능하고 조직 내 연관된 인물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전사적인 통합된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이사는 주어진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함.
- (목적과 가치) 이사회는 금융시스템과 국가에 따라서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일부로서 보험회사의 역할 및 사업모형과 일관된 근본적인 목적과 가치를 정립하여야 함.
 - 이사회가 정한 목적과 가치는 보험회사 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야 함.
- (윤리, 영업행위, 이해상충) 이사는 높은 윤리 및 행동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준을 보험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하여야 함.
 - 이사는 주요 임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활동이나 영향도 피해야 함.
- (거버넌스 체계) 이사회는 적절한 감독 및 투명성이 확보되고 책임소재가 분명해 지도록 보험회사의 거버넌스 체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내부 조직구조를 감독해야 함.
 - 이사회는 이사회와 주요 임원 및 경영진과의 관계와 함께 예상되는 이사회 및 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해야 하고, 거버넌스 체계와 그 실행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검토하여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함.
- (전략, 사업 종목, 주요 운영상 결정) 이사회는 보험회사의 전반적 전략, 영업 목표와 주요 실행 계획을 개발하고 성과를 모니터해야 함.
-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통제기능) 이사회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인식 및 절감방안을 세우고, 보험회사의 리스크에 대한 접근방법을 명확히 정의하고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체계나 전략을 세워야 함.

- 이사회는 종합적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을 감독하고 이들이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확인해야 함.
- 이사회는 내부통제 기능을 감독하며 이는 이사회의 거버넌스 관련 정책의 준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재무공시와 준법 등을 포함함.

■ (재무상태, 리스크 프로파일, 자본상태) 이사회는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리스크 프로파일, 지급여력 수준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유동성, 자본, 차입 필요성을 판단해야 함.

-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주주(상호회사는 회원-보험계약자)의 승인을 전제로, 차입, 주식발행 및 자사주매입, 배당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함.

■ (주요 임원 선임, 성과 모니터링, 승계 계획) 이사회는 보험회사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주요 임원을 적격성에 기반하여 선임하고, 이들의 승계계획을 마련해야 함.

- 이사회는 주요 임원의 성과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교체해야 함.

■ (보상) 이사회는 보험회사의 장기적 이해와 소비자 및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 관점에서 일관되도록 보험회사의 건전한 행위를 촉진하는 이사,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함.

- 이사회는 이러한 보상계획이 거버넌스 절차에 따라 수립되도록 확인해야 하며 이때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역할이 중요함.

■ (공시) 이사회는 보험회사의 공시와 소통 절차를 감독하여야 함.

3) 구성과 적격성(Composition and Suitability)

■ (적격성) 이사는 전문적으로 보험회사를 감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필요한 자격, 기술, 전문성, 경험을 갖추어야 함.

- 이사회는 전체적으로 보험회사를 감시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보험, 금융, 회계, 세리, 경영 및 리더십 등의 경험 및 기술을 가져야 함.
- 이사는 건전한 성품과 좋은 평판을 가져야 하며 건전하면서도 전략적인 방향을 보험 회사에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에 필요한 판단력, 지도력, 독립성 및 양심을 지녀야 함.

■ (독립성) 이사회는 집단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공식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여야 하며 보험회사 업무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함.

- 독립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수(최소 과반)의 사외이사(non-executive board members)를 임명하고 이사는 객관적 감시와 주요 의무의 이행을 제약하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함.
- 이사회는 독립성에 관한 투명한 기준을 세우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독립성을 가진 이사를 선별하여야 함.

■ (성과) 이사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사회 효과적 운영과 독립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성과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이사회는 여러 사안에 걸쳐 있는 이사회 논의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추천과 임명) 이사의 추천, 임명 및 해임에는 법규 및 규정에 따른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임기는 정기적인 이사진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함.

- 이사 선임 절차는 이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 능력, 경험을 갖춘 후보를 찾으면서 독립성을 강조하여야 함.

4) 보고(Reporting)

■ 이사는 정기적으로(적어도 매년) 정기총회 등을 통하여 주주(상호회사는 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도 보고해야 함.

5) 책임성(Accountability)

- 이사회는 보험회사의 일반적 운영방향과 전반적 경영 및 성과에 대하여 주주(상호회사는 사원)에게 책임을 짐.

나. 주요 임원(Key Executives)

1) 주요 의무(Key Duties)

- 주요 임원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지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함.
 - 주요 임원은 의사 결정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함.

2) 책임(Responsibilities)

- 주요 임원은 높은 기준의 윤리와 복무행위를 장려하고 보험회사의 적절한 리스크문화와 통제환경의 개발과 실행을 도움으로써 이사회와 함께 적절한 보험회사 상충부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함.
 - 이사회에 전략, 정책, 결정을 권고하고 실행하며 보험회사의 일상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함.
- 효과적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체계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적용되는 법령, 규제 및 기준이 준수되는지 확인해야 함.
 - 보험회사의 일반적인 그리고 운영과정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며 효과, 건전성, 통합성 등을 확인하고 기업지배구조가 이러한 시스템에 통합된 요소로 작용하는 지 확인함.
 - 통제기능을 만들어 효과와 독립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 전반에 걸쳐 그 중요성을 알려야 함.

- 적절한 보상시스템과 유인 구조를 만들어 소비자와 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장기적 이익과 합치하는 건전한 행태를 촉진함.

- 채용 정책과 활동, 교육과 승계계획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촉진함.

- 통합되고 전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을 만들어 이사회가 승인한 목표, 전략, 정책, 계획 등의 수행을 모니터해야 함.

3) 적격성(Fitness and Propriety)

- 주요 임원은 전문적으로 보험회사를 지도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격, 기술, 전문성, 경험을 갖추어야 함.

- 주요 임원은 건전한 성격과 좋은 평판을 가져야 하며 보험회사의 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하고 전략적이고 운영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판단력, 선도능력, 팀워크 자질과 양심을 지녀야 함.

4) 보고(Reporting)

- 주요 임원은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정확하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적시에 보고해야 하며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전달되도록 해야 함.

- 주요 임원은 이사회와 고려와 결정 또는 승인이 필요하거나 당연시되고 주의가 필요한 중요 사항 발생 시 즉시 이사회에 알려야 함.

5) 책임성(Accountability)

- 주요 임원은 그들의 성과와 보험회사의 방향, 경영 및 성과에 책임을 짐.

다. 이사회 구조(Board Structures)

1) 이사회 내 위원회(Committees)

■ 이사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감시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이사회 의사결정의 독립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향상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이사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검토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설치하였어도 최종적 의사결정 책임은 이사회가 져야 함.

2) 위임, 권한, 책임, 구성(Mandate, Authority, Responsibilities, Composition)

■ 이사회는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와 함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함.

○ 이사회는 각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설정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함.

3) 독립성(Independence)

■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는 과반수의 사외이사(non-executive board members)로 구성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함.

○ 주요 임원의 임면, 재무 및 비재무적 보고, 감사 및 계리사 등의 임면 등에 있어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이를 확보할 적절한 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면 위원 전원을 또는 최소한 과반을 사외이사로 임명하여야 함.

4) 보고(Reporting)

■ 이사회 내 위원회는 위원회의 현안 처리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들 사안의 검토 내용 및 권고 사항을 제공해야 함.

5)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 감사위원회는 제안된 재무보고와 관련된 공시와 함께 내부 및 외부 감사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음.

- 이사회 제출 전 보험회사 재무보고의 검토와 관련 토론 및 공시, 보험회사 회계 정책 및 실무 평가 및 검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검토, 그리고 감독당국에 제공되는 재무 및 계리 보고서 등의 검토를 함.
- 외부감사 지명에 대한 권고, 이들의 적격성, 독립성 확인과 감사계획, 감사수수료 등에 대한 승인, 감사 내용에 대한 승인과 평가 및 후속 교정 업무, 외부감사의 성과 검토를 함.
- 감사위원회는 모든 관련 자료, 보고서, 문서 및 정보는 물론 모든 주요 임원, 내부감사 부서장, 계리 및 다른 관련 인력에 대한 전적인 접근 권한을 가짐.

6) 다른 구조(Other Structures)

- 이사회는 보험회사의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다른 가능한 구조를 만들 때의 장점을 고려해야 함.

라. 외부 감사(External Auditor)

1) 역할 및 책임(Role and Responsibilities)

-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정당하게 반영하는지 주주(상호회사는 사원)와 이사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회계 감사를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수행해야 함.
- 외부 감사의 일부로 외부감사인은 재무보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확인해야 함.
- 외부감사인은 보험회사의 계약부채 가치와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함.
- 외부감사인은 해당국 외부감사 요건에 정한 다른 모든 의무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검토를 포함할 수도 있음.

2) 선임(Appointment)

- 주주(또는 상호회사의 사원이나 그 대리인),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지명해야 함.

- 외부감사인인 해임이나 사임은 감독당국에 보고되어야 하며 적절하거나 요구되는 경우, 공시되어야 함.

3) 적격성(Fitness and Propriety)

- 외부감사인은 전문적으로 보험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 기술, 전문성(특히 회계나 감사 또는 계리), 면허, 경험을 갖추어야 함.
- 외부감사인은 독립적 공공감시 대상으로 감사, 품질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전문가 협회에서 인정하는 회원이어야 함.

4) 독립성(Independence)

- 외부감사인은 이사회, 경영진 및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함.

5) 접근(Access)

- 외부감사인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회계 기능 수행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직원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되어야 함.

6) 보고(Reporting)

- 외부감사인은 감사 결과 나타난 사실을, 적절하거나 요구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7) 책임성(Accountability)

- 외부감사인은 주주(또는 상호회사의 사원)에게 책임을 다하며 감사 수행에 있어 전문가로서 적절한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를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짐.
- 외부감사인의 임기는 정해져 있어야 하며 재임명 전에 이사회는 외부감사인의 성과에 대하여 검토해야 함.

3.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이사회 관련 내용

■ 이 장에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이사회 관련 내용과 OECD 권고안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봄.

가. 시행배경 및 주요내용

〈표 1〉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구성

목차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임원		임원의 자격요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원의 겸직
제3장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구성, 의장의 선임, 운영(지배구조내부규범), 권한
	이사회 내 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관리인,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책임자
제5장 대주주 건전성 유지		대주주 변경승인, 최대주주 자격심사, 시정명령, 의결권 제한
제6장 소수주주 권리행사 특례		주주제안, 주주총회소집청구, 해임청구, 위법행위유지청구, 대표소송, 회계장부열람
제7장 처분 및 제재절차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이행 강제금
제8장 보칙		권한의 위탁, 공시
제9장 벌칙		벌칙, 과태료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시작된 국제기구 논의 등을 반영하여 제정됨.

- 특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지배구조 관련 규율의 법적 일관성 제고를 위해 모든 금융권역⁵⁾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통합적으로 적용함.
-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안의 핵심적 내용은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자산 5조 원 이상의 회사에 적용됨.⁶⁾

5) 이사회의 구성·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소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자산 5조 원 미만의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 금융회사와 자산 7천억 원 미만의 상호저축은행에 적용하지 않음. 단, 금융투자회사는 운용자산이 20조 원이 넘는 경우에는 적용(시행령 제6조 제3항). 또한 자산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적용.

6)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자산 2조 원 이상에서 5조 원 이상으로 적용 회사의 범위가 좁혀짐. 가용

- 주요내용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변화, 주요업무집행 책임자의 이사회 임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도입 등으로 이루어짐(〈표 1〉 참조).

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1) 이사회 구성

- 금융회사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과반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담보하도록 함.
 - 단, 자산 3,000억 원 이상 5조 원 미만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수가 이사 총수의 1/4 이상이어야 함.
 -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라 상장회사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사외이사 수가 이사 총수의 1/4 이상이어야 하며, 특히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 수가 이사 총수의 과반이어야 함.⁷⁾
 -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의 경우 사유를 공시하고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도록 함.
- 이는 OECD 보험회사 지배구조 권고안에서 독립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수(최소 과반)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과 일치함.
 - 단,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자산규모별로 사외이사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OECD 권고안에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이사회의 독립성에 관한 내용은 적격성과 관련하여 충분히 들어가 있음.

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 1분기 말 재무상태표상으로 생명보험회사는 국내 및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총 25개 중 19개사가, 손해보험회사는 국내 일반 및 전업 손해보험회사 총 15개 중 11개사가 각각 적용됨.

7) 상법 제542조의8.

2) 이사회 운영

■ 금융회사는 주주,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 운영 등 구체적 원칙과 절차(지배구조 내부규범)를 마련해야 함.

-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과 운영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 임원의 전문성 요건
-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

■ OECD 보험회사 지배구조 권고안에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이나 절차를 만들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없음.

- 각 보험회사의 상황에 맞는 자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통해 권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

3) 주요 권한 및 의무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사회 권한으로 금융회사 운영상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정관에 정하도록 하였음.

- 경영목표 및 평가, 정관의 변경, 예산 및 결산,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대주주 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법에 정해진 내용은 정관에 반드시 정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이 밖에 보험회사 이사회가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 특히 상법⁸⁾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도 이사회가 직접 심의·의결해야 함.

8) 상법 제393조의2 제2항 각호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로 위임이 금지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 OECD 보험회사 지배구조 권고안은 보험회사 이사회가 직접 심의·의결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어도 최종적 의사결정 책임은 이사회가 지도록 권고하고 있음.

다. 이사회 내 위원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와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단, 자산 5조 원 이상의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가 보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모든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며 대표를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여 운영의 주도권을 사외이사가 갖고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함.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은 다른 사외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며 이때 3% (정관으로 이보다 낮게 조정이 가능) 초과 주식 의결권은 제한함.
-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이 될 후보를 추천함.
 -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⁹⁾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의결권 행사가 금지됨.
- 보수위원회는 임원¹⁰⁾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¹¹⁾의 보수 관련 사항¹²⁾을 심의·의결하고 임직원의 보수체계를 마련하며 임직원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9) 의결권 있는 주식 0.1%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

10)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책임자를 제외함.

11)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람.

1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과 보수지급 관련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보수체계의 설계, 운영 및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성과보수란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정해지는 보수로 투자 성과와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함.
- 연차보고서는 결산 후 3개월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함.

■ OECD 권고안은 이사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음.

- 보험회사에 대한 감시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이사회 의사결정의 독립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함.
- 그러나 이사회는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 의사결정 책임은 이사회가 지도록 하고 있음.

라. 임원의 적격성

1) 자격 요건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임원은 이사, 감사, 집행임원¹³⁾ 및 업무집행책임자¹⁴⁾를 포함하며 이들은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금융회사 임원은 권리능력 요건, 일반 법률에 따른 처벌,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 등 결격 요건을 갖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권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일반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3) 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함.

14)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행장, 부행장, 부행장보, 전무, 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

-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조치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고 조치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함.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는 임원의 적격성에 더하여 독립성이 강조되며 이를 위해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주요주주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 해당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였던 사람
 -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 해당 금융회사와 중요 거래관계,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하여 9년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 사외이사의 적격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적극적 요건으로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적시하였음.
- OECD 보험회사 지배구조 권고안은 보험회사 임원의 적격성에 있어 결격사유보다는 적극적 요건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의 이사 및 주요 임원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보험회사를 감시하고 지도하는데 필요한 자격, 기술, 전문성, 경험을 갖추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이사회는 전체적으로 보험회사를 감시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보험, 금융, 회계, 제리, 경영 및 리더십 등의 경험 및 기술을 가져야 함.
 - 주요 임원은 건전한 성격과 좋은 평판을 가져야 하며 보험회사의 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하고 전략적이고 운영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판단력, 선도능력, 팀워크 자질과 양심을 지녀야 함.
- OECD 권고안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독립성에 관한 투명한 기준을 세우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독립성을 가진 이사를 선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2) 겸직 제한 및 금지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겸직을 제한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의 경우,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다음의 경우 겸직이 가능함.
 - 은행의 경우, 그 은행이 15%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 겸직은 허용함.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그 상호저축은행이 15%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직원 겸직은 허용함.
 - 보험회사의 경우, 그 보험회사가 15%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 겸직은 허용하되 다른 금융회사¹⁵⁾의 상근 임직원 겸직은 불허함.
-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경우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을 제한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사외이사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권상장법인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다른 1개의 상장 또는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음.
 -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자회사의 사외이사만 겸직이 가능함.

15) 금융회사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은행, 상호저축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등의 상근 임직원 겸직은 불가함.

-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상장법인은 1개, 비상장법인은 제한 없이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함.

■ OECD 권고안도 금융회사 임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임원으로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해석이 가능함.

4. 우리나라 보험회사 지배구조에 주는 시사점

■ OECD 보험회사 지배구조 권고안을 이사회 중심으로 검토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해당 내용과 비교한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최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OECD 권고안의 취지를 비교적 충실하게 살려 이를 규정으로 반영하고 있음.

■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OECD 권고안은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한 구성과 운영을 강조하며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반영되고 있음.

- 구성과 관련하여 독립성 보장을 위해 3인 이상 및 과반 사외이사 조항과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 조항을 통하여 이사회 심의 및 결정 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 운영에 있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이사회 운영의 세부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OECD 권고보다 강력한 규제로 판단됨.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을 사외이사가 주도하도록 규정한 점은 OECD 권고안이 강조하는 이사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음.

■ 임원의 적격성에 관해서 OECD 권고안은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적극적 요건인 전문성을 강조하는데 반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결격 요건과 같은 소극적 요건이 강조됨.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사외이사의 경우 적극적 요건을 기술하고 있으나 다른 임원의 경우 소극적 요건 위주로 기술됨.

- 금융회사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금융회사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임직원의 보수를 성과에 연동하여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추구를 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체계가 단기적 수익을 위해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는 반성을 반영하고 있음.
- 사외이사 중심의 보수위원회를 통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에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설계함.
- OECD 권고안에서도 보험회사와 소비자 및 계약자에 대한 장기적 이해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건전한 행위를 촉진하는 임직원 보상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음.
 - OECD는 권고안에서 이러한 보상계획이 거버넌스 절차에 따라 수립되도록 이사회가 확인하도록 하며 이 때 독립적인 사외이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이사회 관련 조항은 OECD 권고안의 권고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제도상으로 많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향후 제도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법 집행과 보험회사 경영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참 고 문 헌〉

금융위원회(2016. 7. 26),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이승준(2016),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의 의미와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BCBS(2015), “Corporate Governance for Banks”.

G20/OECD(2015),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IAIS(2015), “Insurance Core Principle”.

Ⅱ.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2016년 1/4분기 유로 지역(2.2%)과 일본(1.9%)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유로지역 0.5%p, 일본 3.7%p)하였으나 미국(1.1%)과 중국(1.1%)은 하락(미국 0.3%p, 중국 0.4%p)함.
- 2016년 1/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0.1 하락한 99.3을 기록함.
 - 미국, 일본, 중국은 하락한 반면, 유로 지역은 동일함.
- 2016년 1/4분기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2015년 4/4분기보다 1.0%p 하락한 -0.6%를 기록함.
- 2016년 1/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높아진 2.7%를 기록함.
- 2016년 1/4분기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전분기대비 하강 국면을 보였고, 이러한 국면은 경기선행지수를 볼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1/4분기 유로 지역과 일본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미국과 중국은 하락함.
 -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2015년 4/4분기보다 1.1%(연율) 성장하는데 그쳤고, 유로 지역은 전분기대비 2.2%(연율)의 성장률을 기록함(〈표 5〉 참조).
 - 일본은 민간소비, 주택 및 공공투자, 수출 증가 등으로 전분기대비 상승한 1.9%(연율)을 나타내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표 13〉 참조).
 - 중국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전분기대비 1.1% 성장에 그침(〈표 9〉 참조).

〈표 1〉 세계경제성장률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세계 ¹⁾	3.4	3.1	n.a.	n.a.	n.a.	n.a.	n.a.	n.a.	n.a.	n.a.
선진국 ¹⁾	1.8	1.9	n.a.	2.1		1.9		1.8		n.a.
신흥국 ¹⁾	4.6	4.0	n.a.	4.1		4.4		3.7		n.a.
미국 ²⁾	2.4	2.4	4.6	4.3	2.1	0.6	3.9	2.0	1.4	1.1
유로 ³⁾	0.9	1.7	0.4	1.2	1.5	2.2	1.5	1.3	1.7	2.2
일본 ⁴⁾	0.0	0.5	-7.9	-2.7	2.1	5.2	-1.7	1.7	-1.8	1.9
중국 ⁵⁾	7.3	6.9	1.8	1.9	1.7	1.4	1.8	1.8	1.5	1.1

주: 1) 분기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가율,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 유로 지역: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3) 국가별 분기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6. 4).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6. 6).

3) Eurostat(2016. 7).

4) 일본 내각부(2016. 6).

5) 중국 국가통계국(2016. 4).

■ 2016년 1/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¹⁾는 전분기보다 0.1 하락한 99.3을 기록함.

○ 미국은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지속 등으로 전분기보다 0.2 하락한 99.0을 나타냄(〈표 5〉 참조).

○ 유로 지역은 전분기와 동일한 100.5를 기록함.

○ 일본은 일본 경제성장세 둔화 예상으로 2015년 4/4분기보다 0.2 하락한 99.6으로 집계됨.

○ 중국은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으로 2015년 4/4분기보다 0.1 하락한 98.4를 나타냄(〈표 9〉 참조).

1)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세계 ²⁾	100.2	99.7	100.3	100.2	100.1	100.0	99.8	99.6	99.4	99.3
선진국 ³⁾	100.4	100.1	100.5	100.4	100.4	100.4	100.3	100.0	99.8	99.7
미국	100.7	99.9	100.8	100.8	100.7	100.5	100.2	99.7	99.2	99.0
유로	100.3	100.5	100.4	100.1	100.1	100.3	100.5	100.5	100.5	100.5
일본	100.5	100.1	100.6	100.1	100.0	100.2	100.3	100.1	99.8	99.6
중국	100.3	99.1	100.5	100.2	99.8	99.5	99.3	98.9	98.5	98.4

주: 1) 2007.1=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6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2015년 4/4분기보다 1.0%p 하락한 -0.6%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2015년 4/4분기대비 0.9%p 하락한 0.6%를 나타내었고,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도 전분기보다 0.9%p 하락한 -2.2%를 나타냄.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1),2),3)}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세계	2.9	1.6	2.6	3.1	3.5	3.5	1.4	1.2	0.4	-0.6
선진국	2.6	2.8	2.1	2.5	3.6	4.3	2.7	2.5	1.5	0.6
신흥국	3.1	-0.1	2.9	3.8	3.4	2.0	-0.4	-0.7	-1.3	-2.2

주: 1) 2014년 현재 OECD 국가 중 Luxembourg를 제외한 23개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60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함.

2)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의 분류 기준과 동일.

3)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6년 1/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높아진 2.7%를 기록한 반면,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낮아짐.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5년 4/4분기보다 상승한 0.8%를 나타낸 반면, 신흥국의 경우는 전분기와 동일한 4.6%를 나타냄.

○ 두바이 현물지수와 WTI 현물지수는 전분기보다 각각 19.5%, 15.6% 하락하였고, CRB 상품지수²⁾도 11.2% 낮아짐.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5				2016		2015				2016
	연간	2/4	3/4	4/4	1/4		연간	2/4	3/4	4/4	1/4
세계	2.8	2.4	2.6	2.5	2.7	두바이 현물지수	50.1	61.1	48.4	38.7	31.1
선진국	0.3	0.2	0.2	0.4	0.8	WTI 현물지수	49.3	59.8	47.1	41.8	35.2
신흥국	4.7	4.5	4.9	4.6	4.6	CRB 상품지수 ²⁾	208.1	224.1	201.8	186.9	165.9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2016, 4); 한국은행; Bloomberg.

2)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지수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예견되거나 그 상품의 수요 증가를 의미함.

가. 미국경제

- 2016년 1/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등으로 2015년 4/4분기보다 0.3%p 하락한 1.1%를 기록함.
- 2016년 1/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낮아지고 소비자신뢰지수는 동일한 반면, 신규주택착공호수와 주택가격지수는 소폭 높아짐.
- 2016년 1/4분기 산업생산증가율과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설비가동률과 경기선행지수는 소폭 하락함.
- 2016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지만 실업률은 소폭 하락세를 보임.

〈경제성장〉

- 2016년 1/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등으로 2015년 4/4분기보다 0.3%p 하락한 1.1%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고가품 소비 위축³⁾으로 인해 전분기대비 0.9%p 하락한 1.5%를 기록함.
 - 민간투자 증가율의 경우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관련 투자 감소로 인한 설비투자 둔화 등으로 -1.8%를 나타내며 전분기보다 하락폭이 커짐.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3%p 상승한 0.3%를 나타내었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0.5%를 기록함.
 - 정부지출은 전분기보다 1.2%p 상승한 1.3%를 기록함.

3) 국제금융센터(2016. 4. 29), “국제금융속보”.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GDP	2.4	2.4	4.6	4.3	2.1	0.6	3.9	2.0	1.4	1.1
민간소비	2.7	3.1	3.8	3.5	4.3	1.8	3.6	3.0	2.4	1.5
재화	3.3	3.7	6.7	4.1	4.1	1.1	5.5	5.0	1.6	0.1
서비스	2.4	2.8	2.4	3.1	4.3	2.1	2.7	2.1	2.8	2.1
민간투자	5.4	4.9	12.6	7.4	2.1	8.6	5.0	-0.7	-1.0	-1.8
설비	6.2	2.8	4.4	9.0	0.7	1.6	4.1	2.6	-2.1	-4.5
주택	1.8	8.9	10.4	3.4	10.0	10.1	9.3	8.2	10.1	15.6
수출	3.4	1.1	9.8	1.8	5.4	-6.0	5.1	0.7	-2.0	0.3
수입	3.8	4.9	9.6	-0.8	10.3	7.1	3.0	2.3	-0.7	-0.5
정부지출	-0.6	0.7	1.2	1.8	-1.4	-0.1	2.6	1.8	0.1	1.3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합.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6. 6),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소비부문〉

■ 2016년 1/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낮아졌으며 소비자신뢰지수는 동일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4%p 낮아진 -0.1%를 나타냄.

○ 1/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와 동일한 96.0을 기록함.

■ 2016년 1/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와 주택가격지수는 소폭 높아짐.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3.3%p 상승한 1.5%를 나타내었음.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0.4% 상승한 183.3을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4.1	2.3	0.7	0.6	-0.7	1.5	0.9	0.3	-0.1	1.3	0.5
소비자신뢰지수 ²⁾	86.9	98.0	90.9	92.7	101.4	96.2	98.3	96.0	96.0	94.7	92.4
신규주택착공호수 ³⁾ (%)	7.8	10.7	3.9	3.3	-6.7	17.2	0.0	-1.8	1.5	4.9	-0.3
주택가격지수 ⁴⁾	170.7	179.3	173.5	172.9	173.7	178.9	182.2	182.5	183.3	186.6	n.a.

주: 1) 계절조정,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6년 1/4분기 산업생산증가율과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⁴⁾는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설비가동률과 경기선행지수는 소폭 하락함.
- 1/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0.4%를 나타냄.
- 설비가동률은 1/4분기 75.4를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의 경우 1/4분기에는 전분기보다 상승한 49.8을 나타냄.
- 1/4분기 경기선행지수는 4/4분기대비 소폭 하락하며 123.1을 기록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산업생산증가율 ¹⁾ (%)	2.9	0.3	0.6	0.9	-0.5	-0.7	0.4	-0.8	-0.4	0.6	-0.4
설비가동률 ²⁾	77.6	77.5	78.4	78.6	77.7	76.6	76.6	75.8	75.4	75.3	74.9
ISM제조업PMI	55.6	51.3	56.5	56.6	53.2	52.6	51.0	48.6	49.8	50.8	51.3
경기선행지수 ³⁾	117.2	122.2	118.2	119.9	120.6	122.2	122.7	123.4	123.1	123.9	123.7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07=100

3) 2004=100

자료: 국제금융센터;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고용과 물가⁵⁾〉

- 2016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지만 실업률은 소폭 하락세를 보임.
- 비농업 취업자는 58만 7,000명으로 전분기보다 25만 9,000명 감소하였으며,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6만 9,000명으로 전분기보다 3,000명 감소함.
-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4.9%를 기록함.

- 2016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소폭 높아졌음.

4)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5) 물가 지표는 다른 지표와는 달리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전년동기와 비교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6%p 상승한 1.1%를 나타내었고,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2%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7%를 나타내었고,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1.6%임.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물가 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업률 ¹⁾ (%)	6.2	5.3	6.1	5.7	5.6	5.4	5.2	5.0	4.9	5.0	4.7
포괄적 실업률(u-6) ²⁾ (%)	12.0	10.5	12.0	11.4	11.1	10.7	10.2	9.9	9.8	9.7	9.7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만 명)	301.5	274.4	73.6	82.3	57.0	75.2	57.6	84.6	58.7	12.3	3.8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만 명)	30.8	27.8	30.1	29.0	28.8	27.8	27.3	27.2	26.9	25.8	27.7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1.6	0.1	1.8	1.3	-0.1	0.0	0.1	0.5	1.1	1.1	1.0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1.8	1.8	1.8	1.7	1.7	1.8	1.8	2.0	2.2	2.1	2.2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1.9	-3.3	2.5	0.8	-3.2	-3.3	-3.3	-3.3	-1.7	-1.3	-2.3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1.9	2.0	2.0	2.0	1.9	2.1	2.2	1.8	1.6	1.7	1.6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나. 중국경제

- 2016년 1/4분기 중국 경제는 전년동기대비 6.7% 성장하는데 그치며 성장 둔화세가 지속됨.
- 2016년 1/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2015년 4/4분기보다 소폭 하락함.
- 2016년 1/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4/4분기대비 소폭 높아졌으나 구매자관리지수는 소폭 낮아짐.
- 2016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함.

〈경제성장〉

- 2016년 1/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15년 4/4분기보다 낮아진 1.1%를 기록하였고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6.7%를 나타냄.
- 고정자산투자는 전분기 증가율보다 0.4%p 상승한 10.5%를 기록함.
- 수출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보다 2.7%p 하락한 -8.5%를 나타내는 등 부진이 지속됨.
- 수입의 경우 전분기보다 13.5% 감소함.

〈표 9〉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질 GDP ¹⁾	7.3	6.8	1.9 (7.1)	1.7 (7.2)	1.4 (7.0)	1.8 (7.0)	1.8 (6.9)	1.5 (6.8)	1.1 (6.7)	n.a.	n.a.
고정자산투자 ²⁾	16.8	11.4	16.5	15.8	13.7	11.6	10.8	10.1	10.5	10.5	9.6
수출 증가율 ³⁾	5.5	-1.1	13.0	8.7	9.9	-2.8	-6.3	-5.2	-8.5	-1.8	-4.1
수입 증가율 ³⁾	0.9	-14.2	0.9	-1.6	-17.6	-13.3	-14.1	-11.6	-13.5	-10.9	-0.4

주: 1) 전분기대비, () 안은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소비부문〉

- 2016년 1/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2015년 4/4분기보다 소폭 하락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한 10.5%를 기록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102.8을 기록함.

〈표 10〉 중국의 주요 소비관련 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2.0	10.6	11.9	11.7	10.2	10.2	10.7	11.1	10.5	10.1	10.0
소비자신뢰지수	104.4	105.9	104.5	104.9	107.5	107.7	104.7	103.9	102.8	101.0	n.a.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생산부문〉

- 2016년 1/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4/4분기대비 소폭 높아졌으나 구매자관리지수는 소폭 낮아짐.
-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9%p 상승한 6.8%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제조업 투자 부진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49.5를 나타냄.

〈표 11〉 중국의 주요 생산관련 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8.2	6.0	8.0	7.6	5.6	6.3	5.9	5.9	6.8	6.0	6.0
구매자관리지수 ²⁾	50.7	49.9	51.3	50.4	49.9	50.2	49.8	49.7	49.5	50.1	50.1

주: 1)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2) 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고용⁶⁾과 물가〉

■ 2016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5년 4/4분기보다 0.6%p 높아진 2.1%를 기록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 -4.8%를 기록함.

〈표 12〉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1.4	2.0	1.5	1.2	1.4	1.7	1.5	2.1	2.3	2.0
생산자물가 상승률(%)	-1.9	-5.2	-1.3	-2.7	-4.6	-4.7	-5.7	-5.9	-4.8	-3.4	-2.8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6) 중국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실업률을 집계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실업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또한 중국 고용지표 발표가 불규칙하여 본고에서는 생략함.

다. 일본경제

- 2016년 1/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전분기대비 0.9%p 상승한 0.5%를 기록함.
- 2016년 1/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전년동기대비 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높아짐.
- 2016년 1/4분기 실업률은 2015년 4/4분기보다 하락하였고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분기대비 하락함.

〈경제성장⁷⁾〉

- 2016년 1/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전분기대비 0.9%p 상승한 0.5%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실업률 하락, 고용자보수 증가 등으로 2015년 4/4분기대비 1.4%p 높아진 0.6%를 기록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엔화 강세에 따른 실적악화 우려와 세계경제 부진 전망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전분기보다 2.0%p 하락한 -0.7%를 나타냄.
 - 반면, 주택투자 증가율은 주택착공호수 증가로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0.7%를 기록함 (〈표 14〉 참조).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하였으며, 공공투자는 전분기대비 2.9%p 높아진 -0.7%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의 경우 중국 등 관광객 소비 증가 등으로 전분기보다 1.4%p 상승한 0.6%를 나타냄.
 -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7%p 상승한 -0.4%를 나타냄.

7) 국제금융센터(2016. 5. 18), “일본, 2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 Economic Brief.

〈표 13〉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실질 GDP	0.0	0.5	-2.0 (-7.9)	-0.7 (-2.7)	0.5 (2.1)	1.3 (5.2)	-0.4 (-1.7)	0.4 (1.7)	-0.4 (-1.8)	0.5 (1.9)
민간소비	-0.9	-1.2	-4.9	0.0	0.6	0.2	-0.8	0.5	-0.8	0.6
설비투자	3.1	1.5	-4.2	-0.4	-0.1	3.2	-1.2	0.8	1.3	-0.7
주택투자	-5.3	-2.5	-10.7	-7.1	-0.3	2.1	2.2	1.7	-1.0	-0.7
정부지출	0.1	1.2	-0.2	0.3	0.3	0.3	0.4	0.2	0.7	0.7
공공투자	0.4	-2.5	-2.9	1.0	0.9	-2.3	2.8	-2.4	-3.6	-0.7
수출	8.3	2.8	0.0	1.5	3.4	2.2	-4.8	2.6	-0.8	0.6
수입	7.2	0.3	-4.3	1.0	1.1	1.5	-2.5	1.7	-1.1	-0.4

주: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6. 6).

〈소비 및 생산부문〉

- 2016년 1/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0%p 하락한 -1.0%를 나타냄.
- 2016년 1/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한 41.4로 집계됨.
-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5년 4/4분기보다 2.1%p 하락한 -2.3%를 기록함.
- 2016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6.2%p 높아진 5.5%를 기록하였고, 민간기계수주액은 전분기대비 6.7% 증가함.

〈표 14〉 일본의 주요 소비부문 경제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2.1	-1.2	-1.3	0.8	1.1	-1.3	-1.0	0.0	-1.0	0.5	-2.3
소매판매 증가율 ²⁾ (%)	1.7	-0.4	3.8	1.0	-1.6	0.1	1.1	-0.2	-2.3	-0.1	0.0
소비자신뢰지수 ³⁾	39.3	41.3	40.6	38.9	40.6	41.5	41.0	42.2	41.4	40.8	40.9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9.0	1.9	-13.6	-13.8	-5.4	7.6	6.2	-0.7	5.5	9.0	9.8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	4.0	4.1	5.4	1.3	4.1	3.0	-6.5	2.6	6.7	-11.0	n.a.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총무성.

〈고용과 물가〉

■ 2016년 1/4분기 실업률은 2015년 4/4분기보다 0.1%p 하락하였고, 유효구인배율⁸⁾은 소폭 상승함.

○ 실업률은 2015년 4/4분기대비 소폭 하락한 3.2%를 기록함.

○ 또한, 유효구인배율은 1/4분기 1.29로 전분기대비 소폭 높아짐.

■ 2016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0.1%를 나타냄.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1/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0.7%임.

〈표 1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실업률(%)	3.6	3.4	3.6	3.5	3.5	3.4	3.4	3.3	3.2	3.2	3.2
유효구인배율 ¹⁾ (배)	1.09	1.20	1.10	1.12	1.15	1.18	1.23	1.25	1.29	1.34	1.36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2.7	0.8	3.3	2.6	2.3	0.5	0.1	0.3	0.1	-0.3	-0.4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1.9	1.0	2.3	2.1	2.1	0.5	0.8	0.8	0.7	0.7	0.6

주: 1) 구인 수 / 구직자 수,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10=100,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8) 유효구인배율 = 구인자 수 / 구직자 수

라. 유로지역경제

- 2016년 1/4분기 유로 지역 경제성장률은 2015년 4/4분기보다 0.2%p 상승한 0.6%를 기록함.
- 2016년 1/4분기 유로 지역 ESI(경기체감지수)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6년 1/4분기 유로 지역 실업률은 대부분의 유로지역 국가에서 전분기대비 하락하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북유럽은 상승하였지만, 동유럽과 남유럽은 하락함.

〈경제성장〉

- 2016년 1/4분기 유로 지역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스페인과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2015년 4/4분기보다 0.2%p 상승한 0.6%를 기록함(〈표 16〉과 〈표 19〉 참조).
 - 경제성장률의 경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전분기보다 각각 0.4%p, 0.2%p, 0.1%p 상승한 반면, 영국은 전분기대비 각각 0.3%p 하락하였고 스페인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함.
 -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독일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유럽 주요국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전분기보다 0.3%p 높아진 0.6%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보다 0.6%p 하락한 0.8%를 나타내었고 정부지출 증가율도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0.4%를 기록함.
 - 유로 지역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0.4%를 기록하였으며, 수입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대비 0.7%p 하락한 0.7%를 나타냄.

〈표 16〉 유로 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EA19 ²⁾ GDP	0.9	1.7	0.1 (0.4)	0.3 (1.2)	0.4 (1.5)	0.6 (2.2)	0.4 (1.5)	0.3 (1.3)	0.4 (1.7)	0.6 (2.2)
민간소비	0.8	1.7	0.2	0.4	0.6	0.4	0.3	0.5	0.3	0.6
고정자본투자	1.3	2.9	-0.4	0.5	0.5	1.5	0.1	0.5	1.4	0.8
정부지출	0.8	1.3	0.2	0.3	0.1	0.5	0.3	0.3	0.5	0.4
수출	4.1	5.3	1.0	1.6	1.2	1.5	1.6	0.4	0.7	0.4
수입	4.5	6.1	1.1	1.5	1.1	2.3	0.9	1.3	1.4	0.7

주: 1)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2) 유로 지역(Euro Area) 19개국.

자료: Eurostat(2016, 6).

〈소비 및 생산부문〉

■ 2016년 1/4분기 유로 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04.0으로 전분기보다 하락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6%p 높아진 0.7%를 나타냄.

○ 유로 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1/4분기 -8.3으로 마이너스 지수가 지속됨.

■ 2016년 1/4분기 유로 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의 경우 2015년 4/4분기보다 0.6%p 상승한 1.0%를 기록함.

〈표 17〉 유로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¹⁾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4월	5월
유로 지역 ESI ²⁾	101.5	104.2	101.1	100.7	102.5	103.7	104.5	106.2	104.0	104.0	104.6
소매판매 증가율 ³⁾ (%)	1.4	2.8	0.1	1.0	1.0	0.6	0.7	0.1	0.7	0.2	0.4
소비자신뢰지수 ⁴⁾	-10.2	-6.2	-10.1	-11.3	-6.2	-5.2	-7.0	-6.4	-8.3	-9.3	-7.0
산업생산 증가율 ⁵⁾ (%)	0.9	1.5	-0.2	0.7	0.9	-0.1	0.4	0.4	1.0	1.1	n.a.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 + 서비스업(30%) + 소비자신뢰(20%) + 건설업(5%) + 소매거래(5%)

3) 계절조정 2005=100

4)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5) 비계절조정 2005=100

자료: Eurostat; Bloomberg.

〈고용과 물가〉

- 2016년 1/4분기 유로 지역 실업률의 경우 모든 유로 국가는 전분기대비 하락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1/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6.5%를 기록하였고, 북유럽의 경우도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6.7%이었음.
 - 동유럽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7.4%를 나타내었고 남유럽 실업률도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17.0%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지속됨.
- 2016년 1/4분기 모든 유럽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북유럽은 상승하였지만, 동유럽과 남유럽은 하락함.
 -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하였고, 북유럽의 경우는 전분기보다 0.3%p 높아진 1.1%를 나타냄.
 - 또한, 동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낮아진 -0.7%를 나타내었고, 남유럽의 경우도 0.2%p 하락한 -0.1%를 나타냄.

〈표 18〉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5년 3/4	6.8	6.8	8.2	17.6	0.1	0.6	-0.6	-0.1
2015년 4/4	6.6	6.8	7.9	17.3	0.2	0.8	-0.5	0.1
2016년 1/4	6.5	6.7	7.4	17.0	0.2	1.1	-0.7	-0.1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6, 6).

〈표 19〉 유럽 주요국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4			2015				2016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4
독일 GDP	1.6	1.7	-0.1	0.2	0.6	0.4	0.4	0.3	0.3	0.7
민간소비	0.9	2.0	-0.1	0.6	1.0	0.3	0.1	0.8	0.4	0.4
고정자본투자	3.5	2.2	-1.5	-0.7	1.3	1.4	-0.5	0.1	1.4	1.8
수출	4.0	5.4	0.4	1.5	1.4	1.5	1.8	0.3	-0.6	1.0
수입	3.7	5.8	0.9	0.4	2.1	2.2	0.6	1.1	0.5	1.4
프랑스 GDP	0.6	1.3	0.1	0.3	0.2	0.6	-0.1	0.4	0.4	0.6
민간소비	0.7	1.5	0.5	0.5	0.4	0.5	0.1	0.5	0.1	1.1
고정자본투자	-0.3	1.0	-0.3	0.0	-0.1	0.5	0.2	0.1	1.0	1.4
수출	3.3	6.1	0.3	1.3	2.9	1.8	1.6	-0.3	0.8	0.0
수입	4.7	6.6	0.6	2.1	1.7	2.1	0.2	1.8	2.8	0.8
이탈리아 GDP	-0.3	0.8	-0.1	-0.1	-0.1	0.4	0.3	0.2	0.2	0.3
민간소비	0.6	0.9	0.1	0.1	0.2	0.0	0.5	0.5	0.3	0.3
고정자본투자	-3.4	0.8	-0.6	-0.6	-0.2	0.6	0.2	0.6	0.8	0.2
수출	3.1	4.3	1.3	0.5	1.8	1.6	1.3	-1.4	1.2	-1.5
수입	3.2	6.0	1.3	1.2	0.5	3.2	1.5	-0.2	0.9	-0.9
스페인 GDP	1.4	3.2	0.5	0.6	0.7	0.9	1.0	0.8	0.8	0.8
민간소비	1.2	3.1	0.5	0.5	0.8	0.8	0.8	1.1	0.7	0.9
고정자본투자	3.5	6.4	2.1	0.9	1.4	1.6	2.3	1.3	1.1	0.4
수출	5.1	5.4	1.2	3.3	0.2	1.0	1.4	1.8	0.9	-0.5
수입	6.4	7.5	1.7	3.3	-0.2	2.6	1.5	3.1	0.3	0.3
영국 GDP	3.1	2.2	0.9	0.8	0.8	0.3	0.4	0.4	0.7	0.4
민간소비	2.2	2.5	0.5	1.3	-0.2	0.8	0.8	0.6	0.6	0.8
고정자본투자	6.7	3.3	-1.6	1.4	0.7	1.5	1.2	0.5	-1.0	-0.1
수출	1.5	4.8	-0.3	-1.3	4.0	2.1	-0.3	-0.2	3.2	-0.4
수입	2.5	5.8	-1.3	1.1	2.8	3.8	-2.1	1.3	2.5	0.1

주: 전분기대비.
 자료: Eurostat(2016, 6).

2. 국내경제

- 2016년 1/4분기 국내경제는 대내외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부진에 따른 산업 생산 성장 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제약을 받는 상태가 이어짐.
- 2016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수출 부진(-0.7%)이 지속되면서 설비투자(-4.5%)가 위축되었으나 건설투자(9.6%)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한 2.8%를 나타냄.
- 2016년 1/4분기 경제동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비지출은 소매판매가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였고, 설비투자는 기계류 수주(-12.7%)의 급격한 부진으로 4.5% 감소한 반면 건설투자는 주택경기(22.1%) 호조에 힘입어 9.6% 증가함.
 - 산업생산은 수출 감소에 따라 광공업(-0.2%) 생산이 부진하였으나 서비스업(2.8%) 생산이 완만하게 성장하며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함.
 - 고용은 총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고,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1.4% 하락한 59.1%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1.2%p 상승한 4.3%를 나타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0%를 기록하며 저물가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대비 4.7 하락한 99.3을 나타내어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 심리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냄.
 - 대외거래는 수출이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어 전년동기대비 13.3% 감소하고, 수입은 국제유가 등 원재자가격 하락 등으로 16.3%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한 220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고용 둔화로 근로소득 증가율이 감소하고 이자소득 감소로 재산소득이 줄어들며 전년동기대비 0.8% 상승에 그침.
- 2016년 1/4분기 경기동향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분기 대비 각각 0.5씩 하락한 100.4, 100.2를 기록하여 경기둔화를 시사함.

가. 경제성장

■ 2016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건설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한 2.8%를 기록함.

-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 증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⁹⁾ 등에 힘입어 내구재 소비가 늘어나면서 2.2% 증가함(〈표 21〉 참조).
- 설비투자는 대외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기계류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4.5% 감소함(〈표 22〉 참조).
- 건설투자는 건물건축 투자를 중심으로 9.6% 증가함(〈표 22〉 참조).
- 지식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0.9% 증가함.¹⁰⁾
- 재화수출은 글로벌경기회복이 지연되며 0.7% 감소하였고, 재화수입의 경우 저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변동 없음.¹¹⁾

〈표 20〉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 GDP	3.5 (0.6)	3.4 (0.7)	2.7 (0.3)	3.3	2.4 (0.8)	2.2 (0.4)	2.8 (1.2)	3.1 (0.7)	2.6	2.8 (0.5)
민간소비	1.7	1.4	1.1	1.7	1.5	1.7	2.2	3.3	2.2	2.2
설비투자	7.9	4.4	4.4	6.0	5.8	5.1	6.7	3.9	5.3	-4.5
건설투자	0.3	2.3	-1.7	1.1	0.9	1.0	5.6	7.5	3.9	9.6
지식생산물투자	6.5	5.8	1.7	5.4	2.0	0.9	1.1	2.1	1.5	0.9
재화수출(F. O. B)	2.4	0.3	-0.8	1.1	-0.6	-0.4	0.3	2.5	0.5	-0.7
재화수입	0.5	0.6	-1.2	0.5	0.4	0.8	1.9	4.7	2.0	0.0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9) 정부는 2015년 말 종료되었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2016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함(2016. 2. 3).

10)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6), “2015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11)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6), “2015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나. 경제동향

〈소비지출〉

■ 2016년 1/4분기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2%, 5.1% 증가함.

○ 내구재 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및 연장으로 인해 자동차 중심으로 등락하며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함.

- 4월에는 전년동월대비 7.9% 증가하였고, 5월에는 임시공휴일 지정 및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둔 가수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함(〈표 21〉 참조).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하였으며, 4월과 5월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2.1%, 0.8% 증가함.

○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3.1%, 3.2% 증가함.

〈표 21〉 소비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²⁾	4월 ²⁾	5월 ²⁾
소매판매	2.0	2.2	3.4	3.6	6.1	3.9	4.6	4.2	5.1
내구재	5.1	7.9	8.9	7.7	16.1	10.2	5.6	7.9	12.1
* 승용차	16.4	17.6	18.8	17.5	29.8	21.3	8.9	10.5	20.8
준내구재	-0.8	-2.2	-1.3	-3.4	1.5	-1.2	2.7	2.1	0.8
비내구재	1.6	0.8	2.4	4.0	3.0	2.5	4.9	3.1	3.2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6년 1/4분기 설비투자는 제조업 평균가동률 하락과 재고율 상승이 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함.

○ 2016년 1/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 부문에서 부진이 심화되고, 운송장비 부문 투자도 증가세가 둔화되며 전년동기대비 7.1% 하락함.

- 4월 설비투자지수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부문에서 투자가 증가하여,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부문에서 투자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2.8% 하락함.¹²⁾
- 5월 설비투자지수도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부문에서 투자가 줄어들었으나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 부문에서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함.¹³⁾
- 2016년 1/4분기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¹⁴⁾는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함.
- 4월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증가하였으나 전기·영상·음향통신 등 민간부문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28.8% 감소함.¹⁵⁾
- 5월 국내기계수주는 공공운수업 등 공공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건설업 등 민간부문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함.¹⁶⁾

〈표 22〉 투자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²⁾	4월 ²⁾	5월 ²⁾
설비투자	6.0	5.8	5.1	6.7	3.9	5.3	-4.5	-	-
설비투자지수	5.0	9.2	4.5	10.2	1.6	7.8	-7.1	-2.8	2.9
기계류	3.9	11.5	3.9	5.3	-7.8	1.9	-12.7	-9.8	-4.5
운송장비	8.0	3.1	6.5	22.2	26.5	24.6	9.4	17.3	18.8
국내기계수주 ³⁾	13.3	-3.0	14.9	-27.1	6.9	1.6	0.9	-28.8	0.6
건설투자	1.1	0.9	1.0	5.6	7.5	3.9	9.6	-	-
건설기성(불변)	7.8	-1.7	-3.8	6.2	8.0	6.3	14.8	17.1	20.2
건축	-16.3	-0.2	-3.5	10.8	16.3	22.7	22.1	24.9	24.0
토목	0.9	-4.3	-4.3	-1.9	-4.5	-14.6	2.0	3.3	12.9
국내건설수주(경상)	22.2	57.4	49.1	50.4	40.1	40.9	13.8	19.3	-25.5
건축	-32.1	89.5	49.3	42.5	37.8	61.0	13.1	34.2	-31.0
토목	0.0	1.7	48.3	83.6	45.9	3.2	16.0	-25.7	9.2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2) 통계청 보도자료(2016. 5. 31), “2016년 4월 산업활동동향”.

13) 통계청 보도자료(2016. 6. 30), “2016년 5월 산업활동동향”.

14) 기계수주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민간수요(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수요로 분류됨.

15) 통계청 보도자료(2016. 5. 31), “2016년 4월 산업활동동향”.

16) 통계청 보도자료(2016. 6. 30), “2016년 5월 산업활동동향”.

- 2016년 1/4분기 건설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주택분양¹⁷⁾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건축부문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한 주택거래량 감소, 주택담보대출 규제¹⁸⁾ 등이 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으로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함.
- 건설기성¹⁹⁾은 토목부문의 부진이 완화되고 건축부문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4.8% 증가함.
- 4월과 5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과 토목 부문이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년동월대비 각각 17.1%, 20.2% 증가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경상)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된 모습으로 토목부문에서 증가하였으나 건축부문에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함.
- 4월 국내건설수주는 토목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건축부문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9.3% 증가함.
 - 5월 국내건설수주는 토목부문에서 증가하였으나 건축부문에서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25.5% 감소함.

〈산업생산〉

- 2016년 1/4분기 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광공업 생산 부진이 이어지며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함.
- 2016년 1/4분기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생산이 위축되면서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함.
- 4월 광공업 생산은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6% 감소함.
 - 5월 광공업 생산은 수출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앞둔 가 수요 등으로 인해 반도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함.

17) 2016년 1/4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은 전년동기대비 18.9% 증가함(KDI(2016. 5. 2), 부동산시장동향 2016년 1/4분기).

1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12. 14),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발표”.

19)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용어설명(<http://www.kostat.go.kr>)).

○ 2016년 1/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양호한 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함.

- 4월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업 등이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및 임대업이 감소로 전환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 부진이 이어져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하며 증가세가 약화됨.
- 5월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호조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3.4% 증가함.

〈표 23〉 산업 생산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²⁾	4월 ²⁾	5월 ²⁾
전산업생산 ³⁾	1.4	1.0	1.0	2.1	2.4	1.7	2.3	0.8	4.8
광공업	0.2	-1.1	-1.3	-0.1	-0.1	-0.6	-0.2	-2.6	4.3
제조업	0.3	-1.2	-1.3	-0.3	0.1	-0.6	-0.4	-2.6	4.5
자동차	2.8	-4.1	2.6	4.7	1.4	1.0	-0.2	-8.5	3.2
ICT	-1.8	-1.5	-2.2	2.4	6.6	1.3	-0.2	-0.2	6.3
서비스업	2.3	2.7	2.7	2.9	3.3	2.8	2.8	1.9	3.4
도매 및 소매업	2.3	0.4	0.9	1.4	4.2	1.7	2.8	2.8	3.3
운수업	0.4	3.9	-0.3	0.7	1.1	1.4	2.1	2.1	2.7
숙박 및 음식점업	1.7	-0.7	-2.8	-3.5	-1.3	-2.0	-0.8	-1.4	-2.0
금융 및 보험업	1.5	8.7	11.4	10.1	6.2	9.0	6.5	1.5	7.4
부동산 및 임대업	5.2	5.4	10.2	11.1	5.9	8.1	3.3	-3.3	0.4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고용〉

■ 2016년 1/4분기 총취업자 수는 내수 활력이 약화되고 설연휴·조사시점²⁰⁾ 등 특이요인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고, 고용률은 59.1% 실업률은 4.3%를 기록하며 고용지표가 다소 악화됨.

○ 1/4분기 총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0% 증가율을 보임.

- 청년취업자 수의 경우 인구감소세 확대²¹⁾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 증가²²⁾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1%, 1.8% 증가함.

○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1.4%p 하락한 59.1%를 기록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각각 60.3%, 61.0%를 나타냄.

○ 실업률은 계절적 요인²³⁾ 등으로 전분기대비 1.2%p 상승한 4.3%를 기록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각각 3.9%, 3.7%를 나타냄.

- 청년실업률의 경우 계절적 특성 및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전분기대비 3.3%p 상승한 11.3%를 기록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각각 10.9%, 9.7%를 나타냄.

20) 2015년 2월 조사기간이 설 연휴 전인데 비해 2016년에는 설 연휴(2. 7~10) 이후 조사(2. 14~20)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소효과가 발생함. 지난 10년간 조사시점이 명절 후인 경우 통상 전월비로 평균 1만 명 감소효과가 발생함.(고용노동부(2016. 3. 16), “16년 2월 고용동향”).

21) 청년 인구 증감(전년동월비, 만 명): (‘16. 1) -2.9%, (2월) -3.7%, (3월) -3.8%, (4월) -4.7%, (5월) -5.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6. 15), “2016년 5월 고용동향”)

22) 청년경제활동참가율(%): (‘15. 1) 45.5, (‘15. 2) 46.2, (‘15. 3) 44.8, (‘15. 4) 45.8, (‘15. 5) 46.0
(‘16. 1) 46.1, (‘16. 2) 47.4, (‘16. 3) 46.5, (‘16. 4) 46.9, (‘16. 5) 47.3

23) 2월은 방학, 취업시즌, 정부일자리사업 공모 등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달에 비해 실업률이 평균적으로 1.1%p 이상 높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3. 16), “2016년 2월 고용동향”).

〈표 24〉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총취업자 ¹⁾	2.1	1.4	1.2	1.2	1.5	1.3	1.1	1.0	1.0
청년취업자 ¹⁾	2.0	0.8	2.3	1.3	2.6	1.8	1.0	1.1	1.8
고용률 ²⁾	60.2	59.0	60.7	60.9	60.5	60.3	59.1	60.3	61.0
실업률 ³⁾	3.5	4.1	3.8	3.4	3.1	3.6	4.3	3.9	3.7
청년 ⁴⁾ 실업률 ³⁾	9.0	10.3	9.9	8.4	8.0	9.2	11.3	10.9	9.7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4.5	-7.4	-7.7	-6.8	-7.6	-7.4	-4.9	-4.1	-6.5
광공업	3.4	3.1	3.3	3.8	4.2	3.6	3.0	1.2	1.2
제조업	3.5	3.2	3.4	3.8	4.0	3.6	2.9	1.1	1.1
SOC ⁵⁾ 및 기타서비스업	2.4	1.6	1.5	1.3	1.5	1.4	1.1	1.3	1.5
건설업	2.4	4.3	2.4	0.6	-1.0	1.5	-0.5	-2.1	-1.2
도·소매, 음식, 숙박	4.6	2.5	2.2	0.8	-0.6	1.2	-0.9	0.7	0.1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6	-0.9	-0.1	1.7	2.3	0.7	1.5	-0.5	0.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2.0	1.3	1.3	1.6	3.1	1.8	2.5	2.9	3.4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6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고령화 등 非경기적 요인으로 인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SOC 및 기타서비스업도 증가세가 약화된 한편 제조업이 전체 고용증가세를 견인하는 모습임.

-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4.9% 감소하였으며, 4월과 5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4.1%, 6.5% 감소함.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²⁴⁾는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수출 부진으로 생산 둔화가 지속되면서 증가폭이 축소되어 각각 전년동월대비 1.2% 증가에 그침.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정책효과²⁵⁾ 등에 힘입어 각각 전년동월대비 1.3%, 1.5% 증가함.

24) 제조업 포함.

25)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2016년 6월 말 종료), 임시공휴일(2016. 5. 6) 지정 등(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건설업 취업자 수는 0.5% 감소하였으며, 4월과 5월에 각각 2.1%, 1.2% 감소함.
-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의 경우 0.9% 감소하였으나, 4월과 5월에는 각각 전년 동월대비 0.7%, 0.1% 증가함.
-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취업자 수의 경우 1.5% 증가하였으며, 4월에는 0.5% 감소하였으나 5월에는 0.3% 증가함.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취업자 수는 2.5% 증가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각각 전년동월 대비 2.9%, 3.4% 증가함.

〈물가〉

■ 2016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0% 상승하였으며, 1월과 2월에 각각 전년 동월대비 1.0%, 0.8% 상승하며 낮은 상승세를 이어감.

○ 2016년 1/4분기 상품물가는 계절적 요인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석유류 하락세가 이어지며 0.6% 하락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0.4%, 1.1% 하락함.

- 4월 중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유가상승으로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며 전년동월대비 0.4% 하락함.²⁶⁾

- 5월 중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농산물 수급안정 노력 및 '16년산 물량 출하 등으로 안정세를 찾은 가운데 석유류가 전년동월 상승에 의한 기저효과로 인해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년동월대비 1.1% 하락함.²⁷⁾

○ 2016년 1/4분기 서비스물가는 2.4% 상승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2%, 2.2% 상승함.

■ 2016년 1/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대비 4.7 하락한 99.3을 나타냈으며, 4월에는 101.0을 기록하였으며, 5월에는 기준치(100)를 하회한 99.0를 기록하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냄.

(2016. 6. 15), “2016년 5월 고용동향”).

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5. 3), “2016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2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5. 31), “201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표 25〉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소비자심리지수 ²⁾	105.9	102.0	102.3	101.3	104.0	102.4	99.3	101.0	99.0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0.6	0.5	0.7	1.1	0.7	1.0	1.0	0.8
〈품목 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2.7	-0.7	-0.8	-0.9	-0.4	2.0	-0.6	-0.4	-1.1
농축수산물	1.3	0.3	2.1	2.9	2.6	-0.2	4.5	5.5	1.3
공업제품	3.9	-0.4	-0.3	-0.2	0.0	-7.4	-0.6	-0.6	-0.9
전기·수도·가스	1.6	-3.7	-8.0	-10.8	-7.1	1.8	-8.0	-8.0	-6.4
서비스	2.3	1.6	1.6	2.0	2.2	2.5	2.4	2.2	2.2
집세	0.8	2.3	2.4	2.7	2.8	1.2	2.9	2.7	2.6
공공서비스	1.7	0.5	0.5	1.8	2.0	1.9	2.2	2.2	2.2
개인서비스	0.0	1.8	1.9	1.8	2.2	0.0	2.3	2.0	2.2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15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대외거래〉

■ 2016년 1/4분기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3.3% 감소한 1,15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16.3% 감소한 936억 달러를 실현하여, 무역수지는 220억 2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냄.

○ 수출의 경우, 식료 및 직접소비재 수출이 5.0% 상승하였으나, 원료 및 연료(-31.3%), 경공업 제품(-5.4%), 중화학 공업품(-12.6%) 등이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임.

- 2016년 4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²⁸⁾ 단가하락,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일부 품목의 수출 부진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1.2% 감소함.²⁹⁾

- 2016년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0% 감소하며 '15년 11월 이후 최소 감소율을 시현하였고, 일평균 수출액³⁰⁾이 금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

28) 전년동월대비 1.5일 줄어듦.

29) 산업자원통상부 보도자료(2016. 5. 1), “2016년 4월 수출입 동향”.

30) 일평균수출액(억 달러): ('16. 1) 16.2, (2월) 18.0, (3월) 17.9, (4월) 18.2, (5월) 18.5(산업자원통상부 보도자료(2016. 6. 1), “2016년 5월 수출입 동향”).

는 원화기준 수출³¹⁾이 '15년 9월 이후 8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며 회복 기반을 다짐.³²⁾

○ 수입의 경우, 소비재가 2.7% 감소로 전환하였고, 원자재 가격 하락³³⁾이 이어지며 원자재 수입이 25.6% 감소하며 감소세를 이어갔고, 자본재 수입도 7.6% 감소함.

- 2016년 4월의 수입은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 수입단가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액의 감소율이 축소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4.9% 감소하며 적자폭이 줄어들.
- 2016년 5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9.0% 감소하며 17개월 만에 감소율이 한 자리로 전환³⁴⁾하였고, 원자재 수입이 19.6% 감소하여 역시 17개월 만에 최저 감소율³⁵⁾을 기록함.

〈표 26〉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3.9	-3.5	0.5	-4.4	-1.3	-2.1	5.0	-9.3	16.6
	원료 및 연료	-3.2	-36.0	-28.2	-33.2	-36.0	-33.3	-31.3	-11.0	-26.0
	경공업 제품	-1.0	-5.3	-9.5	-10.0	-8.6	-8.4	-5.4	-7.8	4.3
	중화학 공업품	3.3	1.7	-4.6	-6.4	-9.8	-4.9	-12.6	-11.5	-5.2
	전체	2.3	-3.0	-7.3	-9.5	-12.0	-8.0	-13.3	-11.2	-6.0
	금액	5,727	1,334	1,351	1,282	1,300	5,268	1,156	411	398
수입	소비재	12.1	8.1	2.2	-1.8	0.5	2.1	-2.7	-1.2	6.9
	원자재	-0.6	-29.5	-26.5	-32.7	-29.8	-29.6	-25.6	-24.2	-19.6
	자본재	3.3	7.0	-0.9	3.7	-4.0	1.3	-7.6	-6.9	1.4
	전체	1.9	-15.6	-15.6	-18.7	-17.8	-16.9	-16.3	-14.9	-9.0
	금액	5,255	1,118	1,105	1,080	1,063	4,365	936	322	328
	무역수지	471.5	216.3	246.1	202.8	237.4	902.6	220.2	88.5	69.8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31) 원화기준수출증감율(%): ('16. 1) -10.7, (2월) -3.6, (3월) -1.9, (4월) -6.4, (5월) 0.9(산업자원통상부 보도자료(2016. 6. 1), "2016년 5월 수출입 동향")

32) 산업자원통상부 보도자료(2016. 6. 1), "2016년 5월 수출입 동향".

33) 〈표 4〉 참조.

34) 전체 수입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15. 1) -12.2, ('15. 6) -20.2, ('16. 2) -14.6, ('16. 3) -13.8, ('16. 4) -14.9, ('16. 5) -9.0(관세청 보도자료(2016. 6. 15), "2016년 5월 수출입 동향")

35) 원자재 수입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15. 1) -26.8, ('15. 6) -26.5, ('16. 2) -23.0, ('16. 3) -24.2, ('16. 4) -24.2, ('16. 5) -19.6(관세청 보도자료(2016. 6. 15), "2016년 5월 수출입 동향")

■ 2016년 1/4분기 지역별 수출의 경우 EU 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수입도 대다수 지역으로부터 줄어들음.

○ 중동지역이 저유가로 인한 경기 부진으로 對중동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0.2% 감소로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중국의 경기성장 둔화 및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對중국 수출이 15.7% 감소한 반면, 對EU 수출은 선박, 석유화학 등의 호조로 8.8% 증가함.³⁶⁾

- 4월 수출은 對ASEAN 수출이 베트남 해외생산기지향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7.0% 증가로 전환된 반면, 그 외 나머지 주요 국가로의 수출은 모두 감소함.³⁷⁾

- 5월 수출은 對미국 수출이 소비심리 개선 및 무선통신기기·자동차부품·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³⁸⁾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로 전환되었고, 對ASEAN 수출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폭은 축소됨.

○ 유가 하락 등으로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2.6% 감소하였으며, 대다수 주요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도 감소세가 지속됨.

- 4월에는 원유의 수입 단가 상승으로 중동지역으로의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35.8% 감소하며 감소폭을 축소하였고, 그 외 주요 지역으로부터 수입은 모두 감소세를 이어감.

- 5월에는 중국, 일본, 미국으로의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0.9%, 3.7%, 10.0% 상승하였고, 그 외 주요 지역으로부터 수입은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감소폭은 줄어드는 추세임.

3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2. 1), “2016년 1월 수출입 동향”.

3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5. 1), “2016년 4월 수출입 동향”.

3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6. 1), “2016년 5월 수출입 동향”.

〈표 27〉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 ¹⁾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수출	중국	26.0	-1.6	-2.7	-6.9	-10.5	-5.6	-15.7	-18.3	-9.1
	ASEAN	14.2	-17.8	-10.1	-7.1	-10.4	-11.5	-11.2	7.0	0.3
	미국	13.3	13.3	-1.0	-2.2	-10.0	-0.6	-3.3	-6.4	0.7
	EU	9.1	-21.2	-8.5	-3.6	7.9	-6.9	8.8	-0.1	-13.0
	중남미	5.8	17.9	-12.7	-23.9	-30.9	-14.6	-26.9	-39.7	-7.0
	중동	5.8	-3.7	-6.8	-17.2	-21.9	-12.6	-20.2	-27.5	-14.3
	일본	4.9	-22.2	-13.1	-26.6	-20.0	-20.5	-13.1	-25.8	-12.4
	전체	100.0	-3.0	-7.3	-9.5	-12.0	-8.0	-13.3	-11.2	-6.0
수입	중국	20.7	7.1	-4.1	2.5	-3.8	0.2	-9.5	-7.2	0.9
	중동	15.7	-41.7	-37.3	-46.0	-45.0	-42.5	-42.6	-35.8	-36.1
	동남아	14.5	-6.9	-13.9	-12.2	-10.4	-10.8	-8.6	-9.9	-1.3
	EU	13.1	-7.7	-5.2	-11.0	-9.4	-8.3	-11.6	-5.2	-8.7
	일본	10.5	-8.8	-13.2	-18.0	-18.8	-14.7	-11.3	-10.8	3.7
	미국	10.1	-7.1	-2.6	0.2	-1.4	-2.8	-4.8	-14.1	10.0
	호주	3.8	-19.8	-22.5	-15.2	-20.4	-19.5	-15.8	-22.7	-4.3
	전체	100.0	-15.6	-15.6	-18.7	-17.8	-16.9	-16.3	-14.9	-9.0

주: 1) 2015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중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가계소득〉

■ 2016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고용 둔화³⁹⁾로 근로소득 증가율이 감소하고 이자소득 감소로 재산소득이 줄어들며⁴⁰⁾ 전년동기대비 0.8% 상승에 그쳤으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유가하락에 따른 지출부담 완화 등으로 0.6%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5.5만 원으로 0.8% 증가하였고, 실질소득은 0.2% 감소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6.9만 원으로 0.6% 증가하였고, 실질소비지출은 0.4% 감소함.

- 경기부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⁴¹⁾되며 소비지출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39) 〈표 24〉 참조.

40) 사업소득(3.3%)과 비정상소득(2.3%)이 크게 증가하였고, 근로소득(0.3%)과 재산소득(-21.0%) 증가율이 둔화됨(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5. 27)).

41) 〈표 25〉 참조.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0.4만 원으로 1.0%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103.5만 원으로 1.9% 증가함.

- 소비심리 둔화로 평균소비성향은 72.1%로 0.2%p 하락하고,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0.2%p 상승한 27.9%를 나타냄.

〈표 28〉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¹⁾

(단위: %, %p, 만 원)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430.2	451.7	427.1	441.6	430.2	437.3	455.5
	증가율	3.4	2.6	2.9	0.7	0.9	1.6	0.8
	실질증가율 ²⁾	2.1	2.0	2.3	0.0	-0.2	0.9	-0.2
처분가능 소득	금액	349.8	366.8	348.4	358.2	352.8	356.3	370.4
	증가율	3.5	3.0	3.1	0.9	0.7	1.9	1.0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255.1	265.3	249.4	256.3	255.0	256.3	266.9
	증가율	2.8	0.0	0.7	-0.5	1.7	0.5	0.6
	실질증가율 ²⁾	1.5	-0.6	0.1	-1.2	0.7	-0.2	-0.4
흑자액	금액	94.7	101.5	98.9	102.0	97.8	100.0	103.5
	증가율	5.2	11.6	9.6	4.7	-1.9	5.6	1.9
평균소비성향 ³⁾		72.9	72.3	71.6	71.5	72.3	71.9	72.1
흑자율 ⁴⁾		27.1	27.7	28.4	28.5	27.7	28.1	27.9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다. 경기동향

■ 2016년 1/4분기 경기동향⁴²⁾을 살펴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⁴³⁾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⁴⁴⁾가 전분기대비 각각 0.5씩 하락한 100.4, 100.2를 기록하여 경기둔화를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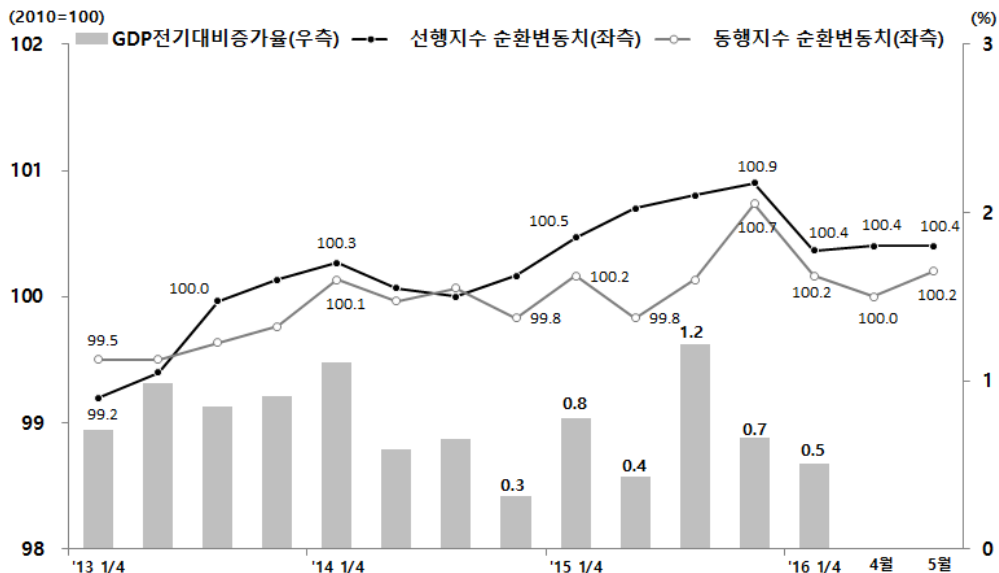
42) 통계청은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경기종합지수의 경기설명력 향상을 위해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을 실시함(통계청 보도자료(2016. 6. 30),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이에 따라 향후 계간보험동향 경기종합지수는 이를 기초해 작성함.

43)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44)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과 수출입물가비율은 상승하였으나 기계류내수출하지수와 소비자기대지수가 하락하며 전분기와 동일한 100.4를 기록함.
 - 4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출입물가비율이 하락하였으나 재고순환지표,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하여 100.4를 기록함.
 - 5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출입물가비율과 구인구직비율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수주액이 감소로 전환하였고, 재고순환지표,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상승이 이어지며 전월과 동일한 100.4를 기록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건설기성액이 증가하였으나 광공업생산지수, 수입액 등이 하락하며 100.2를 기록함.
 - 4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증가하였으나 수입액 감소가 이어지며 전월대비 0.2 감소한 100.0을 기록함.
 -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액이 상승 전환한 가운데 소매판매액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 전월대비 0.2 상승한 100.2를 기록함.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2016년 1/4분기, 4월과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6년 1/4분기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한 반면 재고지수는 3.7 증가하여 재고율⁴⁵⁾은 5.4%p 상승한 127.0%를 기록함에 따라 경기회복세 둔화에 따른 수출 및 출하 부진을 시사함.⁴⁶⁾

○ 4월 재고율은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한 124.5%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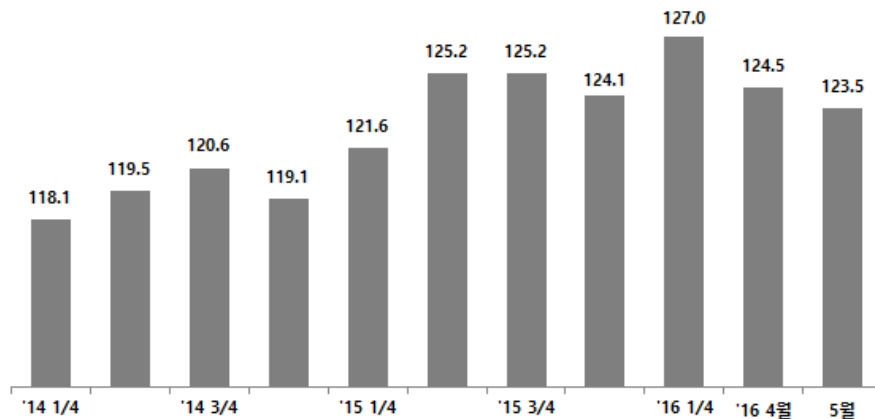
- 4월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석유정제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줄어 전년동월대비 변동없으며, 재고는 기계장비, 전자부품 등에서 줄어 0.7% 감소함.⁴⁷⁾

○ 5월 재고율은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한 123.5%를 나타냄.

- 5월 제조업 출하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석유정제 등에서 늘어 1.8%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늘어 0.8% 증가함.⁴⁸⁾

〈그림 2〉 제조업 재고율¹⁾

(%)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45)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출하액대비 재고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제품 판매 증가로 재고는 줄고 출하는 증가하게 되어 재고-출하비율은 하락하게 됨. 반면 경기가 불황에 진입할 경우 판매(출하)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재고는 증가하므로 재고율 지수는 상승함.

46) 2016년 1월~2016년 5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47) 통계청 보도자료(2016. 5. 31), “2016년 4월 산업활동동향”.

48) 통계청 보도자료(2016. 6. 30), “2016년 5월 산업활동동향”.

3. 국내금융

- 2016년 2/4분기 국고채(3년 만기)와 회사채(3년 만기, AA-) 금리는 2016년 1/4분기보다 하락하여 저금리 기조가 심화됨.
- 2016년 2/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대비 하락하였고,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지수는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일시적 불안정을 보였으나 곧 안정을 찾아감.
- 2016년 1/4분기 순수신은 자산운용과 증금사를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감소함.

〈금리〉

- 2016년 2/4분기 기준금리는 1.25%로 전분기대비 25bp 하락함.
 - 2016년 6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기존의 1.50%에서 25bp 하향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세계 경제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으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등 신흥국의 금융·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등의 영향을 고려함.
- 2016년 2/4분기 평균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전분기대비 12bp 하락한 1.42%임.
 - 4월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경제지표부진⁴⁹⁾과 국내 경제성장률 부진⁵⁰⁾의 영향으로 3월 평균 금리 1.50%보다 3bp 하락한 1.47%를 기록함.
 - 5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⁵¹⁾하여 4월 평균 금리보다 1bp 하락한 평균 1.46%를 나타남.
 - 6월 국고채 금리는 영국 브렉시트 가결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3bp 하락한 1.33%를 기록함.

49) 중국 4월 제조업 PMI는 49.4로 예상치인 49.8을 하회하였고,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는 16.0만 명으로 이 역시 예상치인 20.5만 명을 하회함.

50) 전기대비 0.4%를 기록함.

51) 국내 5월 CPI는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상치인 0.93%에 비하여 부진한 기록이었으며, 미국 5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의 경우 16.0만 명이라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3.8만 명을 기록함.

〈표 29〉 금리 및 스프레드¹⁾

(단위: %, %p)

구분	2015 2/4	2015 3/4	2015 4/4	2016 1/4	2016 2/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기준금리 ²⁾	1.50	1.50	1.50	1.50	1.25	-0.25	-0.25
CD(91일) ³⁾	1.77	1.63	1.61	1.65	1.54	-0.11	-0.23
국고채(3년) ⁴⁾	1.80	1.72	1.70	1.53	1.42	-0.12	-0.38
회사채(3년, AA-)	2.04	1.98	2.07	2.01	1.88	-0.13	-0.16
스프레드(국고채-CD)	0.03	0.09	0.09	-0.12	-0.12	-0.01	-0.15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24	0.26	0.37	0.47	0.46	-0.01	0.22

주 1) 금리는 분기 평균 값임.

2)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임.

3) 단기시장의 육성 및 금리자유화 기반 조성 등에 목적을 둔 저축성상품으로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예금증서임.

4)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인 국채의 한 종류임.

5)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식회사가 확정채무임을 표시한 증권을 발행하고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여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차입한 채무를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 2016년 2/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전분기대비 11bp 하락한 1.54%임.

○ 2/4분기 평균 ‘국고채(3년)-CD(91일)’ 간 스프레드는 -12bp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여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유지되고 있음.

■ 회사채 금리는 2016년 2/4분기 평균 1.88%로 전분기대비 13bp 하락함.

○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차이)는 전분기대비 1bp 줄어든 평균 46bp임.

〈환율〉

■ 2016년 2/4분기 동안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대비 38.3원 하락한 평균 1,163.2원을 기록함.

○ 4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완화 등의 요인으로 3월 평균 원/달러 환율 1,188.2원보다 하락한 1,147.5원을 기록함.

○ 5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0.59% 평가절하 고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의 영향으로 4월보다 상승한 1,171.5원이었음.

- 6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급등하였으나 브렉시트 충격이 완화되고, 분기 말 수출업체 네고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5월 평균 환율보다 소폭 하락한 1,170.5원을 나타냄.

〈표 30〉 환율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5			2016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원/달러	1,097.8	1,167.8	1,157.7	1,201.4	1,163.2	1,147.5	1,171.5	1,170.5
엔/달러	121.4	122.2	121.5	115.3	108.2	109.9	109.0	105.7
달러/유로	1,105	1,112	1,095	1,103	1,129	1,134	1,130	1,124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 2016년 2/4분기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 엔/달러 평균 환율은 하락하고, 달러/유로 환율은 상승함.

- 4월 달러화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 완화와 유로지역의 근원 CPI 개선,⁵²⁾ ECB의 추가 완화정책 의지 등의 요인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 엔/달러 환율은 109.9엔, 달러/유로 환율은 1.134달러를 기록함.
- 5월 달러화는 일본 경제성장률 개선,⁵³⁾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⁵⁴⁾ 등의 영향으로 엔화에는 약세, 유로화에는 강세를 보이며 엔/달러 환율과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각각 109.0엔, 1.130달러를 나타냄.
- 6월 달러화는 유로지역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가결 영향 등에 따라 엔화에 약세, 유로화에 강세를 보이며 평균 엔/달러, 달러/유로 환율은 각각 105.7엔, 1.124달러를 나타냄.

52) 유로존 2월 CPI는 -0.1%로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근원 CPI는 1.0%로 상승률이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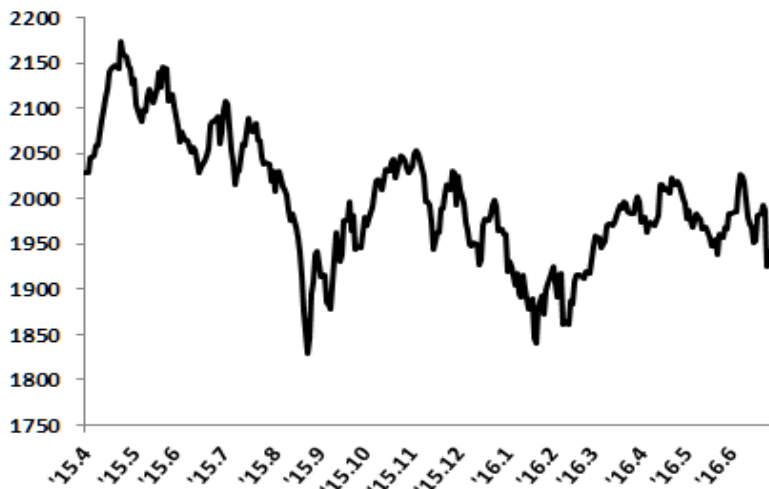
53) 일본 1/4분기 GDP 성장률은 가계소비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0.4% 성장함.

54)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의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6%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0.5%에서 0.2%로 하향 조정함.

〈주가〉

- 2016년 2/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평균 1,926.92보다 소폭 상승한 평균 1,979.91임.
- 4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중순까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하순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며, 3월 평균 주가지수 1,976.50보다 상승한 1,996.17을 기록함.
- 5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1,966.68로 외국인 순매도 전환,⁵⁵⁾ 기관 순매도 지속⁵⁶⁾ 등의 영향으로 4월에 비해 하락하였음.
- 6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1,977.03으로 기관매수세 유입, 국내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가 브렉시트 가결과 그에 따른 주요국 증시하락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됨.

〈그림 3〉 주가지수



주: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며, 당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의한 연속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한국은행.

55) 외국인 5주 연속 순매수(총 2.38조 원) 이후 6월 둘째 주 순매도(0.11조 원)를 기록함.

56) 기관은 3월부터 3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으며, 순매도 규모는 3월 2.9조 원, 4월 1.9조 원, 5월 1.5조 원임.

■ 2016년 2/4분기 종합주가지수 표준편차는 24.90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18.54 축소되어 안정적인 양상을 보임.

○ 브렉시트가 EU 경제침체 및 세계 경제 둔화로 이어지는 연쇄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6월 투표를 기점으로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하였으나 곧 안정세를 찾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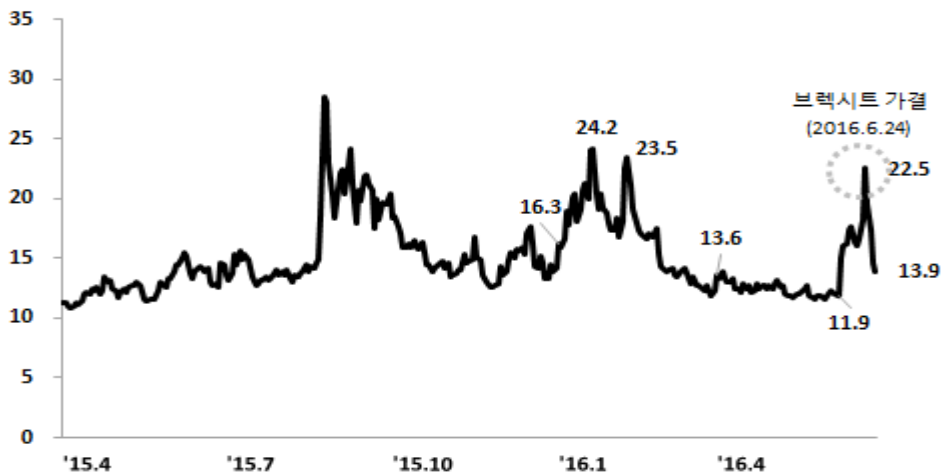
〈표 31〉 주가지수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4월	5월	6월
KOSPI	1965.92	2094.02	1986.99	1999.03	2011.66	1926.92	1979.91	1996.17	1966.68	1977.03
표준편차	44.39	39.06	68.19	33.50	68.48	43.44	24.90	20.60	13.41	28.94

주: KOSPI 지수는 분기(월,연간) 평균값임.
자료: 한국은행.

■ 2016년 2/4분기 변동성지수(VKOSPI)를 살펴보면, 5월까지 15를 하회하며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으나 브렉시트 투표일(2016. 6. 23)을 기점으로 일시적으로 급상승하여 향후 불안감을 드러냄.

〈그림 4〉 변동성지수(VKOSPI)



주: VKOSPI는 주식시장의 미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내는데, 지수 수치가 3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정으로, 그 이상은 불안정한 것으로 판정이 가능함.

자료: 한국거래소.

〈자금흐름〉

- 2016년 1/4분기 보험권 총순수신은 15조 6,684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22.6% 감소함.
 - 생명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25.8% 감소한 12조 205억 원임.
 - 수입보험료는 28조 9,933억 원이고, 지급보험금은 16조 9,728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나 수입보험료가 지급보험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손해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9.3% 감소한 3조 6,480억 원임.
 - 손해보험 역시 원수보험료 19조 7,804억 원, 원수손해액 16조 1,324억 원으로 모두 감소함.

- 2016년 1/4분기 금융권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자산운용과 종금사를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감소함.
 - 은행의 경우 전분기대비 일반계정과 신탁계정이 모두 감소하여 총순수신은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나 신탁계정이 증가하여 총순수신은 전분기대비 59.0% 감소한 16조 9,501억 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은 전분기대비 62.8% 감소한 11조 81억 원을 기록하였고, 신탁계정은 전분기대비 49.1% 감소한 5조 9,420억 원을 기록함.
 - 증권사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2조 4,606억 원 감소하여 -2조 384억 원을 기록함.
 - 자산운용업의 총순수신은 전분기대비 28조 509억 원 증가한 23조 5,149억 원임.

〈표 32〉 금융기관 수신

(단위: 억 원)

구분	2014			2015				2016	
	2/4	3/4	4/4	1/4	2/4	3/4	4/4	1/4	2/4
보험 ¹⁾	145,570	135,769	196,083	139,618	149,469	151,589	202,313	156,684	-
- 생보	110,963	104,478	165,865	104,840	114,114	121,369	162,090	120,205	-
수입보험료	264,960	255,554	327,771	273,358	278,525	271,624	348,629	289,933	-
지급보험금	153,998	151,076	161,906	168,518	164,412	150,255	186,539	169,728	-
- 손보	34,607	31,291	30,218	34,778	35,355	30,219	40,222	36,480	-
원수보험료	180,217	179,023	223,433	193,204	192,156	188,827	225,647	197,804	-
원수손해액	145,610	147,732	193,215	158,425	156,802	158,608	185,425	161,324	-
은행	250,005	76,442	391,862	138,338	370,258	407,283	412,913	169,501	271,653
- 일반 ²⁾	231,527	32,411	314,189	28,931	327,515	338,489	296,116	110,081	204,782
- 신탁	18,478	44,031	77,673	109,407	42,743	68,794	116,797	59,420	66,871
증권 ³⁾	19,088	53,478	-6,648	65,495	55,742	-3,238	4,222	-20,384	69,604
자산운용 ⁴⁾	16,946	196,161	160,044	278,994	163,004	80,769	-45,360	235,149	160,056
종금 ⁵⁾	2,733	826	3,420	-6,816	8,403	5,195	-1,453	4,634	10,854

주: 1) 보험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수입(원수)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이는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포함함.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은 보험금지급 사유 발생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의미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실세예금은 수표 등을 뺀 나머지로 은행이 대출과 유가증권투자 등에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예금액임.

3) 고객예탁금 + RP 매도 + CMA, 고객예탁금은 고객이 주식 및 채권을 매매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맡긴 자금과 주식 및 채권을 매도하고 인출해 가지 않아 증권회사에 남아있는 자금이며, 이는 장래에 주식에 재투자될 자금이라고 볼 수 있음.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임. CMA는 고객이 맡긴 예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임.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초단기 공사채형 상품임.

5) 발행어음 + CMA 예탁금 + 어음매출, 발행어음은 금융회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용통어음을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식의 1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임. 어음매출은 종합금융회사가 매입 보관하고 있는 할인어음을 고객의 요청에 의해 매출하는 것임.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2016년 1/4분기 수입(원수)보험료는 저금리 지속과 경제 불확실성 심화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4.5% 늘어난 48조 7,737억 원을 기록함.
 - 증가율은 전년도 5.9%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하회한 것임.
 - 이러한 증가세 둔화는 보험회사들이 저금리 지속에 대응하기 위해 저축성보험 판매 축소 전략을 실행하고, 소비자들이 경제 불확실성에 반응하여 변액보험 수요를 줄인 결과에 기인함.
 - 그러나 보장성보험 판매 호조로 증가세를 이어감.
- 생명보험영업 효율성지표인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3.1%p 하락한 58.5%, 손해보험영업 효율성지표인 손해보험 손해율은 원수 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0%p 감소한 81.6%를 기록하였음.
 - 전년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영업 효율성지표가 각각 61.6%, 83.6%과 비교해 볼 때 금년도 지표는 다소 개선됨.
- 2016년 1/4분기 말 설계사 수는 생명보험은 전속설계사와 교차모집설계사를 포함하여 전분기대비 11명 감소한 12만 7,206명이며, 손해보험은 전분기대비 3,058명 증가한 15만 9,654명임.
 - 생명보험회사 전속설계사(116,898명)는 감소하고, 교차모집설계사(10,308명)는 증가하는 추세임.
 - 손해보험회사 전속설계사(83,324명)와 교차모집설계사(76,330명)는 증가 추세임.
-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늘어나 전분기대비 2.5% 증가한 974조 2,054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그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음.
 - 전년도 보험산업 총자산은 3.6% 증가율을 시현한 바 있음.
-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한 2조 78억 원임 (재보험사 및 보증보험회사 제외).
 -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과 자산이익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02%p, 0.01%p 하락한 2.25%, 0.25%으로 나타나 다소 하락하였음.

가. 수입(원수)보험료

■ 2016년 1/4분기 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한 48조 7,737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성장세는 손해보험 증가세 둔화로 전년(5.9%)대비 하락하였음.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¹⁾는 해지환급금을 낮춘 사망보험 실적호조와 일부 회사의 최저보증이율을 높게 설정한 저축성 보험 판매 확대 전략에 따른 생사혼합보험²⁾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1% 늘어난 28조 9,933억 원을 나타냄(〈표 7〉 참조).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³⁾는 장기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의 급감(전년동기대비 24.6% 감소)으로 전년동기대비 2.4% 늘어난 19조 7,804억 원을 기록함(〈표 18〉 참조).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1),2)}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명보험	25.6	32.8	110.6	27.3	27.9	27.2	34.9	117.2	29.0
	(6.5)	(14.1)	(1.9)	(6.2)	(5.1)	(6.3)	(6.4)	(6.0)	(6.1)
손해보험	17.9	22.3	76.6	19.3	19.2	18.9	22.6	80.0	19.8
	(4.6)	(15.9)	(8.3)	(5.5)	(6.6)	(5.5)	(1.0)	(4.5)	(2.4)
합계	43.5	55.1	187.2	46.7	47.1	46.0	57.4	197.2	48.8
	(5.7)	(14.8)	(4.4)	(5.9)	(5.7)	(6.0)	(4.2)	(6.4)	(4.5)

주: 1)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1) 보험회사가 회계연도 동안 받아들인 보험료로 순보험료(=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으로 구성됨.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미리 정해진 시점(보험기간의 만료 시를 포함)에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생존에 따른 보험금을 일반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양로보험이 이에 해당함.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보다 만기생존 시 보험금이 크며, 만기생존 시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크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됨.
- 3) 원수보험료(direct premiums written)라 함은 재보험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받아들인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포함함.

나. 지급률(손해율) 및 사업비율

■ 2016년 1/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3.1%p 하락한 58.5%이고, 사업비율은 0.7%p 하락한 13.3%이며, 해지율은 0.1%p 하락한 2.3%임.

■ 2016년 1/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과 사업비율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0%p, 0.2%p 하락하여 각각 81.6%와 19.4%를 기록하였고, 합산비율은 2.2%p 개선된 101.0%임.

〈표 2〉 지급률 · 손해율 및 사업비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명 보험 ¹⁾	지급률	59.1	49.4	56.3	61.6	59.0	55.3	53.5	57.1	58.5
	사업비율	14.6	12.7	14.0	14.0	13.7	14.3	11.7	13.3	13.3
	해지율	7.0	8.9	8.9	2.4	4.6	6.6	8.6	8.6	2.3
손해 보험 ²⁾	손해율	83.9	85.6	83.4	83.6	82.3	83.7	82.8	83.1	81.6
	사업비율	18.8	19.4	19.0	19.6	18.9	19.1	20.6	19.5	19.4
	합산비율	102.7	105.1	102.4	103.2	101.1	102.8	103.4	102.7	101.0

주: 1)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여기서 순사업비는 지급경비(급여와 임금, 손해조사비, 모집비, 수급비 등)에서 수입경비(출재보험 수수료, 출재이익 수수료 등)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보유보험료는 수입보험료에서 출재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 · 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 2016년 1/4분기 말 설계사 수는 생명보험은 감소하고, 손해보험은 증가함.

- 생명보험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11명 감소한 12만 7,206명으로 전속설계사는 413명 감소한 11만 6,898명이며, 교차설계사는 402명 증가한 1만 308명임.
- 손해보험은 전분기대비 3,058명 증가한 15만 9,654명으로 전속설계사와 교차설계사가 각각 2,176명, 882명 증가하여 8만 3,324명, 7만 6,330명을 기록함.

〈표 3〉 보험산업 설계사 수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3/4	4/4	1/4	2/4	3/4	4/4	1/4
생명보험	132,900	130,366	129,335	129,796	129,442	127,217	127,206
- 전속	125,309	122,965	120,949	120,933	120,203	117,311	116,898
- 교차	7,591	7,401	8,386	8,863	9,239	9,906	10,308
손해보험	156,958	156,662	156,052	155,854	155,770	156,596	159,654
- 전속	82,504	82,299	81,073	80,400	80,269	81,148	83,324
- 교차	74,454	74,363	74,979	75,454	75,501	75,448	76,330

자료: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 2016년 1/4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2.5% 늘어난 974조 2,054억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은 전분기대비 2.4% 증가한 742조 247억 원, 손해보험은 전분기대비 2.8% 늘어난 232조 1,807억 원임.

〈표 4〉 보험산업 총자산^{1),2)}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명보험	640.4	662.1	662.1	685.7	691.0	707.1	724.9	724.9	742.0
	(2.5)	(3.4)	(10.8)	(3.6)	(0.8)	(2.3)	(2.5)	(9.5)	(2.4)
손해보험	191.4	200.3	200.3	207.9	212.3	219.7	225.9	225.9	232.2
	(3.4)	(4.7)	(17.4)	(3.8)	(2.1)	(3.5)	(2.9)	(12.8)	(2.8)
합계	831.8	862.4	862.4	893.6	903.3	926.8	950.8	950.8	974.2
	(2.7)	(3.7)	(12.3)	(3.6)	(1.1)	(2.6)	(2.6)	(10.3)	(2.5)

주: 1)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음.

2)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1/4분기 보험산업 전체 당기순이익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한 2조 78억 원임.

○ 생명보험산업은 1조 3,270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함.

○ 손해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11.5% 상승한 6,809억 원을 기록함.

〈표 5〉 보험산업 당기순이익^{1),2)}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명보험	1.09	0.16	3.24	1.28	1.52	0.89	-0.09	3.59	1.33
	(19.8)	(-53.8)	(14.9)	(36.2)	(43.9)	(-18.2)	(-160.7)	(11.0)	(3.6)
손해보험	0.45	0.18	1.66	0.61	0.63	0.48	0.19	1.91	0.68
	(5.9)	(-31.5)	(6.4)	(30.5)	(12.4)	(7.3)	(2.2)	(15.0)	(11.5)
합계	1.54	0.34	4.90	1.89	2.14	1.37	0.09	5.50	2.01
	(15.3)	(-43.9)	(11.8)	(34.3)	(33.0)	(-10.7)	(-72.3)	(12.3)	(6.1)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음.

2)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5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17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1/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ROE)의 경우 손해보험(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 회사 제외)은 상승한 반면, 생명보험이 하락하여 전년동기대비 0.02%p 하락한 2.25%임.

○ 생명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0.05%p 하락한 2.03%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0.07%p 상승한 2.88%를 나타냄.

■ 2016년 1/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산이익률(ROA)은 전년동기대비 0.01%p 하락한 0.25%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0.01%p 하락한 0.22%를, 손해보험산업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인 0.35%를 나타냄.

〈표 6〉 보험산업 자본 및 자산이익률^{1),2)}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자본 이익률 (ROE)	생명보험	1.97	0.27	5.92	2.08	2.43	1.42	- 0.15	5.83	2.03
	손해보험	2.25	0.90	8.69	2.81	2.81	2.14	0.82	8.72	2.88
	합계	2.05	0.43	6.64	2.27	2.53	1.61	0.11	6.59	2.25
자산 이익률 (ROA)	생명보험	0.21	0.03	0.62	0.23	0.27	0.15	- 0.02	0.62	0.22
	손해보험	0.28	0.11	1.03	0.35	0.35	0.26	0.10	1.87	0.35
	합계	0.22	0.05	0.72	0.26	0.29	0.18	0.01	0.81	0.25

주: 1)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5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17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2)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 2016년 1/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금리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망보험과 일부보험회사의 생사혼합보험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1% 늘어난 28조 9,933억 원을 시현하였는데 이는 2015년 1/4분기와 유사한 증가율 수준임.
 - 금리에 민감한 생존보험(-9.3%)과 투자환경에 영향을 받는 변액보험(-5.7%)은 전년동기대비 보험료가 축소됨.
 -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확대 전략에 따라 생사혼합보험은 27.9% 성장함.
 -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에 따라 사망보험이 성장(8.4%)함.
- 2016년 1/4분기 보험금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3.1%p 감소한 58.5%를 기록하였고, 수입보험료 기준 사업비율은 전년대비 0.7%p 줄어든 58.5%를 기록함.
 - 이는 부분적으로 가격자율화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규모는 성장한데 반해, 자본이익률과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05%p, 0.01%p 하락한 2.03%, 0.22%를 기록하여 규모대비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당기순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이익 소폭 개선과 영업외이익 증가 및 지급률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한 1조 3,270억 원 흑자를 기록함.
 -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2.4% 증가한 742조 247억 원을 나타냄.
 - 총자본은 전분기대비 4.7% 증가한 67.0조 원을 기록함.

가. 수입보험료

〈종목별 수입보험료〉

- 2016년 1/4분기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한 28조 9,933억 원을 기록함(〈표 7〉 참조).
- 2016년 1/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2% 증가한 26조 8,166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⁴⁾이 높은 증가율을 시현함.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미리 정해진 시점

- 사망보험은 해지환급금을 낮춘 저해지환급금형 등 새로운 형태의 사망보험 및 보장성보험 판매가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함.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의 생존 시 지급보험금 확대 전략 및 일시납 보험료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7.9%의 고성장을 나타냄.
 -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저금리 환경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산운용 전략과 더불어 다른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고 있음.
- 생존보험⁵⁾은 일반연금과 개인연금⁶⁾이 모두 부진한 실적으로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9.3% 감소함.
 - 공시이율 하락과 저금리로 인한 보험회사의 판매부담 확대 등으로 생존보험 신규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보임.
- 변액보험의 경우 주가지수 하락의 영향으로 수요가 위축되어 전년동기대비 5.7% 감소함.

■ 2016년 1/4분기 단체보험⁷⁾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8.4% 증가한 2조 1,767억 원임.

- 퇴직연금은 계속보험료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0.7% 늘어남.
- 일반단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0.7% 증가에 그쳤지만, 지난 5분기 동안 연속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남.

(보험기간의 만료 시를 포함)에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생존에 따른 보험금을 일반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양로보험이 이에 해당함.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보다 만기생존 시 보험금이 크며, 만기생존 시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크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됨. 만기환급금이 있는 정기보험은 보험기간 만료 시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생사혼합보험과 유사함.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으로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이 있음.

6)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임.

7)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음.

〈표 7〉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료	58,776	62,910	240,340	62,882	61,157	61,327	61,482	246,848	57,044
	증가율	8.9	13.4	-7.6	8.4	0.8	4.3	-2.3	2.7	-9.3
	초회보험료 ¹⁾	15,262	17,443	66,636	17,646	15,243	15,071	14,238	62,198	11,565
	계속보험료	43,514	45,467	173,704	45,237	45,914	46,256	47,244	184,650	45,479
사망	보험료	83,131	85,238	331,788	89,041	88,434	90,538	92,349	360,361	96,491
	증가율	4.6	6.2	4.6	9.5	7.7	8.9	8.3	8.6	8.4
	초회보험료	2,604	3,717	10,720	6,432	4,015	5,346	4,479	20,272	7,470
	계속보험료	80,527	81,521	321,069	82,609	84,418	85,191	87,871	340,089	89,022
생사 혼합	보험료	49,171	49,038	200,544	51,932	53,500	51,152	57,187	213,771	66,400
	증가율	6.4	6.8	-3.5	2.4	3.6	4.0	16.6	6.6	27.9
	초회보험료	9,945	8,935	44,185	11,628	10,807	8,719	12,015	43,169	22,310
	계속보험료	39,226	40,103	156,360	40,304	42,693	42,433	45,172	170,602	44,090
변액 보험	보험료	51,622	51,957	206,709	51,122	53,539	52,629	49,140	206,431	48,231
	증가율	0.5	0.9	-1.9	-1.5	4.5	2.0	-5.4	-0.1	-5.7
	초회보험료	2,819	2,504	10,451	2,343	3,942	4,168	2,377	12,831	2,152
	계속보험료	48,803	49,453	196,259	48,779	49,597	48,461	46,763	193,600	46,079
개년	보험료	242,701	249,143	979,382	254,977	256,631	255,646	260,158	1,027,412	268,166
	증가율	5.0	6.8	-1.7	5.4	4.5	5.3	4.4	4.9	5.2
	초회보험료	30,631	32,599	131,991	38,048	34,008	33,304	33,109	138,470	43,497
	계속보험료	212,070	216,543	847,391	216,929	222,623	222,342	227,049	888,942	224,669
일반 단체	보험료	1,999	1,877	8,150	2,105	1,906	1,879	1,845	7,735	2,120
	증가율	2.5	-2.3	-2.5	-6.6	-5.7	-6.0	-1.7	-5.1	0.7
	초회보험료	284	214	1,266	479	258	289	255	1,281	552
	계속보험료	1,715	1,663	6,884	1,625	1,648	1,590	1,590	6,454	1,568
퇴직 연금	보험료	10,854	76,751	118,221	16,276	19,988	14,100	86,626	136,990	19,647
	증가율	54.9	46.9	45.4	22.0	15.7	29.9	12.9	15.9	20.7
	초회보험료	4,548	33,745	51,381	6,337	3,924	4,317	28,858	43,436	4,400
	계속보험료	6,306	43,006	66,841	9,939	16,064	9,783	57,768	93,553	15,247
단체 ²⁾	보험료	12,853	78,629	126,371	18,381	21,895	15,979	88,471	144,725	21,767
	증가율	43.5	45.2	45.8	17.9	13.5	24.3	12.5	15.9	18.4
	초회보험료	4,833	33,959	52,646	6,816	4,183	4,606	29,112	44,717	4,952
	계속보험료	8,021	44,669	73,725	11,564	17,712	11,373	59,359	100,008	16,815
합계	보험료	255,554	327,771	1,105,753	273,358	278,525	271,624	348,629	1,172,137	289,933
	증가율	6.5	14.1	1.9	6.2	5.1	6.3	6.4	6.0	6.1
	초회보험료	35,463	66,558	184,637	44,865	38,191	37,910	62,221	183,187	48,449
	계속보험료	220,091	261,213	921,116	228,493	240,335	233,715	286,408	988,950	241,484

주: 1) 1회 납입 보험료를 의미함.

2)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퇴직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퇴직연금 의무 가입의 실시로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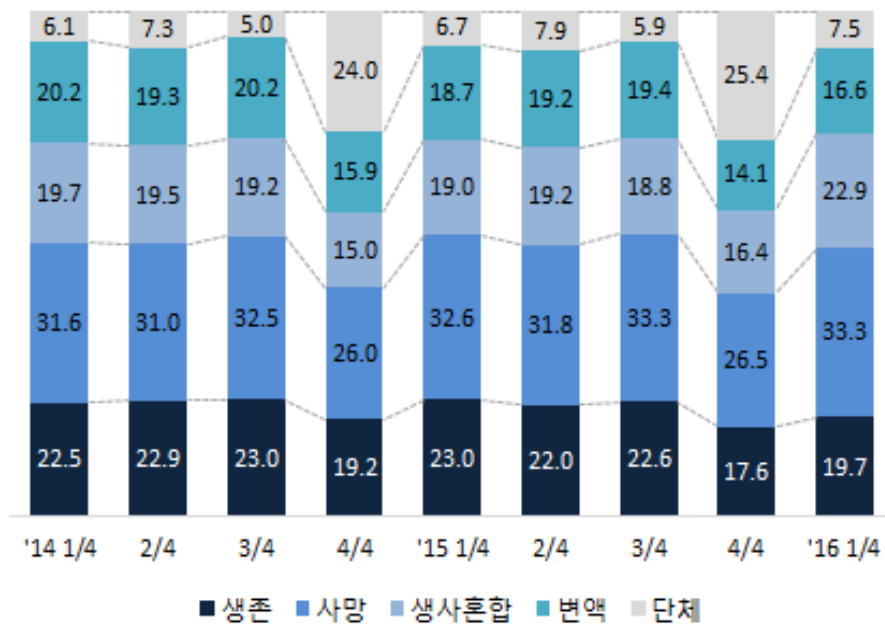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2016년 1/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의 경우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단체보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확대되었으나 생존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은 축소됨.
- 사망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7%p 늘어난 33.3%, 생사혼합보험 비중은 3.9%p 증가한 22.9%를 나타냄.
- 단체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8%p 증가한 7.5%를 기록함.
- 반면, 생존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보다 감소하여 각각 3.3%p, 2.1%p 줄어든 19.7%, 16.6%를 차지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단위: %)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6년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의 경우 외국사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나 상위 3사와 국내 중·소형사는 전년동기대비 낮아짐.

○ 국내 중소형사에 속했던 동양생명이 대주주 변경⁸⁾으로 외국사에 편입됨에 따라 외국사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5.2%p 상승한 18.3%를 나타냄.

○ 상위 3사와 국내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외국사 시장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각각 0.6%p, 4.5%p 하락한 46.5%, 35.2%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 전체 허핀달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0047%p 하락한 0.1027을 기록함.

○ 종목별로 보면, 생존보험과 일반단체보험의 허핀달지수는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다른 종목들의 허핀달지수는 모두 전년동기대비 상승함.

〈표 8〉 생명보험시장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점 유 율 ²⁾	상위 3사		48.0	51.7	49.0	47.1	46.4	45.9	48.0	46.8	46.5
	국내중·소형사 ³⁾		37.8	37.2	37.9	39.7	39.9	40.6	38.9	37.2	35.2
	외국사 ⁴⁾		14.2	11.1	13.1	13.1	13.7	13.5	13.1	15.9	18.3
허 핀 달 지 수 ⁵⁾	개 인	생존	0.1334	0.1380	0.1360	0.1388	0.1276	0.1192	0.1171	0.1251	0.1179
		사망	0.1135	0.1130	0.1137	0.1098	0.1125	0.1128	0.1125	0.1118	0.1104
		생사혼합	0.1019	0.0975	0.1040	0.1035	0.0966	0.0940	0.1013	0.0964	0.1242
		변액	0.1382	0.1711	0.1439	0.1425	0.1359	0.1337	0.1467	0.1390	0.1474
	단 체	일반단체	0.3665	0.3904	0.3532	0.3035	0.3915	0.3828	0.3856	0.3621	0.2704
		퇴직연금	0.2517	0.2950	0.2568	0.2099	0.2832	0.2485	0.1651	0.1841	0.2844
	전체		0.1082	0.1315	0.1138	0.1074	0.1061	0.1020	0.1058	0.1053	0.1027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각 회사점유율 = 각 회사 수입보험료 / 전체 수입보험료, 상위 3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사 점유율은 회사 분류에 따라 각 회사 점유율을 합친 값임.

3) 국내 중·소형사(13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이며, 동양생명은 2015년 10월 중국 안방보험에 인수·합병됨에 따라 2015년 4/4분기부터 외국사에 포함됨.

4)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으로 2016년 3월 말 기준 알리안츠생명 등 9개사임.

5)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8) 2015년 10월 동양생명이 안방보험에 인수·합병됨에 따라 2015년 4/4분기부터 외국사에 포함됨.

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 2016년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3.1%p 하락한 58.5%를 시현함.
 - 생존보험은 지급보험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1.3%p 상승한 65.0%를 나타냄.
 - 생사혼합보험은 지급보험금이 감소하고 수입보험료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5.1% 하락한 47.9%를 나타냄.
 - 사망보험과 변액보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각각 1.7%, 3.3% 하락한 48.8%, 61.8%를 기록함.
- 2016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 전체 사업비율과 해지율은 13.3%, 2.3%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7%p, 0.1%p 하락함.

〈표 9〉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개인	56.2	54.3	55.6	56.8	56.0	52.9	54.2	55.0	54.4
생존	52.8	53.3	52.2	53.7	56.5	58.0	62.1	57.5	65.0
사망	51.3	51.1	52.2	50.5	47.9	46.8	48.1	48.3	48.8
생사혼합	59.3	58.1	60.1	63.0	55.5	54.2	48.2	55.1	47.9
변액	65.1	57.0	60.5	65.1	69.5	55.9	62.7	63.3	61.8
단체	113.5	33.9	62.1	129.5	94.2	94.7	51.4	72.6	110.0
일반단체	136.8	114.3	121.5	115.4	117.7	108.9	115.7	114.5	109.3
퇴직연금	109.2	31.9	58.0	131.3	92.0	92.8	50.1	70.2	110.0
전체보험금지급률 ¹⁾	59.1	49.4	56.3	61.6	59.0	55.3	53.5	57.1	58.5
사업비율 ²⁾	14.6	12.7	14.0	14.0	13.7	14.3	11.7	13.3	13.3
해지율 ³⁾	7.0	8.9	8.9	2.4	4.6	6.6	8.6	8.6	2.3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3)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판매채널 포트폴리오⁹⁾〉

■ 2016년 1/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의 경우, 특히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음.

-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9.1%p 확대된 67.4%를 기록했으며, 이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일부 회사의 생사혼합보험 등 저축성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채널의 비중은 축소되었는데,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채널 비중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5.1%p, 3.3%p, 0.6%p 축소된 9.7%, 16.8%, 5.8%를 차지함.

〈표 10〉 생명보험 판매채널 포트폴리오(초회보험료 비중)

(단위: %, 억 원)

구분	2014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임직원	13.4	50.8	28.2	14.8	10.6	11.7	39.0	21.5	9.7
설계사	20.9	12.7	16.4	20.1	20.2	22.2	18.4	20.0	16.8
대리점	7.4	4.5	5.7	6.4	6.5	6.9	5.3	6.2	5.8
중개사	0.1	0.0	0.0	0.1	0.0	0.1	0.0	0.1	0.1
방카슈랑스	58.0	31.8	49.6	58.3	62.2	58.8	37.0	52.0	67.4
기타	0.2	0.2	0.2	0.3	0.5	0.4	0.2	0.3	0.2
합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5,463	66,558	184,637	44,865	38,191	37,910	62,221	183,187	48,449

주: 1)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9) 판매채널은 크게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로 구분되며, 최근 온라인 채널 등 새로운 채널도 등장하였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 9〉와 같이 판매채널을 구분하여, 초회보험료(1회 납입보험료) 비중을 제시함.

〈모집조직〉

■ 2016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 모집조직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 수와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설계사 수는 소폭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28명 증가한 2만 7,340명으로 큰 변화가 없음.
-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11명 줄어든 12만 7,206명을 기록함.
 - 전속설계사 수는 413명 감소한 11만 6,898명으로 나타남.
 - 다만, 교차설계사 수는 402명 증가한 1만 308명을 나타냄.
- 전체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97개 증가한 6,107개로, 최근 계속된 감소세를 벗어남.

〈표 11〉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2014		2015				2016
	3/4	4/4	1/4	2/4	3/4	4/4	1/4
임직원(명)	27,288	28,111	27,521	27,538	27,532	27,312	27,340
설계사(명)	132,900	130,366	129,335	129,796	129,442	127,217	127,206
- 전속	125,309	122,965	120,949	120,933	120,203	117,311	116,898
- 교차	7,591	7,401	8,386	8,863	9,239	9,906	10,308
대리점(개)	7,113	6,867	6,399	6,266	6,159	6,010	6,107
- 개인	3,768	3,616	3,171	3,081	3,036	3,054	3,139
- 법인	3,345	3,251	3,228	3,185	3,096	2,956	2,968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총수익 · 총비용〉

- 2016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이익이 소폭 개선되고 영업외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한 1조 3,270억 원 흑자를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은 대부분 종목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9.4% 늘어났음.
 - 이에 따른 책임준비금전입액도 증가하여 이를 감안한 전체 보험영업 적자규모¹⁰⁾는 전년동기 대비 3.4% 확대된 5조 2,010억 원임.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한 5조 7,598억 원으로 직전 3분기 동안 계속된 마이너스 증가율을 벗어났음.
 - 투자영업이익 증가 폭은 0.7%에 그쳤으나 이는 전년 동기간을 고려해볼 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년 동기간인 2014년 1/4분기 투자영업이익이 배당수익과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증가에 힘입어 9.6% 확대되었음.
 - 영업외이익은 특별계정수수료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5.0% 증가한 1조 622억 원을 나타냈으며, 당기순이익 확대에 크게 기여함.

10) 보험영업이익에서 책임준비금전입액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표 12〉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총수익	보험영업	19,606	20,239	79,319	20,910	20,803	20,799	21,693	84,205	22,554
	투자영업	5,410	7,172	25,761	6,974	6,766	8,496	5,593	27,830	7,994
	영업외	1,159	1,098	4,315	1,109	1,119	1,122	1,279	4,630	1,236
	소계	26,175	28,509	109,395	28,993	28,689	30,417	28,565	116,665	31,784
		(3.8)	(9.9)	(0.9)	(8.6)	(2.4)	(16.2)	(0.2)	(6.6)	(9.6)
총비용	보험영업	14,739	15,302	60,281	15,659	15,136	15,093	15,881	61,769	16,283
	투자영업	191	1,645	4,197	1,253	1,246	3,496	420	6,415	2,234
	영업외	204	269	839	186	155	189	229	758	174
	소계	15,134	17,215	65,317	17,098	16,537	18,778	16,529	68,942	18,691
		(2.2)	(5.2)	(4.8)	(3.8)	(0.3)	(24.1)	(-4.0)	(5.6)	(9.3)
수지차	보험영업	4,868	4,937	19,038	5,250	5,667	5,706	5,812	22,436	6,271
		(6.7)	(29.9)	(-16.2)	(25.9)	(12.0)	(17.2)	(17.7)	(17.8)	(19.4)
	투자영업	5,219	5,527	21,564	5,721	5,520	5,000	5,173	21,415	5,760
		(3.9)	(10.4)	(7.2)	(9.6)	(-1.4)	(-4.2)	(-6.4)	(-0.7)	(0.7)
	영업외	954	829	3,476	924	964	933	1,051	3,872	1,062
		(16.0)	(6.5)	(5.9)	(11.7)	(11.3)	(-2.2)	(26.8)	(11.4)	(15.0)
책임준비금전입액 ³⁾	소계	11,041	11,293	44,079	11,896	12,151	11,640	12,036	47,722	13,093
		(6.1)	(17.8)	(-4.4)	(16.4)	(5.4)	(5.4)	(6.6)	(8.3)	(10.1)
보험영업이익 (책임준비금전입액차감)		9,697	11,047	40,034	10,282	10,381	10,571	12,126	43,360	11,472
		(5.3)	(21.2)	(-5.8)	(13.0)	(1.8)	(9.0)	(9.8)	(8.3)	(11.6)
법인세	보험영업이익	-4,829	-6,110	-20,996	-5,032	-4,714	-4,865	-6,314	-20,924	-5,201
	(책임준비금전입액차감)	(4.0)	(15.0)	(-6.2)	(2.2)	(-8.1)	(0.7)	(3.3)	(-0.3)	(3.4)
당기순이익 ⁴⁾	법인세	258	90	807	332	252	181	5	770	294
		1,085	156	3,237	1,281	1,518	887	-95	3,592	1,327
		(19.8)	(-53.8)	(14.8)	(36.2)	(43.9)	(-18.2)	(-160.7)	(11.0)	(3.6)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3) 책임준비금전입액은 책임준비금(부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반대의 경우 책임준비금환입액)을 의미하며, 손익계산서의 보험영업비용(반대의 경우 수익) 항목임.

4) 당기순이익 = 총수익 - 총비용 - 책임준비금전입액 - 법인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자산〉

■ 2016년 1/4분기 말 총자산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자산이 모두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2.4% 늘어난 742조 247억 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 자산은 수입보험료 증가에 따른 책임준비금이 늘어나 전분기대비 2.0% 증가함.

○ 특별계정 자산은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에 따른 특별계정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4.1% 늘어남.

〈표 13〉 생명보험산업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총자산	금액	662.1	685.7	691.0	707.1	724.9	724.9	742.0
	증가율	10.8	3.6	0.8	2.3	2.5	9.5	2.4
일반계정 자산	금액	550.4	565.7	570.1	586.4	601.1	601.1	613.2
	증가율	11.1	2.8	0.8	2.9	2.5	9.2	2.0
특별계정 자산	금액	111.7	120.0	121.0	120.7	123.8	123.8	128.8
	증가율	9.5	7.4	0.8	-0.2	2.6	10.8	4.1

주: 1) 분기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연간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일부 수치가 반올림으로 인해 동일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6년 1/4분기 말 총부채는 책임준비금 증가로 전분기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총자본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로 4.7% 증가함.

○ 특히, 금리하락으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에 포함되는 채권평가이익이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3월 말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55%로 2015년 12월 말 대비 0.27%p 하락하였음.

〈표 14〉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총자산	금액	662.1	685.7	691.0	707.1	724.9	724.9	742.0
	증가율	10.8	3.6	0.8	2.3	2.5	9.5	2.4
총부채	금액	602.9	621.8	629.8	643.2	660.9	660.9	675.0
	증가율	10.2	3.1	1.3	2.1	2.8	9.6	2.1
책임준비금	금액	461.9	472.3	482.8	493.5	505.7	505.7	517.4
	증가율	9.6	2.3	2.2	2.2	2.5	9.5	2.3
계약자 지분조정	금액	9.1	10.6	8.9	9.3	9.5	9.5	10.4
	증가율	29.5	17.4	-16.0	3.9	1.8	4.4	10.3
기타부채	금액	15.2	18.1	15.9	18.7	17.8	17.8	17.8
	증가율	17.4	19.2	-12.1	17.4	-4.9	17.1	0.0
특별계정부채	금액	116.8	120.8	122.2	121.7	127.9	127.9	129.5
	증가율	10.3	3.4	1.2	-0.4	5.1	9.5	1.2
총자본	금액	59.1	63.9	61.2	63.9	64.0	64.0	67.0
	증가율	17.9	8.0	-4.2	4.5	0.1	8.2	4.7
자본금	금액	9.8	9.8	9.8	10.1	10.4	10.4	10.4
	증가율 ²⁾	1.3	0.0	0.5	3.1	2.6	6.2	0.0
자본잉여금	금액	5.8	5.8	5.8	6.0	6.0	6.0	6.0
	증가율	2.3	0.0	0.0	2.1	0.5	2.6	0.0
이익잉여금	금액	25.4	25.7	27.2	28.0	27.9	27.9	28.2
	증가율	11.6	1.3	5.8	3.0	-0.6	9.7	1.2
자본조정	금액	-1.5	-1.6	-1.6	-1.6	-2.6	-2.6	-3.1
	증가율	33.0	4.6	0.0	0.4	64.9	73.1	21.1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금액	19.6	24.1	19.8	21.3	22.3	22.3	25.5
	증가율	48.7	22.8	-17.5	7.6	4.6	14.0	14.3

주: 1) 분기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연간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일부 수치가 반올림으로 인해 동일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 2016년 1/4분기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3.82%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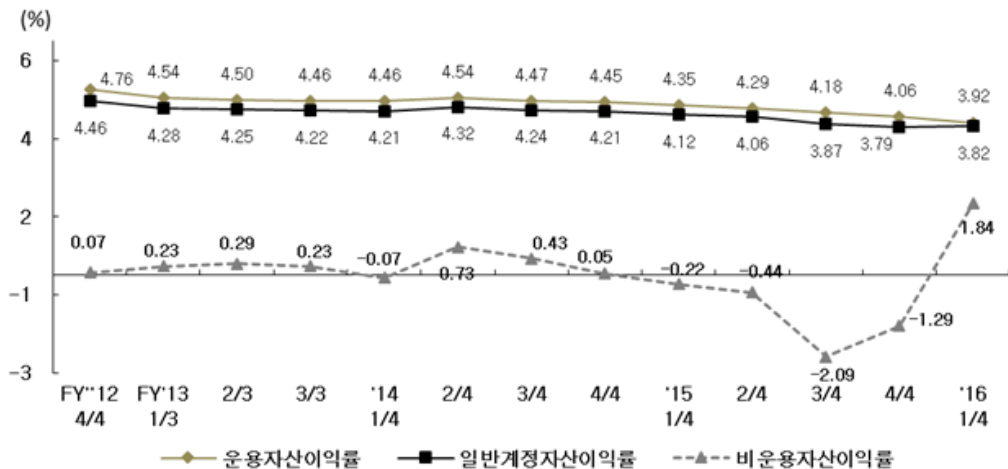
○ 운용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3%p 하락한 3.92%를 기록하였는데, 저금리 환경¹¹⁾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의 운용자산 이익률이 하락세를 보임.

○ 비운용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으나 비중이 매우 작아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2016년 1/4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의 경우 유가증권이 73.2%, 대출채권이 17.5%, 부동산이 2.4%, 현금과 예금이 2.2%, 비운용자산이 4.7%를 차지함.¹²⁾

○ 전년동기인 2015년 1/4분기와 비교해 볼 때, 유가증권 비중은 0.6%p 확대됐지만, 현금과 예금과 부동산 비중은 각각 0.1%p, 0.2%p 축소됨.

〈그림 2〉 자산운용 이익률^{1),2),3)}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1) 2015년 6월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 2016년 1/4분기까지 기준금리는 1.50%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인 2015년 1/4분기 기준금리에 비해 0.25%p 낮은 수준임.

12) 일반계정 자산은 크게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 비중은 전체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15〉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및 이익률

(단위: %, 억 원)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1/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4.12	100.0	4.06	100.0	3.87	100.0	3.79	100.0	3.82
운용자산 계	95.0	4.35	95.2	4.29	95.3	4.18	95.4	4.06	95.3	3.92
현금과 예금	2.3	2.94	2.2	3.17	2.5	4.11	2.6	3.39	2.2	1.93
유가증권	72.6	4.15	72.9	4.06	72.8	3.89	72.7	3.73	73.2	3.68
○ 당기손익인식증권 ²⁾	3.1	4.15	3.1	3.15	2.8	1.82	2.2	2.03	2.1	2.21
- 주식	0.1	24.56	0.1	17.1	0.1	4.52	0.1	0.47	0.1	1.47
- 채권 등	0.7	6.63	0.7	5.01	0.7	1.36	0.6	2.47	0.7	3.44
- 수익증권	2.3	2.50	2.4	2.01	2.0	1.87	1.5	1.93	1.4	1.69
○ 매도가능증권	52.0	4.16	51.1	4.09	51.2	3.94	52.4	3.67	52.5	3.68
- 주식	4.0	5.04	3.7	3.14	3.2	2.54	3.3	1.89	3.4	6.72
- 채권 등	44.4	4.06	43.6	4.06	44.5	3.98	45.5	3.78	45.5	3.48
- 수익증권	3.5	4.42	3.8	5.45	3.5	4.85	3.6	4.15	3.6	3.43
○ 만기보유증권	15.9	4.27	17.1	4.28	17.3	4.29	16.6	4.36	16.9	3.75
- 채권 등	15.9	4.27	17.1	4.28	17.3	4.29	16.6	4.36	16.9	3.75
- 수익증권	0.0	0.00	0.0	0.0	0.0	0.00	0.0	0.0	0.0	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6	2.83	1.6	2.60	1.5	2.22	1.5	2.19	1.7	4.66
대출채권	17.5	5.55	17.4	5.56	17.4	5.50	17.7	5.42	17.5	5.07
부동산	2.6	3.36	2.6	3.35	2.6	3.43	2.5	4.70	2.4	4.84
비운용자산 계	5.0	-0.22	4.8	-0.44	4.7	-2.09	4.6	-1.29	4.7	1.84
총자산	100.0	4.93	100.0	4.31	100.0	3.61	100.0	3.60	100.0	3.65
일반계정	82.5	4.12	82.5	4.06	82.9	3.87	82.9	3.79	82.6	3.82
특별계정	17.5	8.83	17.5	5.52	17.1	2.33	17.1	2.64	17.4	2.81
총자산 규모	6,856,606		6,910,114		7,070,753		7,249,013		7,420,247	

주: 1) 이익률은 분기별 누계실적임.

2) FY2011 1/4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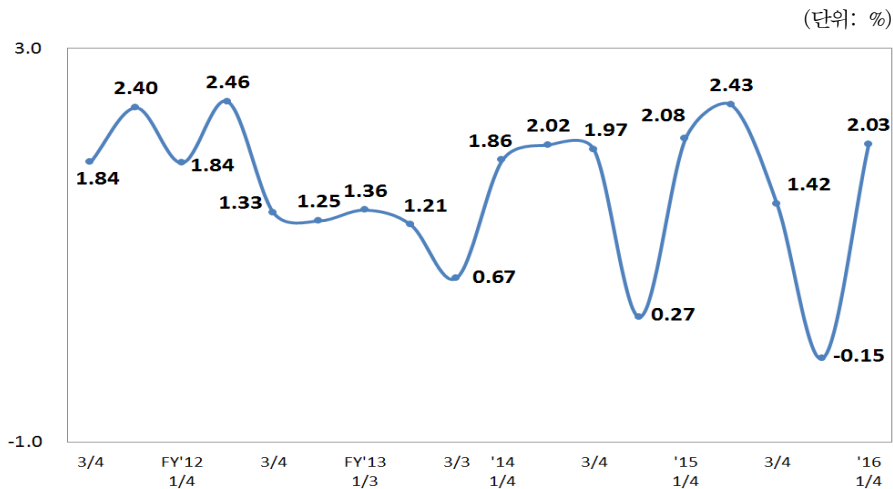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본이익률(ROE)¹³⁾〉

■ 2016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¹⁴⁾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05%p 하락한 2.03%로, 수익성이 소폭 악화됨.

-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데다 금리하락으로 채권평가이익도 확대되어 자본이 증가함.
-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경우 각각 전년동기대비 0.23%p, 0.50%p 하락한 1.87%, 1.58%를 기록함.
- 외국사는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39%p 상승한 3.37%를 나타냄.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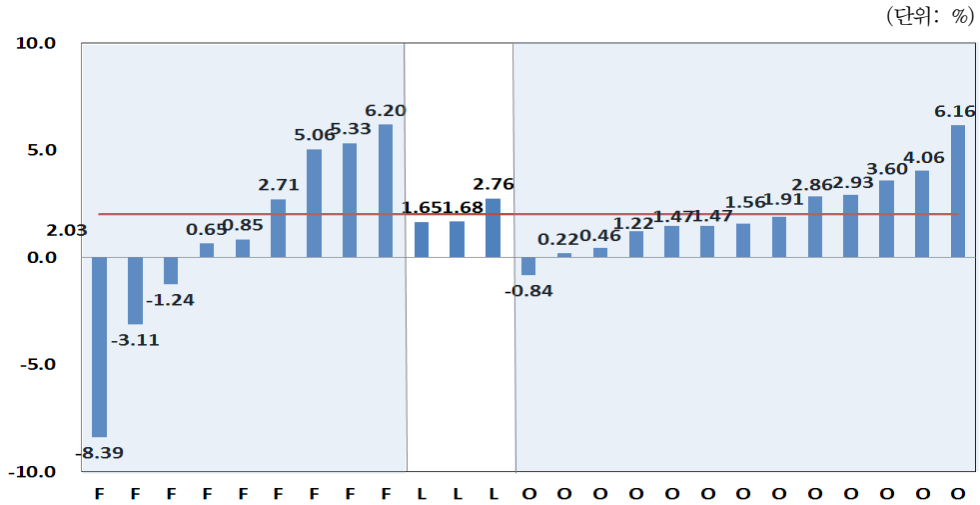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3)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25개 생명보험회사임.

14) 2015년 회계연도부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로 분류되었던 회사 분류를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로 분류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거 통계지도 동일하게 수정함.

〈그림 4〉 회사별 자본이익률^{1),2)}



주: 1) F, L, O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생명보험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16〉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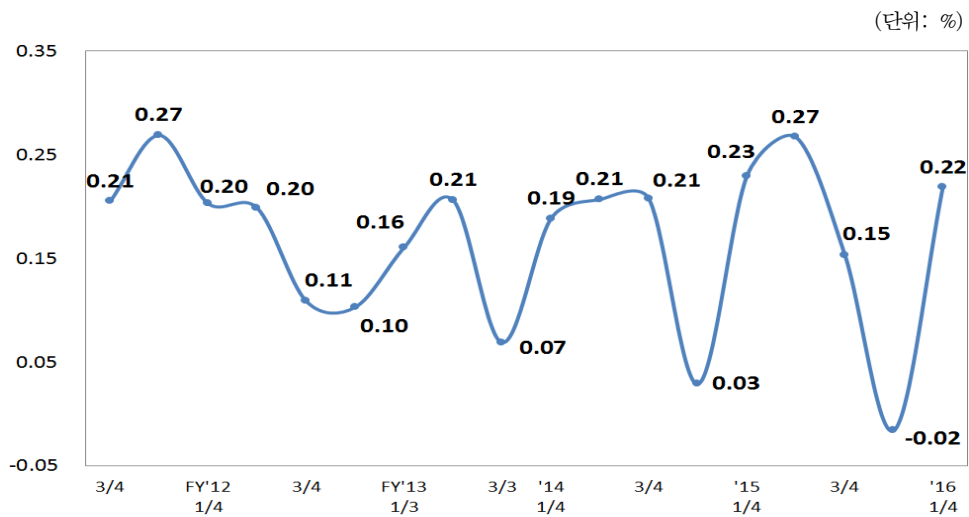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대형사	1.75	0.27	5.94	2.10	2.17	1.38	-0.09	5.73	1.87
중·소형사	1.90	0.63	5.36	2.08	2.28	1.22	0.72	5.81	1.58
외국사	3.18	-0.44	6.99	1.98	4.02	2.01	-1.99	6.31	3.37
전체	1.97	0.27	5.92	2.08	2.43	1.42	-0.15	5.83	2.03

주: 1)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이익률(ROA)¹⁵⁾〉

- 2016년 1/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01%p 하락한 0.22%임.
-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0.03%p, 0.04%p 하락한 0.22%, 0.13%임.
- 외국사는 당기순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15%p 상승한 0.43%를 기록함.

〈그림 5〉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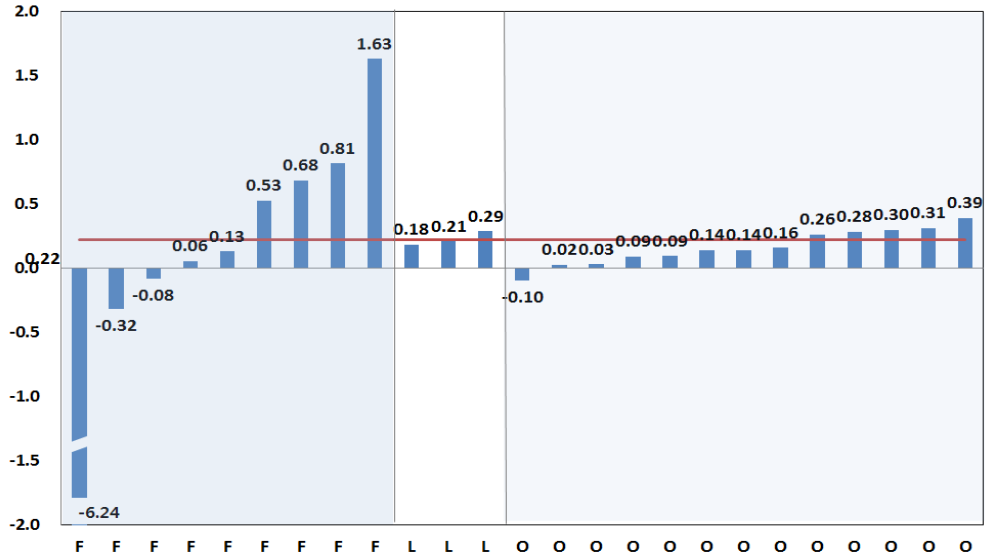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5)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산(특별계정자산 제외)대비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25개 생명보험회사임.

〈그림 6〉 회사별 자산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산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생명보험 산업수준의 자산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17〉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대형사	0.20	0.03	0.67	0.25	0.26	0.16	-0.01	0.66	0.22
중·소형사	0.15	0.05	0.43	0.17	0.19	0.10	0.06	0.48	0.13
외국사	0.44	-0.06	0.95	0.28	0.57	0.28	-0.26	0.80	0.43
전체	0.21	0.03	0.62	0.23	0.27	0.15	-0.02	0.62	0.22

주: 1) 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산, 기중자산(특별계정자산 제외) = ((전회계연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손해보험

- 2016년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19조 7,804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증가세는 전년대비(2015년 1/4분기 증가율 5.5%) 큰 폭으로 둔화됨.
 - 이러한 증가세 둔화는 저금리 기조 심화에 따른 자산운용 부담 증가로 손해보험 산업이 연금보험 및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줄인 것에 기인함.
 - 장기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4.6% 감소하고, 연금부문은 6.5% 감소함(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56.1% 감소함).
 - 한편, 보장성보험의 판매실적은 호조를 보여 성장을 견인함.
 - 장기상해보험 및 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1.1%, 16.1% 증가함.
 - 초회원수보험료는 손해가 10.7% 줄어들고, 유병자보험 확대 등에 힘입어 질병이 20.7% 상승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11.6%, 일반손해보험은 2.2% 증가함.
- 손해율과 사업비율은 각각 81.6%, 19.4%를 나타냄에 따라 합산비율은 전년동기대비 2.2%p 개선된 101.0%를 시현하여 보험영업 효율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부분적으로 가격자유화의 영향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07%p 상승한 2.88%를 기록하였으나,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0.35%를 나타냄에 따라 규모대비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6년 1/4분기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한 9,071억 원 흑자를 기록함.
 - 총자본은 전분기대비 4.2% 증가한 30조 5,388억 원, 총자산은 2.8% 증가한 232조 1,807억 원을 나타냄.

가. 원수보험료¹⁶⁾

〈종목별 원수보험료〉

■ 2016년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19조 7,804억 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2%, 2.2% 증가한 11조 7,868억 원과 2조 1,53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자동차보험은 크게 성장하여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한 3조 9,382억 원을 시현함.

○ 연금부문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6.55% 감소한 1조 9,023억 원을 기록함.

〈표 1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장기	상해	보험료	30,946	118,365	31,889	32,644	33,435	34,587	132,555	35,418
		증가율	12.1	10.8	12.7	12.1	11.5	11.8	12.0	11.1
	운전자	보험료	6,787	26,235	6,919	7,020	7,141	7,247	28,327	7,390
		증가율	7.6	5.7	8.3	9.0	7.8	6.8	8.0	6.8
	재물	보험료	9,494	37,476	9,692	9,929	10,025	10,161	39,808	10,198
		증가율	1.8	0.0	4.7	6.3	6.9	7.0	6.2	5.2
	질병	보험료	25,062	94,868	26,055	27,174	28,177	29,201	110,607	30,253
		증가율	17.0	18.9	16.4	16.9	16.5	16.5	16.6	16.1
	저축성	보험료	27,718	117,617	29,513	26,345	25,259	23,533	104,650	22,239
		증가율	-5.3	-2.4	-8.5	-9.1	-11.8	-15.1	-11.0	-24.6
연금	통합형	보험료	12,370	49,321	12,410	12,512	12,484	12,402	49,808	12,364
		증가율	1.2	0.7	1.6	1.2	0.9	0.3	1.0	-0.4
	자산 연계형	보험료	35	154	22	24	32	-16	46	7
		증가율	-20.8	-31.6	-47.8	-37.5	-14.6	-146.5	-70.4	-67.4
	소계	보험료	112,412	444,037	116,499	115,648	116,554	117,116	465,801	117,868
		증가율	5.9	6.1	5.1	5.6	4.8	4.2	4.9	1.2
	개인 연금	보험료	10,295	41,090	10,066	10,015	9,994	10,137	40,211	9,796
		증가율	-3.2	-3.2	-2.7	-2.3	-2.0	-1.5	-2.1	-2.7
	퇴직 연금 ¹⁾	보험료	44,408	63,719	10,270	7,840	5,639	39,918	63,668	9,227
		증가율	98.4	78.8	11.5	32.7	34.4	-10.1	-0.1	-10.2
	소계	보험료	54,703	104,809	20,336	17,855	15,633	50,055	103,879	19,023
		증가율	65.7	34.2	4.0	10.5	8.6	-8.5	-0.9	-6.5

16) 원수보험료(direct premiums written)라 함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이는 보험료를 말함.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자 동 차	대인 I	보험료	7,798	31,149	7,495	7,503	7,269	7,589	29,855	7,296
		증가율	-1.5	-1.2	-1.5	-4.4	-7.9	-2.7	-4.2	-2.7
	대인 II	보험료	3,614	13,681	3,630	3,998	4,125	4,538	16,292	4,495
		증가율	6.5	4.0	11.0	18.8	20.2	25.6	19.1	23.8
	대물	보험료	12,414	46,877	12,314	13,012	13,217	14,423	52,966	14,359
		증가율	9.4	7.6	11.8	12.3	11.4	16.2	13.0	16.6
	자차	보험료	7,973	30,857	8,479	9,062	9,072	9,648	36,261	9,574
		증가율	10.6	7.0	13.0	18.8	17.1	21.0	17.5	12.9
	자손	보험료	1,407	5,248	1,383	1,446	1,464	1,583	5,877	1,487
		증가율	10.2	10.3	13.4	13.4	8.8	12.5	12.0	7.5
	무보험	보험료	235	912	231	250	253	273	1,007	260
		증가율	1.3	-1.2	5.3	11.3	8.5	16.3	10.4	12.5
	소계	보험료	25,644	97,575	26,037	27,768	28,131	30,466	112,402	30,175
		증가율	9.3	6.9	12.1	15.3	14.2	18.8	15.2	15.9
	외화표시	보험료	42	114	33	36	28	2	99	1
		증가율	23.7	-1.2	61.1	25.4	22.1	-96.2	-13.5	-97.8
	기타 ²⁾	보험료	1,700	6,646	1,733	1,962	1,927	1,937	7,558	1,910
		증가율	13.8	11.9	13.6	14.8	12.5	13.9	13.7	10.2
	소계	보험료	35,183	135,484	35,298	37,269	37,355	39,992	149,914	39,382
		증가율	6.9	5.2	9.0	10.7	9.0	13.7	10.7	11.6
일 반	화재	보험료	905	3,106	728	736	683	893	3,041	720
		증가율	-1.9	-3.6	-4.0	-0.4	-2.8	-1.3	-2.1	-1.2
	해상	보험료	1,830	7,343	1,880	1,837	1,820	1,554	7,091	1,506
		증가율	11.7	-2.2	7.6	-4.7	-1.0	-15.1	-3.4	-19.9
	보증	보험료	4,048	15,152	3,898	4,054	3,713	4,150	15,816	3,884
		증가율	1.8	-0.6	1.5	11.0	2.8	2.5	4.4	-0.4
	특종	보험료	12,793	49,991	13,347	13,651	11,536	13,088	51,622	14,102
		증가율	2.9	1.2	6.2	4.2	0.0	2.3	3.3	5.7
	해외 원보험	보험료	1,559	5,832	1,217	1,122	1,557	1,413	5,309	1,318
		증가율	-11.5	-6.8	-11.5	-22.9	8.0	-9.3	-9.0	8.3
	소계	보험료	21,135	81,424	21,071	21,401	19,309	21,098	82,879	21,530
		증가율	1.9	-0.3	3.9	2.5	1.0	-0.2	1.8	2.2
전 체	보험료		22.3	76.6	19.3	19.2	18.9	22.8	80.2	19.8
	증가율		15.9	8.3	5.5	6.6	5.5	2.2	4.8	2.4

주: 1)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2)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장기손해보험

■ 2016년 1/4분기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한 11조 7,868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장기저축성보험의 큰 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영역이 꾸준히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기 때문이다.

○ 장기저축성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4.6% 감소하였으며, 신규판매 부진으로 2014년 2/4분기 이후 연속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저금리 추세 장기화로 인한 공시이율 하락,¹⁷⁾ 저금리 리스크 확대에 의한 보험회사의 판매부담 증대 등으로 신규수요가 위축됨.

○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여 각각 11.1%, 16.1% 증가함.

○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의 경우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6.8%, 5.2% 증가함.

■ 2016년 1/4분기 초회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0.3% 줄어든 3,971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장기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장기저축성보험은 전년동기대비 56.1% 감소함.

○ 장기질병보험은 유병자보험의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상승(20.7%)을 하였으나, 장기상해보험은 10.7% 하락함.

〈표 19〉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원수 보험료	상해	보험료	30,946	118,365	31,889	32,644	33,435	34,587	132,555	35,418
		증가율	12.1	10.8	12.7	12.1	11.5	11.8	12.0	11.1
	운전자	보험료	6,787	26,235	6,919	7,020	7,141	7,247	28,327	7,390
		증가율	7.6	5.7	8.3	9.0	7.8	6.8	8.0	6.8
	재물	보험료	9,494	37,476	9,692	9,929	10,025	10,161	39,808	10,198
		증가율	1.8	0.0	4.7	6.3	6.9	7.0	6.2	5.2
	질병	보험료	25,062	94,868	26,055	27,174	28,177	29,201	110,607	30,253
		증가율	17.0	18.9	16.4	16.9	16.5	16.5	16.6	16.1
	저축성	보험료	27,718	117,617	29,513	26,345	25,259	23,533	104,650	22,239
		증가율	-5.3	-2.4	-8.5	-9.1	-11.8	-15.1	-11.0	-24.6

17) 보험개발원, 공시기준이율: 2013년(3.78%), 2014년(3.57%), 2015년(2.81%), 2016년 6월(2.5%).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초회 보험료 ²⁾	통합형	보험료	12,370	49,321	12,410	12,512	12,484	12,402	49,808	12,364
		증가율	1.2	0.7	1.6	1.2	0.9	0.3	1.0	-0.4
	자산 연계형	보험료	35	154	22	24	32	-16	46	7
		증가율	-20.8	-31.6	-47.8	-37.5	-14.6	-146.5	-70.4	-67.4
	소계	보험료	112,412	444,037	116,499	115,648	116,554	117,116	465,801	117,868
		증가율	5.9	6.1	5.1	5.6	4.8	4.2	4.9	1.2
계속 보험료	상해	보험료	724	2,589	683	548	635	771	2,637	610
		증가율	26.1	7.3	13.9	-12.7	-0.6	6.5	1.8	-10.7
	운전자	보험료	155	579	134	136	164	135	570	179
		증가율	24.6	19.9	16.6	13.1	-12.9	-12.5	-1.5	33.5
	재물	보험료	273	1,008	318	307	268	292	1,185	299
		증가율	17.6	-7.9	41.1	20.3	5.5	6.8	17.6	-6.0
	질병	보험료	617	2,318	607	587	627	649	2,469	733
		증가율	5.6	0.7	-2.1	12.1	12.5	5.1	6.5	20.7
	저축성	보험료	3,870	18,379	4,883	3,474	3,544	2,757	14,657	2,145
		증가율	27.5	11.7	-17.9	-19.4	-16.6	-28.8	-20.3	-56.1
	통합형	보험료	74	275	30	17	12	9	68	6
		증가율	-2.4	-38.5	-65.3	-69.7	-79.0	-88.3	-75.3	-81.4
	자산 연계형	보험료	0	0	0	0	0	0	0	0
		증가율	-	-	-	-	-	-	-	-
	소계	보험료	5,713	25,148	6,654	5,070	5,249	4,612	21,585	3,971
		증가율	23.5	8.4	-12.4	-14.0	-11.7	-19.3	-14.2	-40.3
계속 보험료	상해	보험료	30,223	115,776	31,206	32,096	32,801	33,816	129,919	34,808
		증가율	11.8	10.9	12.6	12.7	11.7	11.9	12.2	11.5
	운전자	보험료	6,632	25,656	6,784	6,883	6,977	7,112	27,757	7,211
		증가율	7.3	5.4	8.2	9.0	8.4	7.2	8.2	6.3
	재물	보험료	9,221	36,468	9,374	9,622	9,758	9,869	38,623	9,899
		증가율	1.4	0.3	3.8	5.9	6.9	7.0	5.9	5.6
	질병	보험료	24,445	92,550	25,448	26,587	27,550	28,553	108,138	29,520
		증가율	17.3	19.5	16.9	17.0	16.6	16.8	16.8	16.0
	저축성	보험료	23,847	99,238	24,630	22,872	21,716	20,776	89,993	20,094
		증가율	-9.1	-4.7	-6.4	-7.3	-11.0	-12.9	-9.3	-18.4
	통합형	보험료	12,296	49,047	12,380	12,495	12,472	12,394	49,740	12,359
		증가율	1.3	1.1	2.1	1.6	1.2	0.8	1.4	-0.2
	자산 연계형	보험료	35	154	22	24	32	-16	46	7
		증가율	-20.8	-31.6	-47.8	-37.5	-14.6	-146.5	-70.4	-67.4
	소계	보험료	106,699	418,889	109,845	110,579	111,305	112,503	444,215	113,898
		증가율	5.1	5.9	6.4	6.7	5.7	5.4	6.0	3.7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1회 납입보험료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1/4분기 해지율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3.0%를 기록하였는데,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 하락이 이를 상쇄하였기 때문임.

- 장기상해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한 2.9%를 기록하였음.
 - 이는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4.2%인 반면,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 증가율이 18.1%를 나타냈기 때문임.
- 장기저축성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2%p 감소한 2.4%를 기록하였음.
 - 이는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과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4.2%, 7.6% 감소하였으나,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의 감소액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임.
-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 해지율은 각각 0.4%p, 0.2%p 증가한 3.5%, 4.1%를 기록하였음.
 - 이는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 증가율(37.7%, 31.6%)이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 증가율(20.7%, 23.7%)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표 20〉 장기손해보험 해지율^{1),2)}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3/4	4/4	1/4	2/4	3/4	4/4	1/4
상해	8.5	10.5	3.3	6.2	8.7	10.7	2.9
운전자	8.1	9.6	3.1	5.7	8.0	10.0	3.5
재물	10.3	12.6	3.9	7.3	10.3	13.1	4.1
질병	6.9	8.1	2.5	4.8	6.8	8.6	2.5
저축성	7.7	9.6	2.6	4.9	6.9	9.0	2.4
통합형	6.5	8.0	2.0	3.9	5.7	7.2	1.6
계	8.1	9.9	3.0	5.8	8.2	10.3	3.0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

■ 2016년 1/4분기 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한 1조 9,023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2013년 3/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1/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2.7% 줄어든 9,796억 원을 기록함.

○ 퇴직연금은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등 긍정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한 9,227억 원을 기록함.

- 2014년의 기저효과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부담에 따른 일부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 정책 등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됨.

〈표 21〉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1),2)}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개인 연금	보험료	10,295	41,090	10,066	10,015	9,994	10,137	40,211	9,796
	증가율	-3.2	-3.2	-2.7	-2.3	-2.0	-1.5	-2.1	-2.7
	구성비	18.8	39.2	49.5	56.1	63.9	20.3	38.7	51.5
퇴직 연금 ³⁾	보험료	44,408	63,719	10,270	7,840	5,639	39,918	63,668	9,227
	증가율	98.4	78.8	11.5	32.7	34.4	-10.1	-0.1	-10.2
	구성비	81.2	60.8	50.5	43.9	36.1	79.7	61.3	48.5
합계	보험료	54,703	104,809	20,336	17,855	15,633	50,055	103,879	19,023
	증가율	65.7	34.2	4.0	10.5	8.6	-8.5	-0.9	-6.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3)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2016년 1/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한 3조 9,382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요율 인상과 물적 담보 보장 확대 등에 기인함.

○ 대인배상 I 은 2.7% 감소한 7,29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기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자동차보험 가입 확대와 마일리지 및 블랙박스 특약 가입 증가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¹⁸⁾

18) 자동차보험의 온라인 가입대수는 2013년 34.6%에서 2014년 35.6%, 2015년 37.2%로 증가하였고, 마일리지상품 가입자는 2015년 412만 명으로 2014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블랙박스특약 가입자는 532만 명으로 30.8% 증가함(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6. 4. 7), “2015년 자동차보험 할인형상품·물담보 보장확대 수요 증가”).

- 종합보험은 최근 계속된 요율 인상과 외산차 가입증가·대물 가입금액 고액화·자차담보 가입 증가 등으로 인한 물적 담보 보장확대 수요 증가¹⁹⁾로 15.9% 늘어난 3조 175억 원을 나타냄.

〈표 22〉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대인 I		7,798 (-1.5)	31,149 (-1.2)	7,495 (-1.5)	7,503 (-4.4)	7,269 (-7.9)	7,589 (-2.7)	29,855 (-4.2)	7,296 (-2.7)
종합 보험	대인 II	3,614 (6.5)	13,681 (4.0)	3,630 (11.0)	3,998 (18.8)	4,125 (20.2)	4,538 (25.6)	16,292 (19.1)	4,495 (23.8)
	대물	12,414 (9.4)	46,877 (7.6)	12,314 (11.8)	13,012 (12.3)	13,217 (11.4)	14,423 (16.2)	52,966 (13.0)	14,359 (16.6)
	자차	7,973 (10.6)	30,857 (7.0)	8,479 (13.0)	9,062 (18.8)	9,072 (17.1)	9,648 (21.0)	36,261 (17.5)	9,574 (12.9)
	자손	1,407 (10.2)	5,248 (10.3)	1,383 (13.4)	1,446 (13.4)	1,464 (8.8)	1,583 (12.5)	5,877 (12.0)	1,487 (7.5)
	무보험	235 (1.3)	912 (-1.2)	231 (5.3)	250 (11.3)	253 (8.5)	273 (16.3)	1,007 (10.4)	260 (12.5)
	소계	25,644 (9.3)	97,575 (6.9)	26,037 (12.1)	27,768 (15.3)	28,131 (14.2)	30,466 (18.8)	112,402 (15.2)	30,175 (15.9)
외화표시		42 (23.7)	114 (-1.2)	33 (61.1)	36 (25.4)	28 (22.1)	2 (-96.2)	99 (-13.5)	1 (-97.8)
기타 ²⁾		1,700 (13.8)	6,646 (11.9)	1,733 (13.6)	1,962 (14.8)	1,927 (12.5)	1,937 (13.9)	7,558 (13.7)	1,910 (10.2)
합계		35,183 (6.9)	135,484 (5.2)	35,298 (9.0)	37,269 (10.7)	37,355 (9.0)	39,992 (13.7)	149,914 (10.7)	39,382 (11.6)

주: 1)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1/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3.4%p 하락한 82.2%를 나타냄.

- 대인배상 I 은 전년동기대비 2.8%p 상승한 68.7%를 기록하였는데, 사고율의 변동폭은 작았으나²⁰⁾ 경과보험료²¹⁾가 감소(-4.2%)하였기 때문임.

19) 2015년 외산차의 개인용 보험가입대수는 2014년 대비 26.1%, 2억 원 이상 대물배상 가입자는 16.2%, 자기차량담보 가입률은 1.8%p 각각 증가하였음(보험개발원, 전제서).

20) 대인배상 I 의 발생손해액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4,661억 원을 기록함.

21)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인 보험연도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연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당해 사업연도로 귀속되고 나머지는 차기

○ 종합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6.7%p 하락한 86.0%를 나타냈는데,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 등으로 경과보험료가 두 자릿수 이상(16.4%) 증가하였기 때문임.

- 대인배상Ⅱ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10.0%p 개선된 134.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최근 한방병원의 진료비 증가²²⁾ 등 지급액이 증가²³⁾하였으나, 보험요율 인상 등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의 증가분²⁴⁾이 더 컸기 때문임.

〈표 23〉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대인 I	77.3	70.3	65.9	69.5	74.3	85.3	73.7	68.7
종합 보험	대인Ⅱ	146.6	133.7	144.2	135.3	142.9	148.0	142.7
	대물	97.3	90.8	86.4	88.4	90.9	93.9	90.0
	자차	92.2	87.2	82.3	77.8	76.0	78.0	78.5
	자손	78.7	72.5	72.5	62.0	59.8	66.2	65.0
	무보험	69.0	88.4	104.1	94.1	71.1	84.0	88.0
	소계	101.5	94.8	92.7	90.4	91.7	95.1	92.5
외화표시	70.5	76.0	74.8	66.2	74.4	93.4	76.9	62.7
기타 ²⁾	93.2	81.7	74.5	71.4	79.8	83.6	77.5	77.6
합계	95.5	88.5	85.6	84.8	87.7	92.2	87.7	82.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임.

2)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일반손해보험

■ 2016년 1/4분기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2조 1,530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반손해보험의 65.5%를 차지하고 있는 특종보험의 상승세에 기인함.

○ 화재보험은 1.2% 줄어든 720억 원을 나타내었으며, 해상보험은 조선·해운업계 불황에 기인하여 19.9% 줄어든 1,506억 원을 기록함.

사업연도로 넘어감. 여기서 이미 경과된 기간(보험회사의 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경과보험료(earned premium)라고 함.

22) 한방병원과 한방의원의 2015년 진료비는 2014년 대비 각각 39.8%, 29.7% 증가한 1,100억 원과 2,479억 원을 기록함(연합뉴스(2016. 4. 4), “교통사고 한방진료 늘었다…작년 20% 성장”).

23) 발생손해액이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함.

24) 경과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0.9% 증가함.

- 보증보험은 0.4% 감소한 3,884억 원을 나타냈는데, 건설투자 확대²⁵⁾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보험 실적 부진과 서민 관련 상품 요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침.
- 특종보험은 5.7% 증가한 1조 4,102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질병보험 감소²⁶⁾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험종목이 상승세²⁷⁾를 나타냈기 때문임.

〈표 24〉 일반손해보험¹⁾ 종목별 원수보험료²⁾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화재	보험료	905	3,106	728	736	683	893	3,041	720
	증가율	-1.9	-3.6	-4.0	-0.4	-2.8	-1.3	-2.1	-1.2
	구성비	4.3	3.8	3.5	3.4	3.5	4.2	3.7	3.3
해상	보험료	1,830	7,343	1,880	1,837	1,820	1,554	7,091	1,506
	증가율	11.7	-2.2	7.6	-4.7	-1.0	-15.1	-3.4	-19.9
	구성비	8.7	9.0	8.9	8.6	9.4	7.4	8.6	7.0
보증	보험료	4,048	15,152	3,898	4,054	3,713	4,150	15,816	3,884
	증가율	1.8	-0.6	1.5	11.0	2.8	2.5	4.4	-0.4
	구성비	19.2	18.6	18.5	18.9	19.2	19.7	19.1	18.0
특종	보험료	12,793	49,991	13,347	13,651	11,536	13,088	51,622	14,102
	증가율	2.9	1.2	6.2	4.2	0.0	2.3	3.3	5.7
	구성비	60.5	61.4	63.3	63.8	59.7	62.0	62.3	65.5
해외 원보험	보험료	1,559	5,832	1,217	1,122	1,557	1,413	5,309	1,318
	증가율	-11.5	-6.8	-11.5	-22.9	8.0	-9.3	-9.0	8.3
	구성비	7.4	7.2	5.8	5.2	8.1	6.7	6.4	6.1
합계	보험료	21,135	81,424	21,071	21,401	19,309	21,098	82,879	21,530
	증가율	1.9	-0.3	3.9	2.5	1.0	-0.2	1.8	2.2

주: 1)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2016년 1/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19.9%로 전년동기대비 1.6%p 증가하였음.

- 연금부문과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9.6%, 59.6%로 각각 0.9%p, 0.7%p 감소하였고,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10.9%로 변동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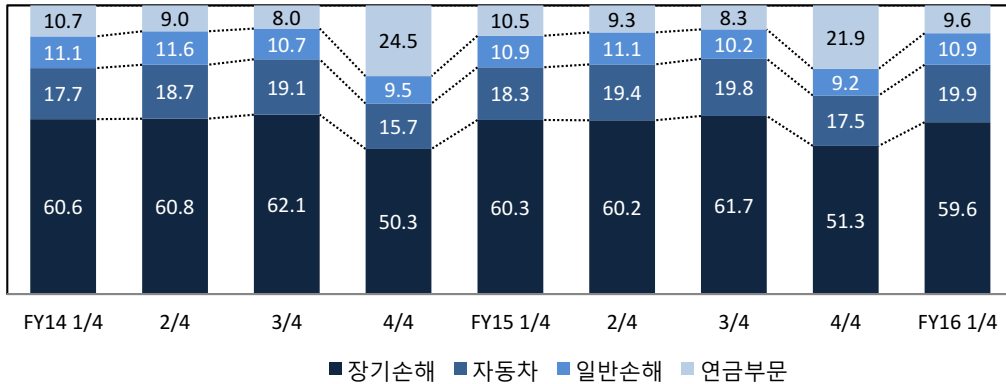
25) 건설투자(전년동기대비): 2015년 1/4분기 0.6% → 2015년 2/4분기 1.6% → 2015년 3/4분기 5.7%.

26) 질병보험의 2016년 1/4분기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한 181억 원을 기록함.

27) 기술보험(644억 원), 근재보험(278억 원), 책임보험(1,870억 원), 상해보험(4,608억 원), 종합보험(2,725억 원), 권원보험(89억 원), 기타특종보험(3,707억 원)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6.0%, 8.7%, 12.9%, 2.0%, 3.1%, 7.7%, 7.6% 성장함.

〈그림 7〉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단위: %)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6년 1/4분기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전년동기대비 국내 중·소형사의 시장 점유율 1.3%p가 상위 4개사로 이동함.

○ 상위 4사²⁸⁾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1.3%p 증가한 69.0%를 기록하였고, 국내 중·소형사는 1.3%p 감소한 26.9%를 나타냄.

○ 전업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와 거의 유사한 1.9%와 2.1%를 각각 기록함.

■ 허핀달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0039 증가한 0.1417을 나타냄.

○ 보험종목별로 허핀달 지수를 살펴보면,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및 개인연금의 수치는 감소한 반면, 자동차보험과 퇴직연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동차보험의 허핀달 지수는 0.0201이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위 4사의 온라인 영업 강화 및 전업사 합병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28)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손해보험회사를 의미함.

〈표 25〉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상위 4사 ²⁾	71.2	69.5	67.7	68.7	69.5	69.6	68.9	69.0
국내 중·소형사 ²⁾	25.2	26.5	28.2	26.9	26.3	26.8	27.1	26.9
전업사 ³⁾	1.8	2.0	2.0	2.1	2.0	1.8	2.0	1.9
외국사 ³⁾	1.8	2.1	2.1	2.3	2.2	1.8	2.1	2.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허 핀 달 지 수 ⁴⁾	일반손해보험	0.1289	0.1230	0.1186	0.1178	0.1274	0.1224	0.1186
	자동차보험	0.1617	0.1607	0.1582	0.1613	0.1725	0.1758	0.1668
	장기손해보험	0.1380	0.1387	0.1372	0.1377	0.1376	0.1372	0.1374
	개인연금	0.3251	0.3210	0.3246	0.3241	0.3278	0.3267	0.3258
	퇴직연금	0.2747	0.2713	0.3140	0.2337	0.2435	0.2144	0.2163
	전체	0.1541	0.1446	0.1378	0.1387	0.1425	0.1410	0.1395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상위 4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회사, 국내 중·소형사는 국내 온라인사를 포함한 8개 회사를 의미함.

3) 전업사는 보증보험사, 국내·외 재보험사 및 외국계 단종보험회사를 포함함.

4) 허핀달 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이면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손해율과 사업비율

■ 2016년 1/4분기 전체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2.0%p 하락한 81.6%를 기록하였는데, 종목별로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손해율이 모두 하락함.

○ 2016년 1/4분기 전체 손해보험 발생손해액과 경과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0.9%, 3.4% 증가함.

○ 장기손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발생손해액 증가율(0.3%)이 경과보험료 증가율(1.2%)을 하회함에 따라 0.8%p 하락한 85.2%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은 발생손해액이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하였으나 경과보험료의 증가분(10.7%)이 더 커, 손해율은 3.4%p 하락한 82.2%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은 경과보험료 기준 53.3%를 차지하고 있는 특종보험 손해율이 전년동기대비 1.1%p 상승²⁹⁾하였으나, 보증보험 손해율이 54.6%p 하락³⁰⁾한 26.9%를 기록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6.5%p 개선된 59.0%를 시현함.

〈표 26〉 손해보험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 해 율	장기손해보험 ²⁾	86.1	85.2	86.0	84.5	84.1	84.5	84.8	85.2
	자동차보험	95.5	88.5	85.6	84.8	87.7	92.2	87.7	82.2
	일반손해보험	67.3	65.1	65.5	65.3	74.8	58.2	65.9	59.0
	화재보험	45.4	55.4	66.6	43.5	57.7	32.3	49.8	59.9
	해상보험	85.4	59.8	55.1	70.1	94.3	69.8	73.1	64.7
	보증보험	41.6	47.9	81.5	50.3	54.3	26.9	52.9	26.9
	특종보험	66.5	68.5	65.1	67.1	70.3	65.5	67.0	66.2
	해외원보험	124.7	94.8	84.2	135.0	235.2	15.5	114.7	75.4
	해외수재보험	83.2	66.3	50.2	61.7	76.1	72.7	65.7	61.7
	전체	85.6	83.4	83.6	82.3	83.7	82.9	83.1	81.6
사업비율		19.4	19.0	19.6	18.9	19.1	20.6	19.5	19.4
합산비율		105.1	102.4	103.2	101.1	102.8	103.4	102.7	101.0

주: 1) 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그리고 합산비율(손해율 + 사업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여기서 순사업비는 지급경비(급여와 임금, 손해조사비, 모집비, 수급비 등)에서 수입경비(출재보험 수수료, 출재이익 수수료 등)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고려한 재무손해율임.

3)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1/4분기 전체 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2%p 감소한 19.4%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함.³¹⁾

■ 2016년 1/4분기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0%p, 0.2%p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2.2%p 개선된 101.0%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합산비율은 각각 104.2%, 100.5%, 82.4%를 기록함.

29) 경과보험료 0.2% 증가, 발생손해액 2.0% 증가.

30) 경과보험료 3.1% 증가, 발생손해액 66.0% 감소.

31)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한 19.0%, 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6%p, 1.4%p 하락한 23.4%, 18.3%를 기록함.

다. 판매채널

〈판매채널 포트폴리오³²⁾〉

■ 2016년 1/4분기 임직원 채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보다 축소되었으나, 설계사 채널 비중은 동일하고 대리점 채널 비중은 확대됨.

○ 임직원 채널은 전년동기대비 0.5%p 축소된 15.4%, 설계사 채널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27.7%, 대리점 채널은 2.2%p 확대된 44.8%를 기록함.

○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2.1%p 축소된 10.9%를 기록함.

〈표 27〉 손해보험 판매채널 포트폴리오(원수보험료 비중)¹⁾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임직원	63,198	139,845	30,640	28,715	26,378	58,880	144,615	30,546	
	28.3	18.3	15.9	14.9	14.0	25.8	18.0	15.4	
설계사 ²⁾	54,038	213,341	53,503	55,140	53,786	55,187	217,618	54,872	
	24.2	27.9	27.7	28.7	28.4	24.2	27.1	27.7	
대리점	82,712	315,326	82,251	84,084	84,320	90,725	341,381	88,532	
	37.0	41.2	42.6	43.8	44.6	39.7	42.5	44.8	
중개사	1,765	6,176	1,397	1,921	1,446	1,828	6,591	1,690	
	0.8	0.8	0.7	1.0	0.8	0.8	0.8	0.9	
방카슈랑스	21,313	90,030	25,096	21,790	22,405	20,897	90,189	21,608	
	9.5	11.8	13.0	11.3	11.9	9.2	11.2	10.9	
공동인수	407	1,036	316	509	496	773	2,095	561	
	0.2	0.1	0.2	0.3	0.3	0.3	0.3	0.3	
전체	223,433	765,754	193,204	192,160	188,832	228,291	802,489	197,8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하는 분기기준 원수보험료 실적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2) 판매채널은 크게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로 구분되며, 최근 온라인 채널 등 새로운 채널도 등장하였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 27〉과 같이 판매채널을 구분하여 원수보험료 비중을 제시함.

〈모집조직 규모〉

■ 2016년 1/4분기 말 임직원과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168명 증가한 3만 2,511명을 기록함.
- 전체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3,058명 증가한 15만 9,654명을 나타냈는데, 전속설계사와 교차설계사 수는 각각 2,176명, 882명 증가함.
- 전체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 수와 법인대리점 수가 모두 줄어들어 전분기대비 199개 감소한 3만 651개를 나타냄.

〈표 28〉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2014		2015				2016
	3/4	4/4	1/4	2/4	3/4	4/4	1/4
임직원(명)	33,256	33,047	33,298	32,750	32,679	32,343	32,511
설계사(명)	156,958	156,662	156,052	155,854	155,770	156,596	159,654
- 전속	82,504	82,299	81,073	80,400	80,269	81,148	83,324
- 교차	74,454	74,363	74,979	75,454	75,501	75,448	76,330
대리점(개)	33,170	32,995	32,475	32,511	31,847	30,850	30,651
- 개인	22,349	22,057	21,717	21,559	21,264	20,884	20,793
- 법인	10,821	10,938	10,758	10,952	10,583	9,966	9,858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총수익 · 총비용〉

■ 2016년 1/4분기 전체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한 9,071억 원 흑자를 기록함.

〈표 29〉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¹⁾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총수익	보험영업	17,489	68,397	17,579	17,740	17,941	18,301	71,562	18,139
	투자영업	2,251	7,532	2,174	2,213	3,013	1,640	9,040	2,624
	기타	1,247	2,015	516	419	382	1,424	2,741	452
	소계	20,988	77,944	20,270	20,372	21,336	21,365	83,343	21,215
총비용	보험영업 ²⁾	18,602	70,908	18,359	18,201	18,642	19,195	74,397	18,577
	투자영업	724	1,790	449	610	1,485	150	2,693	969
	기타	1,270	2,180	395	441	406	1,445	2,687	521
	소계	20,595	74,878	19,203	19,252	20,533	20,789	79,777	20,067
수지차	보험영업	-1,113	-2,512	-779	-461	-701	-894	-2,835	-438
	투자영업	1,527	5,742	1,725	1,603	1,528	1,490	6,347	1,655
	기타	-22	-164	121	-22	-24	-21	54	-68
	소계	392	3,066	1,067	1,120	803	575	3,565	1,148
법인세		83	735	245	267	188	172	872	241
당기순이익(A) ³⁾		309	2,330	822	853	615	404	2,694	907
		(-17.2)	(20.2)	(43.9)	(-1.1)	(4.7)	(30.6)	(15.6)	(10.4)
당기순이익(B) ⁴⁾		185	1,661	611	627	484	189	1,910	681
		(-31.5)	(6.4)	(30.5)	(12.4)	(7.3)	(2.2)	(15.0)	(11.5)

주: 1) 기간별 수치는 특별계정을 제외한 실적이고,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4/4분기는 FY2013 3/3분기와 비교함.

2) 책임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함.

3)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임. 표에 있는 수지차는 이에 해당함.

4)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7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책임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한 보험영업 적자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413억 원 감소한 4,379억 원을 기록함.
- 투자영업 이익규모는 전년동기대비 705억 원 감소한 1조 6,548억 원을 나타냄.
- 한편,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7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B)은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한 6,809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

〈자산〉

- 2016년 1/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자산이 모두 늘어나 전분기 대비 2.8% 증가한 232조 1,807억 원을 나타냄.
 - 일반계정 자산은 전분기대비 2.3% 늘어난 217.4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특별계정 자산은 전분기대비 9.8% 증가한 14.8조 원을 나타냄.
- 2016년 1/4분기 손해보험 총부채는 전분기대비 2.5% 증가한 201조 6,419억 원을 나타냈으며, 총자본은 전분기대비 4.2% 증가한 30조 5,388억 원을 나타냄.
 - 총부채는 책임준비금과 기타부채, 특별계정 부채가 각각 전분기대비 2.5%, 3.9%, 31.2% 증가함.
 - 총자본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자본금, 이익잉여금이 각각 전분기대비 20.4%, 2.1%, 0.6% 증가한 반면, 자본잉여금이 전분기대비 1.3% 감소함.

〈표 30〉 손해보험산업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자산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총자산	금액	200.3	207.9	212.3	219.6	225.9	225.9	232.2
	증가율	17.4	3.8	2.1	3.5	2.9	12.8	2.8
일반계정 자산	금액	191.1	196.2	200.6	207.6	212.5	212.5	217.4
	증가율	16.6	2.7	2.3	3.5	2.3	11.2	2.3
특별계정 자산	금액	9.2	11.7	11.7	12.0	13.4	13.4	14.8
	증가율	39.4	26.9	-0.1	2.9	12.0	46.1	9.8

주: 1) 분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연간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31〉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총자산	금액	200.3	207.9	212.3	219.6	225.9	225.9	232.2
	증가율	17.4	3.8	2.1	3.5	2.9	12.8	2.8
총부채	금액	173.4	179.3	184.2	190.3	196.6	196.6	201.6
	증가율	17.1	3.4	2.7	3.4	3.3	13.4	2.5
책임준비금	금액	150.2	154.6	160.1	165.0	169.0	169.0	173.2
	증가율	15.2	2.9	3.6	3.1	2.4	12.5	2.5
기타부채	금액	12.0	13.3	12.4	13.5	13.3	13.3	13.8
	증가율	15.3	11.3	-6.4	8.7	-1.7	11.2	3.9
특별계정부채	금액	9.3	9.2	9.3	9.4	11.1	11.1	14.6
	증가율	25.3	-0.7	1.3	1.1	17.9	19.9	31.2
총자본	금액	26.9	28.6	28.1	29.3	29.3	29.3	30.5
	증가율	20.0	6.3	-1.5	4.1	0.0	9.0	4.2
자본금	금액	2.4	2.4	2.5	2.4	2.4	2.4	2.5
	증가율	3.3	2.8	2.8	-4.8	2.0	2.6	2.1
자본잉여금	금액	2.4	2.3	2.4	2.5	2.7	2.7	2.7
	증가율	13.7	-3.7	3.6	5.5	8.1	13.7	-1.3
이익잉여금	금액	17.6	17.7	18.5	19.1	19.5	19.5	19.6
	증가율	12.3	0.7	4.6	3.2	1.9	10.8	0.6
자본조정	금액	-0.9	-0.9	-1.0	-1.0	-1.3	-1.3	-1.4
	증가율	-2.1	0.0	1.7	-0.2	33.9	35.9	8.9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금액	5.5	7.1	5.7	6.3	6.0	6.0	7.2
	증가율	65.2	28.7	-19.4	9.6	-4.6	8.5	20.4

주: 1) 분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연간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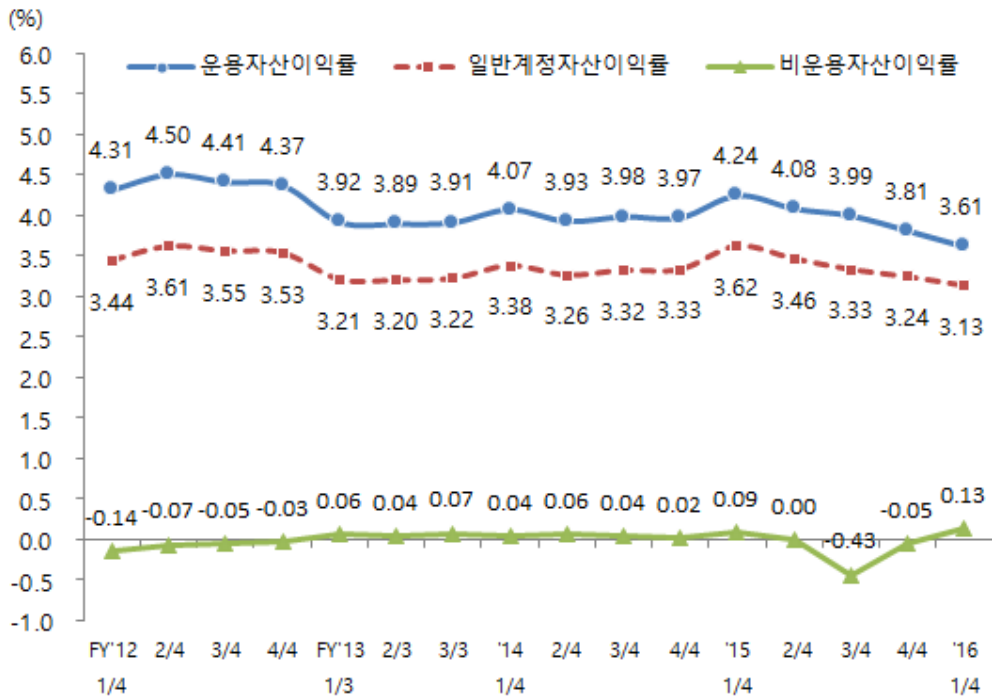
〈자산운용〉

■ 2016년 1/4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63%p 하락한 3.61%를 기록함.

○ 현금과 예금이 0.26%p 하락한 1.97%를 기록하였으며, 유가증권도 0.98%p 하락한 3.59%를 기록함.

- 유가증권 구성항목 중 당기손익인식증권과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익률이 각각 2.34%p, 0.91%p, 0.77%p 하락함.

○ 대출채권 이익률은 0.31%p 하락한 3.98%를 나타냈으며, 부동산 이익률은 2.10% 상승한 3.29%를 기록함.

〈그림 8〉 자산운용 이익률^{1),2)}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이익률과 비운용자산이익률을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1/4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6.48%, 대출채권 23.49%, 현금과 예금 3.39%, 부동산 2.97% 순으로 나타남.³³⁾

○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비중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50%p, 0.16%p, 0.32%p 하락하였으며, 대출채권 비중은 1.89%p 상승함.

〈표 32〉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및 이익률

(단위: %, 억 원)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1/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0	3.62	100.00	3.46	100.00	3.33	100.00	3.24	100.00	3.13
운용자산 계	85.10	4.24	85.14	4.08	85.53	3.99	86.25	3.81	86.32	3.61
현금과 예금	3.89	2.23	4.08	2.93	4.25	3.77	4.27	2.96	3.39	1.97
유가증권	56.32	4.56	55.82	4.26	55.86	4.06	55.79	3.87	56.48	3.59
○ 당기손익인식증권	4.18	4.54	3.62	3.54	3.82	2.38	3.60	2.00	2.97	2.20
- 주식	0.13	26.41	0.10	25.63	0.08	8.05	0.05	2.91	0.05	4.58
- 채권 등	1.87	5.65	1.88	2.98	1.85	2.43	1.66	2.04	1.53	3.20
- 수익증권	2.18	2.15	1.64	2.29	1.89	1.98	1.89	1.85	1.40	1.45
○ 매도가능증권	44.48	4.71	43.68	4.49	43.57	4.30	43.95	4.22	45.09	3.80
- 주식	3.20	5.93	3.07	4.44	2.71	1.41	2.73	1.03	2.75	7.15
- 채권 등	35.98	4.34	34.77	4.22	35.03	4.27	35.05	4.27	35.98	3.67
- 수익증권	5.30	6.45	5.84	6.20	5.84	6.03	6.17	5.62	6.37	3.11
○ 만기보유증권	5.86	3.87	6.74	3.79	6.76	3.96	6.80	3.57	7.01	3.10
- 채권 등	5.86	3.87	6.74	3.79	6.76	3.96	6.80	3.57	7.01	3.10
- 수익증권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79	3.57	1.78	2.02	1.72	2.34	1.43	0.20	1.41	2.38
대출채권	21.60	4.29	22.02	4.31	22.30	4.31	23.13	4.22	23.49	3.98
부동산	3.29	1.19	3.21	1.09	3.12	1.05	3.06	1.02	2.97	3.29
비운용자산	14.90	0.09	14.86	0.00	14.47	-0.43	13.75	-0.05	13.68	0.13
총자산	100.00	3.40	100.00	3.25	100.00	3.12	100.00	3.03	100.00	2.90
일반계정	94.38	3.62	94.51	3.46	94.53	3.33	94.04	3.24	93.64	3.13
특별계정	5.62	0.00	5.49	0.00	5.47	0.00	5.96	0.00	6.36	0.00
총자산 규모	2,078,896		2,122,961		2,196,330		2,259,351		2,321,807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이익률에 해당하는 이익은 분기별 누계실적 기준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3)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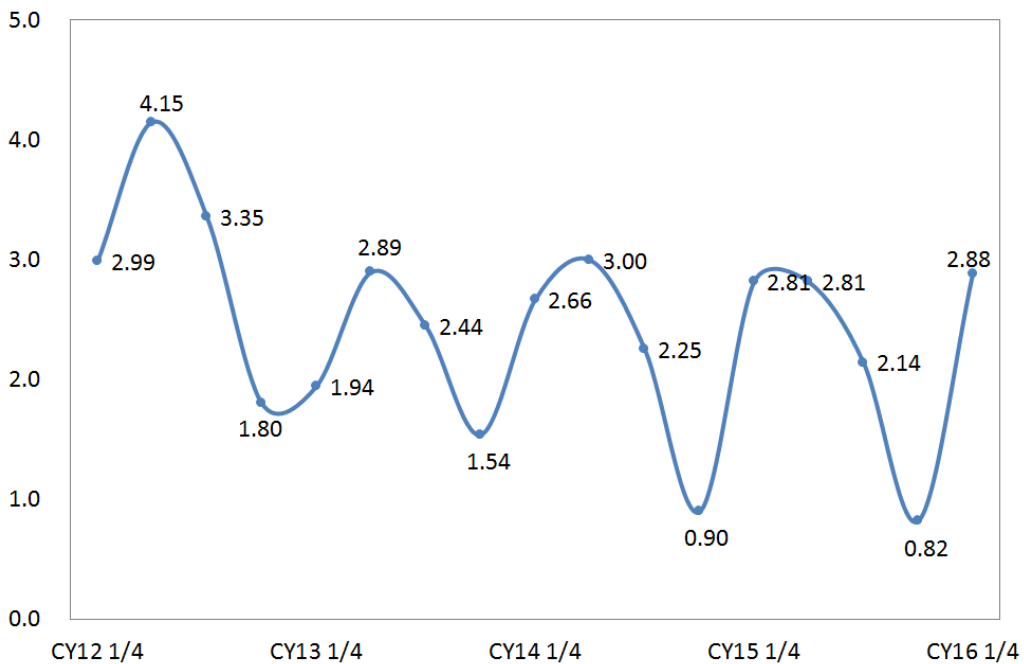
〈자본이익률(ROE)³⁴⁾〉

■ 2016년 1/4분기 손해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07%p 상승한 2.88%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의 총자본은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B)은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함.

〈그림 9〉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6년 1/4분기 손해보험회사 규모별 자본이익률은 대형사와 외국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중·소형사와 전업사는 전년동기대비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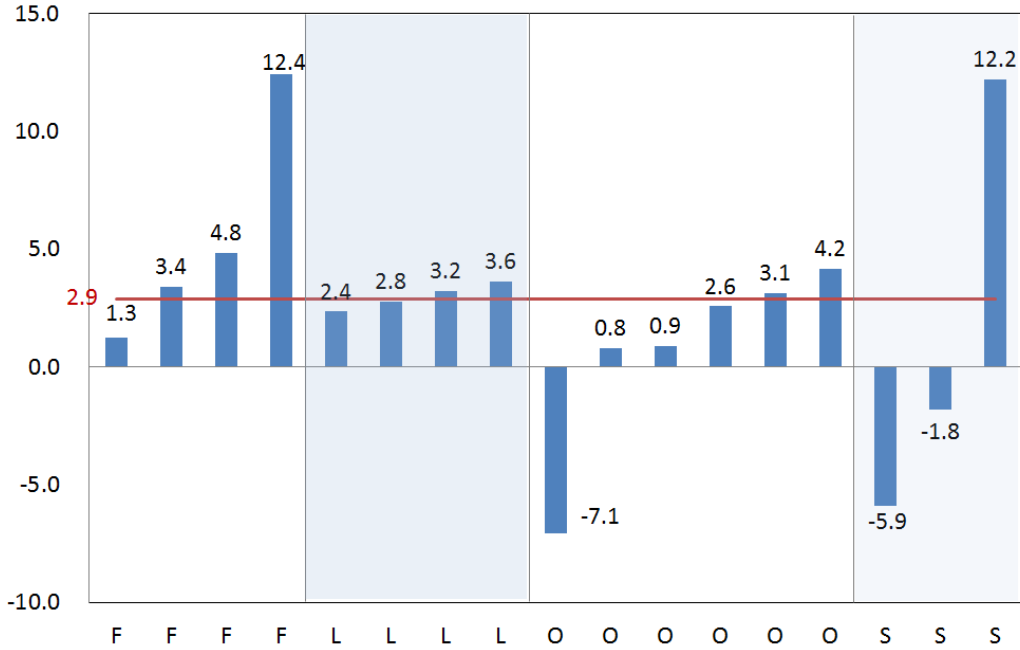
○ 대형사와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0.12%p, 1.88%p 하락한 2.86%와 5.40%를 기록함.

○ 중·소형사와 전업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0.97%p과 3.74%p 개선된 2.43%와 5.22%를 기록함.

34)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17개 회사임.

〈그림 10〉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33〉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대형사	1.37	10.18	2.98	2.84	2.04	0.96	8.98	2.86
중·소형사	-0.25	3.54	1.46	2.99	2.35	1.02	7.95	2.43
외국사	3.11	16.43	7.28	4.77	5.74	2.02	19.69	5.40
전업사	-17.99	-27.41	1.48	-3.89	-0.63	-12.70	-17.70	5.22
전체	0.90	8.69	2.81	2.81	2.14	0.82	8.72	2.88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분기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2) 연간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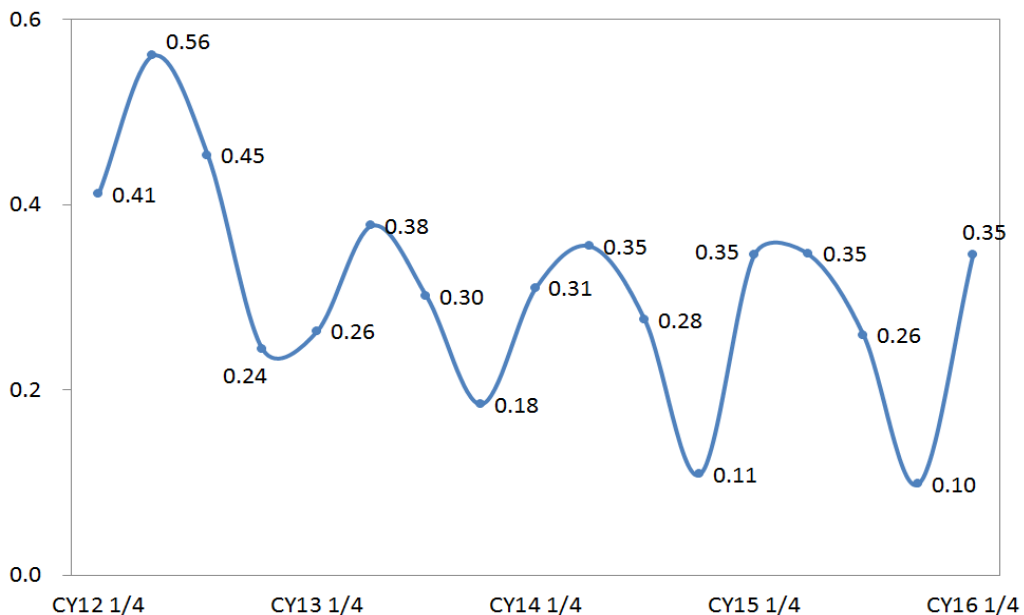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이익률(ROA)³⁵⁾〉

- 2016년 1/4분기 손해보험산업 전체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0.35%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B)은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함.

〈그림 11〉 손해보험산업 자산이익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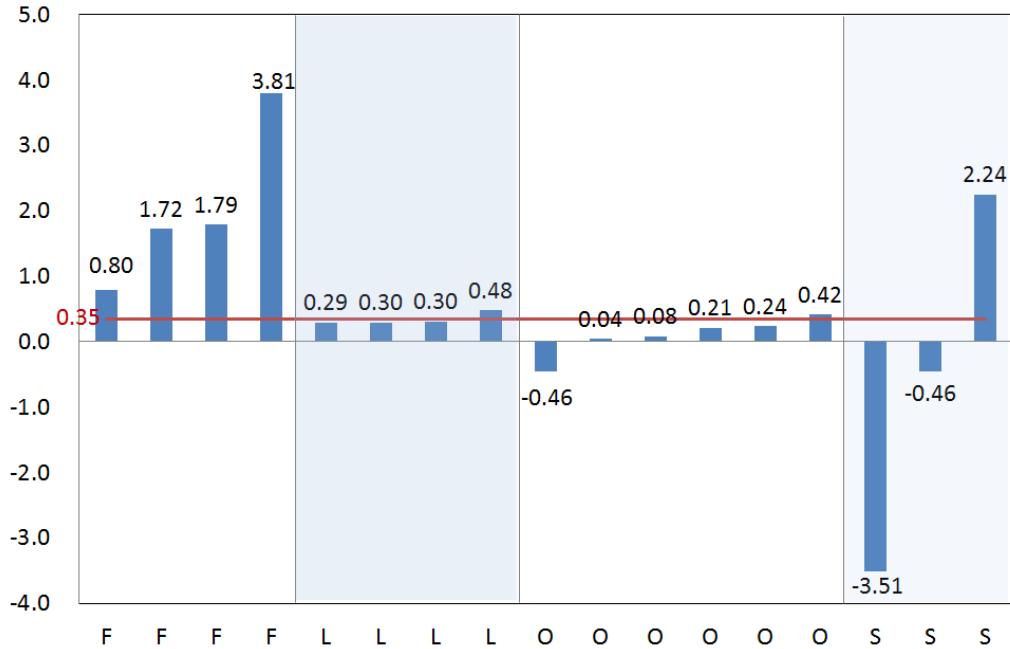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6년 1/4분기 손해보험회사 규모별 자산이익률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중·소형사와 전업사는 상승함.
- 대형사는 전년동기대비 0.03%p 하락한 0.37%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사의 경우는 0.66%p 하락한 2.38%를 나타냄.
- 중·소형사는 전년동기대비 0.08%p 개선된 0.19%를 기록하였으며, 전업사는 0.89%p 개선된 1.14%를 나타내며 4분기만에 양(+)의 자산이익률로 전환됨.

35)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A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17개 회사임.

〈그림 12〉 회사별 자산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산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34〉 손해보험산업 자산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대형사	0.18	1.25	0.40	0.38	0.27	0.13	1.09	0.37
중·소형사	-0.02	0.26	0.11	0.23	0.19	0.08	0.59	0.19
외국사	1.27	6.65	3.04	2.04	2.48	0.88	8.22	2.38
전업사	-2.98	-4.83	0.25	-0.76	-0.14	-2.68	-3.09	1.14
전체	0.11	0.98	0.35	0.35	0.26	0.10	0.98	0.35

주: 1) 분기 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산, 기중자산 = ((전분기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2) 연간 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중자산, 기중자산 = ((전회계연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 해외 주요국의 생명보험시장은 저금리 및 주식시장 혼조세의 영향으로 변액보험의 축소가 나타나고 있고, 정액보험 및 보장성보험이 확대 추세임.
 - 2015년 미국 생명보험시장은 종신보험의 9.0% 성장에 힘입어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 대비 6.0% 성장하였으나, 변액유니버설 보험 신규보험료가 3.0% 감소하면서 그 증가세가 둔화됨.
 - 개인연금 신규보험료의 경우 변액연금은 5.1% 감소하고 정액연금은 6.9% 증가함.
 - 영국은 2015년 각 보험종목의 신규보험료¹⁾가 분기별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연금의 15.5%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10.0% 성장을 이룸.
 - 2015년 투자 및 저축성 상품은 전년대비 2.1% 감소함.
 - 2016년 1/4분기에는 퇴직소득보험의 성장이 두드러져 전년동기대비 6.0%의 성장을 기록함.
 - 2015년 일본 신규계약액²⁾은 개인보험 중 생사혼합보험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전년대비 4.7% 증가함.
 - 개인연금 중 변액연금은 15.9%, 정액연금은 0.5% 줄어듦.
 - 2015년 중국 인보험³⁾ 수입보험료는 생명, 건강, 상해보험 증가세가 모두 크게 확대되어 전년대비 25.0% 성장함.
 - 2016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52.4% 성장함.

1)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2) 일본 보험산업은 일본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라 신규계약액을 기준으로 그 성장성을 살펴보고 있음.
3)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 해외 주요국의 손해보험시장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그 속도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
- 2015년 미국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3.4% 성장함.
 - 한편, 총보험영업이익이 큰 폭(28.4%)으로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은 1.4% 성장에 그침.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소폭(1.9%)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에 기인함.
 - 2015년 일본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2.7% 성장함.
 - 2014년 3.0% 증가보다 둔화됨.
 - 한편 2015년 당기순이익은 50.4% 증가하였고, 더욱이 자본과 자산이 줄어들어 ROE와 ROA는 8.4%, 1.8%로 전년대비 증가함.
 - 2015년 중국 손해보험 수입보험료⁴⁾는 전년대비 11.0% 증가하여 성장세가 둔화됨.
 - 2014년에는 16.0% 증가함.
 - 2016년 1/4분기에는 8.9% 성장에 그침.

4) 중국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가 아닌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성장성을 살펴봄.

1. 미국⁵⁾

가. 생명보험

■ 2015년 4/4분기 생명보험시장 신규보험료 규모⁶⁾는 유니버설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가 감소한 반면, 종신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 성장함(〈표 1〉 참조).

- 유니버설보험⁷⁾은 4/4분기 Actuarial guideline(AG)⁴⁹⁾의 규제가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Indexed UL)⁹⁾ 판매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년동기대비 1% 감소함.
- 변액유니버설보험¹⁰⁾은 저금리 환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함.
- 정기보험¹¹⁾과 종신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 9% 늘어남.

■ 2015년 연간 생명보험시장 신규보험료 규모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6% 성장함.

- 유니버설보험의 경우 규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Indexed UL)이 성장하여 7% 증가함.
-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경우도 각각 2%, 9% 성장함.
- 변액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주식시장 혼조와 저금리 환경의 영향으로 3% 감소함.

5)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6) 미국 보험시장 성장은 신규 연납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 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7) 해약환급금으로부터 사업비를 공제하고, 사망률과 현재 이율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 따라 보험료가 유연한 생명보험임.

8) 보험회사들은 9월 1일 시행된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 판매 시 모든 보험회사가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Actuarial guideline(AG)⁴⁹⁾의 규제가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 판매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음.

9) 인덱스 지수와 연결된 유니버설보험으로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증가되지만 주식시장이 하락하여도 최저 보증금은 보증되는 보험임.

10)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투자 성과에 따라 해약환급금 규모가 변경되는 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및 적립금 인출이 자유로운 보험임.

11) 특정 연령까지 혹은 특정 기간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임.

- 2015년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유니버설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전년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정기보험은 소폭 축소되고, 종신보험은 소폭 확대됨.
- 생명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니버설보험의 비중은 38%임.
 - 변액유니버설보험 역시 전년수준을 유지하며 7%의 비중을 차지함.
 - 정기보험은 전년대비 1%p 하락한 21%, 종신보험은 1%p 상승한 34%의 비중을 차지함.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2	18	-1	38	7	13	11	-1	7	38
기타변액	0	0	0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22	7	17	7	21	-15	2	-11	-3	7
정기	0	1	-1	22	2	1	2	1	2	21
종신	6	5	3	33	9	12	9	9	9	34
계	4	9	1	100	8	8	8	1	6	100
연납화 보험료	2,427	2,907	10,178		2,460	2,742	2,584		2,919	10,687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2016, 4),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5년 4/4분기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변액연금은 감소하고, 정액연금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한 614억 달러임(〈표 2〉 참고).
- 변액연금¹²⁾은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하여 317억 달러를 기록함.
 - 정액연금¹³⁾은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22.7% 증가하여 297억 달러를 기록함.

12) 변액연금 상품을 일부라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을 일컫음.

13) 최저보증 이율이 보장되는 독립상품으로 거치연금(deferred annuity), 즉시연금(immediate annuity), 구조적 지급 연금(structured settlements annuity) 등이 있음.

■ 2015년 개인연금 신규보험료 규모는 변액연금은 감소하고, 정액연금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한 2,366억 달러임.

○ 변액연금은 1,330억 달러로 전년대비 5.1% 감소하였으며 3년 연속 감소세임.

○ 정액연금은 1,036억 달러로 전년대비 6.9% 증가하였으며, 8년 연속 성장세임.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변액연금	보험료	35.5	34.2	140.1	32.4	36.0	32.9	31.7	133.0
	증가율	-0.6	-6.0	-3.6	-5.3	-0.6	-7.3	-7.3	-5.1
	비중	61.0	58.9	59.4	59.6	59.8	54.3	51.6	56.2
정액연금	보험료	23.0	23.9	95.8	22.0	24.2	37.7	29.7	103.6
	증가율	-3.8	-4.8	13.5	-8.3	-5.8	63.9	22.7	6.9
	비중	39.0	41.1	40.6	40.4	40.2	62.2	48.4	43.8
합계	보험료	58.5	58.1	235.9	54.4	60.2	60.6	61.4	236.6
	증가율	-1.8	-5.5	2.7	-6.5	-2.7	3.6	5.1	-0.2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6, 3),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5년 4/4분기 소득보상보험¹⁴⁾ 신규보험료는 Non-cancellable¹⁵⁾과 Guaranteed Renewable¹⁶⁾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21.5% 성장한 1억 6,180만 달러를 기록함.

○ Guaranteed Renewable은 전년동기대비 57.5% 증가한 6,910만 달러임.

○ Non-cancellable은 9,27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 성장함.

- 상위 10개 사 중 7개 사의 Non-cancellable의 판매가 증가함.

14)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업불능이 되었을 경우 소득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임.

15)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16)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 2015년 연간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는 Non-cancellable과 Guaranteed Renewable이 모두 감소하며 전년대비 2.6% 감소한 5억 6,300만 달러를 기록함.

○ Guaranteed Renewable과 Non-cancellable은 각각 전년대비 5.6%, 0.7% 감소한 2억 2,770만 달러, 3억 3,530만 달러임.

〈표 3〉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계약 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수	67.4	66.6	298.7	108.6	79.6	74.7	115.3	378.2
		증가율	-10.5	-9.5	-3.8	6.7	26.6	10.9	73.0	26.6
		구성비	60.8	60.3	65.8	76.3	69.0	60.4	70.1	69.3
	Non- cancellable	건수	43.5	43.9	155.1	33.7	35.7	49.0	49.1	167.6
		증가율	7.8	1.9	0.5	3.8	1.2	12.7	12.0	8.0
		구성비	39.2	39.7	34.2	23.7	31.0	39.6	29.9	30.7
	전체	건수	110.9	110.5	453.9	142.4	115.3	123.7	164.4	545.8
		증가율	-4.3	-5.3	-2.4	6.0	17.5	11.6	48.8	-2.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 보험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44.5	43.9	190.0	63.8	53.0	41.8	69.1	227.7
		증가율	-8.6	-11.9	-5.6	5.8	28.2	-6.0	57.5	-5.6
		구성비	34.1	32.9	37.6	48.7	40.6	29.9	42.7	37.6
	Non- cancellable	보험료	86.1	89.4	315.8	67.2	77.5	97.9	92.7	335.3
		증가율	1.7	3.8	-0.7	1.8	4.3	13.8	3.7	-0.7
		구성비	65.9	67.1	62.4	51.3	59.4	70.1	57.3	62.4
	전체	보험료	130.6	133.2	505.8	131.0	130.5	139.7	161.8	563.0
		증가율	-2.0	-2.0	-2.6	3.7	12.9	7.0	21.5	-2.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6, 3),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Sales.

라. 손해보험

■ 2015년 4/4분기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1,21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발생손해액은 90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함.

○ 원수손해율은 74.4%로 전년동기대비 6.2%p 상승함.

- 손해보험산업의 2015년 4/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0.3% 감소한 126억 달러임.
 - 총보험영업이익은 1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0.3%가 감소함.
 - 총투자영업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이익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실현자본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년동기대비 3.4% 줄어든 약 129억 달러임.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한 124억 달러임.
 - 실현자본이익은 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2.8% 감소함.
- 2015년 4/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94.9%에서 약 5.6%p 상승한 100.5%로 악화됨.
- 2015년 4/4분기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10.6%에서 3.1%p 하락한 7.5%를 나타냄.
- 2015년 연간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5,13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지급보험금은 3,502억 달러로 전년대비 4.5% 증가함.
 - 원수손해율은 68.2%로 전년동기대비 0.8%p 상승하며 악화됨.
- 2015년 연간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567억 달러임.
 - 총보험영업이익은 8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8.4%가 감소함.
 - 총투자영업이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567억 달러를 기록함.
- 2015년 연간 합산비율은 전년 97.0%에서 0.8%p 악화된 97.8%임.
- 2015년 연간 자기자본이익률은 8.4%로 전년과 같은 수준임.

<표 4> 미국 손해보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¹⁾		2014			201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수보험료	금액	130,684	119,603	497,025	125,863	130,586	135,994	121,282	513,725
	증가율	3.7	4.8	4.2	3.7	4.4	4.1	1.3	3.4
발생손해액	금액	85,041	81,628	334,955	81,865	89,399	88,701	90,204	350,169
	증가율	9.6	2.7	6.3	1.7	2.0	4.3	10.4	4.5
원수손해율		65.1	68.2	67.4	65.0	68.5	65.2	74.4	68.2
보험영업이익	금액	4,202	9,294	14,626	4,822	-415	4,021	2,832	11,260
	증가율	-49.9	49.6	-17.7	59.6	-77.4	-4.3	-69.4	-23.0
계약자 배당금	금액	256	1,264	2,415	738	258	271	1,252	2,519
	증가율	-1.9	1.0	-3.9	10.5	-2.6	5.9	1.0	4.3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3,946	8,030	12,212	4,085	-673	3,750	1,580	8,742
	증가율	-51.4	61.9	-19.9	73.5	-68.0	-5.0	-80.3	-28.4
투자영업이익	금액	11,438	11,861	46,361	11,685	11,734	11,457	12,379	47,255
	증가율	4.0	-9.2	-2.1	4.6	-0.7	0.2	4.0	1.9
실현자본이익	금액	1,607	1,301	10,280	4,674	3,500	680	545	9,399
	증가율	-24.9	-75.7	-9.6	59.2	-17.7	-57.7	-62.8	-8.6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3,045	13,162	56,641	16,359	15,234	12,137	12,924	56,654
	증가율	-0.7	-28.6	-3.5	16.0	-5.2	-7.0	-3.4	0.0
세전영업이익 ²⁾	금액	12,881	19,017	55,910	15,608	11,965	15,592	14,196	57,361
	증가율	-34.6	2.2	-12.7	13.3	17.9	21.0	-25.6	2.6
당기순이익	금액	11,823	17,849	55,870	18,172	12,834	13,062	12,588	56,656
	증가율	-35.4	-13.8	-11.9	31.1	5.8	10.5	-30.3	1.4
자기자본 (Surplus) ³⁾	금액	674,448	674,714	675,234	671,726	672,439	663,868	673,686	673,686
	증가율	8.1	3.3	3.3	1.5	0.1	-1.6	-0.2	-0.2
지급준비금	금액	579,274	575,607	575,824	575,256	579,099	580,974	583,069	583,069
	증가율	1.1	0.4	0.4	0.3	0.1	0.3	1.3	1.3
자기자본이익률 ⁴⁾		7.0	10.6	8.4	10.8	7.6	7.8	7.5	8.4
합산비율		95.5	94.9	97.0	95.7	99.4	95.7	100.5	97.8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총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3)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살펴보는 지표로 사용되며, 보험계약자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값을 의미함.

4) 자기자본(surplus)에 대한 이익률로 rate of return on average surplus로 표기함.

자료: ISO(2016, 5), Property/Casualty Insurance Results: 2015.

참고 미국 생·손보 지급률(손해율) 및 주요 지표

◆ 생명보험 지급률 및 주요 지표

- 미국 생명보험 2015년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6,076억 달러이며,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4,280억 달러임.
- 지급률은 70.4%로 전년대비 0.9%p 하락함.
- 침투도는 3.3%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밀도는 1,875달러로 전년대비 73달러 증가함.

〈참고 표 1〉 생명보험 지급률 및 주요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¹⁾
수입보험료 (Net Written Premiums)	493,582 11.6	546,672 10.8	585,896 7.2	497,729 -15.0	592,912 19.1	607,613 2.5
지급보험금 (Paid Claims)	389,416 1.0	402,882 3.5	424,602 5.4	399,522 -5.9	422,587 5.8	428,007 1.3
지급률 ²⁾	78.9	73.7	72.5	80.3	71.3	70.4
침투도 ³⁾	3.2	3.2	3.2	3.3	3.3	3.3
밀도 ⁴⁾	1,566	1,608	1,672	1,740	1,802	1,875

주: 1) 2015년 수치는 Timetric 전망치임.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3) 보험침투도는 명목 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로 이는 한 국가의 보험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임.

4)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수치로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자료: Timetric.

◆ 손해보험 손해율 및 주요 지표

- 미국 손해보험 2015년 경과보험료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4,982억 달러이며, 발생손해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3,709억 달러임.
- 손해율은 67.7%로 전년대비 0.4%p 상승함.

○ 사업비율은 33.4%로 전년대비 0.5%p 하락함.

○ 합산비율은 101.1%로 전년대비 0.1%p 하락하여 소폭 개선됨.

■ 침투도는 3.4%로 전년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밀도는 1,922달러로 전년대비 31달러 증가함.

〈참고 표 2〉 손해보험 손해율 및 주요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¹⁾
경과보험료 (Net Earned Premiums)	418,706	431,337	450,391	473,649	489,805	498,206
	0.2	3.0	4.4	5.2	3.4	1.7
발생손해액 (Incurred Loss)	300,959	334,244	325,357	310,841	329,526	337,085
	1.8	11.1	-2.7	-4.5	6.0	2.3
손해율	71.9	77.5	72.2	65.6	67.3	67.7
사업비율	34.4	34.5	34.6	34.5	33.9	33.4
합산비율	106.3	111.9	106.8	100.1	101.2	101.1
침투도 ²⁾	3.6	3.8	4.0	3.5	3.5	3.4
밀도 ³⁾	1,761	1,912	2,034	1,859	1,891	1,922

주: 1) 2015년 수치는 Timetric 전망치임.

2) 보험침투도는 명목 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로 이는 한 국가의 보험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임.

3)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수치로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자료: Timetric.

◆ 자산 현황

■ 미국 생명보험 2015년 총자산은 5조 895억 달러로 전년대비 5.4% 증가함.

■ 2015년 미국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1조 8,432억 달러임.

〈참고 표 3〉 보험산업 자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¹⁾
생명보험	3,889,347	4,119,956	4,391,501	4,595,506	4,830,321	5,089,470
	6.0	5.9	6.6	4.6	5.1	5.4
손해보험	1,570,624	1,584,408	1,704,640	1,739,275	1,790,776	1,843,157
	-0.7	0.9	7.6	2.0	3.0	2.9

주: 1) 2015년 수치는 Timetric 전망치임.

자료: Timetric.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 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아 민영건강보험이 발달해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의료공급 조직(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등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건강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영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손해보험산업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를 중심으로 작성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82개사	80%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2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9개사	-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¹⁷⁾

가. 생명보험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 2016년 1/4분기 생명보험 보험료 규모는 신규보험료¹⁸⁾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한 151억 4,041만 파운드임.
- 2016년 1/4분기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한 2억 9,595만 파운드임.
- 2016년 1/4분기 투자 및 저축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한 20억 9,067만 파운드임.
- 2016년 1/4분기 연금 부문¹⁹⁾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한 103억 2,781만 파운드임.
 - 순수개인형연금(Individual Pension)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하여 32억 760만 파운드임.
 - 단체개인형연금(Work-based Pension)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3.5% 증가한 24억 962만 파운드임.
 -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한 47억 1,060만 파운드임.

17)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1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18)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19) 연금부분은 개인연금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되는데, 개인연금계좌는 근로자와 연금사업자 간 개인계약(personal contract-based)으로, 순수개인형(Individual Pension)과 단체개인형(Work-based Pension)으로 구분됨. 순수개인형 연금은 보험료를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Self-Invested Personal Pension) 등으로 구분하며, 단체개인형 연금은 보험료를 직장이 일정 부분 보조하는 형태로 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Group SIPP 등으로 구분함.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은 사용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신탁에 근거한 연금으로,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TIP(Trustee Investment Plan), Bulk Buyout 등으로 구분함.

■ 2016년 1/4분기 퇴직소득보험²⁰⁾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2.1% 증가한 24억 2,598만 파운드임.

〈표 5〉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상품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보장성보험 (Protection)	금액	293.9	302.6	286.5	289.2	1,172.2	295.9
	증가율	-6.3	4.2	-2.7	3.1	-0.6	0.7
	구성비	2.1	1.4	1.4	1.4	1.5	2.0
투자 및 저축성 상품 (Investments & Saving)	금액	1,872.6	2,026.8	2,105.4	2,164.3	8,169.0	2,090.7
	증가율	-4.9	3.9	-8.3	1.5	-2.1	11.6
	구성비	13.2	9.2	10.5	10.4	10.6	13.8
투자형상품 (Investment)	금액	1,118.5	1,144.3	1,225.4	1,203.7	4,691.9	1,223.1
	증가율	3.6	6.6	4.7	-6.9	1.6	9.4
	구성비	7.9	5.2	6.1	5.8	6.1	8.1
역외영업 (Offshore)	금액	747.9	876.7	872.9	953.9	3,451.3	859.8
	증가율	-15.4	0.5	-22.0	14.2	-7.0	15.0
	구성비	5.3	4.0	4.3	4.6	4.5	5.7
연금 상품 (Pension)	금액	10,227.1	17,365.6	14,961.1	15,895.1	58,448.8	10,327.8
	증가율	-18.2	33.7	55.5	2.6	15.5	1.0
	구성비	71.9	79.0	74.5	76.6	75.8	68.2
순수개인형 (Individual)	금액	3,194.7	3,741.2	3,560.4	3,475.1	13,971.4	3,207.6
	증가율	60.7	81.6	75.6	66.3	71.1	0.4
	구성비	22.5	17.0	17.7	16.7	18.1	21.2
단체개인형 (Work-Based)	금액	1,950.8	2,185.1	2,050.4	3,333.8	9,520.1	2,409.6
	증가율	-22.1	-16.3	1.1	45.3	0.9	23.5
	구성비	13.7	9.9	10.2	16.1	12.4	15.9
퇴직연금 (Trust-based)	금액	5,081.5	11,439.3	9,350.3	9,086.2	34,957.3	4,710.6
	증가율	-36.6	37.6	68.0	-18.2	5.9	-7.3
	구성비	35.7	52.0	46.6	43.8	45.4	31.1
퇴직소득보험 (Retirement Income)	금액	1,836.4	2,294.4	2,724.9	2,415.6	9,271.2	2,426.0
	증가율	-39.8	-10.4	16.9	23.6	-6.3	32.1
	구성비	12.9	10.4	13.6	11.6	12.0	16.0
전체	금액	14,229.9	21,989.4	20,077.8	20,763.7	77,060.9	15,140.4
	증가율	-20.2	23.6	38.1	4.6	10.0	6.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20) 퇴직소득(Retirement Income)보험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을 활용하여 소득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일시납 수령형태만 있으며 종신연금(Pension Annuity),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6년 1/4분기 정기납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자문(independent advice),²¹⁾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²²⁾ 無자문(non-advised)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정기납 판매 중 독립자문 채널을 통한 판매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5%p 감소한 67.0%를 기록하였으며, 종목별로는 퇴직연금계좌(72.5%), 보장성보험(67.8%), 퇴직연금(33.2%), 투자 및 저축보험(23.0%) 순임.
 - 제한적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8.3%p 증가한 19.4%를 기록하였으며, 종목별로는 퇴직연금계좌(20.8%), 투자 및 저축보험(18.2%), 보장성보험(17.5%), 퇴직연금(13.1%) 순으로 나타남.
 - 無자문 채널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6.7%p 감소한 13.6%로,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58.8%), 퇴직연금(53.6%), 보장성보험(14.7%), 퇴직연금계좌(6.7%) 순임.
- 2016년 1/4분기 일시납 신규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채널 비중 크기는 독립 자문, 제한적 자문, 無자문 순으로 나타남.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독립자문 채널을 통한 신규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5%p 감소한 55.2%임.
 - 종목별로는 보장성보험의 독립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 비중이 91.0%로 가장 높으며, 퇴직연금계좌(84.0%), 투자 및 저축보험(81.6%), 퇴직소득보험(50.1%), 퇴직연금(35.3%) 순임.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 채널의 판매비중은 전년동기대비 4.2% 감소한 12.9%임.
 - 종목별로는 퇴직연금의 제한적 자문 채널 모집 비중이 18.7%로 가장 높으며, 투자 및 저축보험(17.1%), 퇴직소득보험(11.5%), 퇴직연금계좌(7.7%), 보장성보험(1.8%) 순임.
 - 無자문 채널의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25.4%로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함.

21) 독립적 자문(independent advice)은 상품공급업자에게 구속받지 않고 특정 시장의 전체 상품을 포괄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22)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은 복수의 상품공급업자 상품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종목별로는 퇴직연금과 퇴직소득보험의 경우 無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비중이 각각 46.0% 38.5%로 나타남.
- 투자 및 저축보험과 보장성보험의 경우 無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표 6〉 2016년 1/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독립 자문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¹⁾ (Restricted Advice)		無자문 ²⁾ (Non-advised)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투자 및 저축보험	23.0	81.6	18.2	17.1	58.8	1.3
퇴직연금계좌	72.5	84.0	20.8	7.7	6.7	8.3
퇴직연금	33.2	35.3	13.1	18.7	53.6	46.0
보장성보험	67.8	91.0	17.5	1.8	14.7	7.2
퇴직소득보험	-	50.1	-	11.5	-	38.5
전체 ³⁾	67.0	55.2	19.4	12.9	13.6	25.4

주: 1) 독립중개인(WoM), 단일 전속(Single Tied)과 다중 전속(Multi Tied)설계사 포함.

2) 보험회사의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포함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3) 각 채널별 신규보험료를 합산하여 재계산함.

4) 비중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는 채널 파악이 안된 경우로 보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2016년 1/4분기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신규보험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20.6% 감소한 1억 8,329만 파운드를 기록함.

○ 방카슈랑스를 통한 정기납 보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2.2% 감소한 1,599만 파운드로 전체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의 약 9% 가량을 차지함.

- 이는 보장성보험 판매가 28.0% 감소한 것에 기인함.

○ 방카슈랑스를 통한 일시납 보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0.4% 감소한 1억 6,730만 파운드임.

- 이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일시납 보험상품 판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 및 저축보험이 9.2%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역외영업 신규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표 7〉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방카슈랑스 판매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정기납						일시납						
	2015					2016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1/4	2/4	3/4	4/4	연간	1/4	
투자 및 저축보험	0.1	0.2	0.1	0.2	0.6	0.1	117.9	112.3	132.4	107.2	469.8	128.8	
	(-55.7)	(-5.2)	(500.0)	(56.0)	(-1.8)	(0.6)	(2.4)	(2.7)	(4.7)	(-14.0)	(-1.2)	(9.2)	
퇴직연금계좌	3.8	4.0	5.2	4.3	17.2	4.2	16.8	17.2	10.9	12.1	56.9	26.0	
	(-68.0)	(-49.6)	(-16.8)	(-37.1)	(-47.5)	(9.1)	(-40.7)	(-46.6)	(-41.0)	(-29.4)	(-40.7)	(55.0)	
퇴직연금	0.4	0.0	0.0	0.0	0.4	0.0	0.0	2.6	0.0	0.0	2.6	0.0	
	(-)	(-57.1)	(-100.0)	(-)	(943.6)	(-100.0)	(-100.0)	(-93.6)	(-100.0)	(-100.0)	(-97.5)	(-99.2)	
역외영업	0.0	0.0	0.0	0.0	0.2	0.1	62.6	91.1	72.3	75.1	301.2	0.0	
	(-11.1)	(-32.1)	(-31.0)	(15.8)	(-17.8)	(39.4)	(-33.6)	(19.0)	(2.5)	(4.1)	(-3.9)	(-100.0)	
보장성보험	16.2	11.6	12.4	12.1	52.2	11.6	3.8	3.6	4.7	3.8	15.9	3.5	
	(-39.8)	(-51.1)	(-44.4)	(-29.0)	(-41.9)	(-28.0)	(-13.9)	(-38.3)	(15.8)	(8.8)	(-10.8)	(-5.6)	
퇴직소득보험 ¹⁾	-	-	-	-	-	-	9.1	6.8	6.6	8.4	30.8	9.0	
	-	-	-	-	-	-	(-71.8)	(-67.3)	(-70.4)	(-46.0)	(-66.0)	(-0.5)	
전체	20.6	15.8	17.7	16.5	70.5	16.0	210.2	233.6	226.8	206.6	877.2	167.3	
	(-47.5)	(-50.4)	(-38.1)	(-30.8)	(-42.8)	(-22.2)	(-36.1)	(-18.1)	(-8.2)	(-12.7)	(-20.1)	(-20.4)	

주: 1) 별도 취합된 퇴직소득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를 합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참고 영국 생·손보 지급률(손해율) 및 주요 지표

◆ 생명보험

- 2015년 연간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8% 증가한 1,281억 파운드이며, 연간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1,600억 파운드임.
- 지급률은 124.9%로 전년대비 0.8%p 하락함.
- 침투도는 7.8%로 전년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밀도는 2,266파운드로 전년대비 42파운드 증가함.

〈참고 표 1〉 생명보험 지급률 및 주요 지표

(단위: 백만 파운드, %, 파운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¹⁾
수입보험료 (Net written premiums)	109,704	108,538	117,802	116,107	124,595	128,093
	-7.4	-1.1	8.5	-1.4	7.3	2.8
지급보험금 (Paid Claims)	137,753	139,332	146,453	151,748	156,557	159,963
	-1.5	1.1	5.1	3.6	3.2	2.2
지급률 ²⁾	125.6	128.4	124.3	130.7	125.7	124.9
침투도 ³⁾	8.8	8.9	9.3	9.1	7.9	7.8
밀도 ⁴⁾	2,208	2,307	2,431	2,471	2,224	2,266

주: 1) 2015년 수치는 Timetric 전망치임.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3) 보험침투도는 명목 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로 이는 한 국가의 보험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임.

4) 보험밀도는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수치로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자료: Timetric.

◆ 손해보험

- 2015년 연간 경과보험료는 1.6% 증가한 269억 파운드이며, 발생손해액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99억 파운드임.
- 손해율은 73.9%로 전년대비 0.4%p 하락함.

○ 사업비율은 44.9%로 전년대비 0.4%p 하락함.

○ 합산비율은 118.8%로 전년대비 0.8%p 하락함.

■ 침투도는 2.5%로 전년과 동일하며, 밀도는 712파운드로 전년대비 7파운드 증가함.

〈참고 표 2〉 손해보험 손해율 및 주요 지표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¹⁾
경과보험료 (Net earned Premiums)	26,262	26,947	27,491	26,721	26,578	26,867
	2.9	7.4	-7.2	0.7	-9.6	1.6
발생손해액 (Incurred Loss)	21,068	20,376	20,314	20,488	19,749	19,860
	-7.5	-3.3	-0.3	0.9	-3.6	0.6
손해율	80.2	75.6	73.9	76.7	74.3	73.9
사업비율	37.8	36.7	41.6	45.0	45.3	44.9
합산비율	118.0	112.3	115.5	121.7	119.6	118.8
침투도 ²⁾	3.2	3.3	3.0	2.9	2.5	2.5
밀도 ³⁾	794	847	783	784	705	712

주: 1) 2015년 수치는 Timetric 전망치임.

2) 보험침투도는 명목 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로 이는 한 국가의 보험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임.

3) 보험밀도는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수치로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자료: Timetric.

◆ 자산 현황

■ 2015년 영국 생명보험 총자산은 1조 3,197억 파운드로 전년대비 0.6% 증가함.

■ 2015년 영국 손해보험 총자산은 248억 파운드로 전년대비 1.5% 증가함.

〈참고 표 3〉 보험산업 자산 현황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¹⁾
생명보험	1,323,890	1,329,317	1,410,411	1,449,526	1,311,589	1,319,664
	3.0	0.4	6.1	2.8	-9.5	0.6
손해보험	20,416	20,054	24,965	24,058	24,441	24,818
	-10.7	-1.8	24.5	-3.6	1.6	1.5

주: 1) 2015년 수치는 Timetric 전망치임.

자료: Timetric.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연간자료만 발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역외영업의 경우 투자·저축성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표시하지 않음.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은 퇴직자의 연금재원이 분배되는 단계의 보험으로서 종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	순수개인형연금
Work-based Pension	단체개인형연금
Trust-based Pension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보험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²³⁾

가.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 FY2015 4/4분기 생명보험 전체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5% 성장하며 22조 9,998억 엔을 나타냄.

- 개인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18조 7,809억 엔을 기록함.
 - 사망보험의 경우 정기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였고 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함.
 - 생사혼합보험인 양로보험(정기양로보험 포함)은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하였으며 기타 생사혼합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4.3% 증가함.
 - 생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하며 4,721억 엔으로 집계됨.
- 한편, 개인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2.2% 늘어나며 2조 4,303억 엔으로 나타남.
 - 정액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6.3% 증가하였지만 변액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1.3% 감소함.
- 단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73.2% 증가한 1조 7,886억 엔을 기록함.
 - 단체정기보험(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²⁴⁾ 포함)은 전년동기대비 38.3% 감소하였지만, 단체신용생명보험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23)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24)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은 임직원 사망 시 또는 고도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을 말함.

〈표 8〉 일본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억 엔, %)

구분 ¹⁾		FY2014	FY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개인	금액	699,041	177,605	183,457	183,689	187,809	732,560
	증가율	3.2	7.4	5.6	3.2	3.2	4.8
	구성비	85.6	85.8	88.2	87.6	81.7	85.7
	사망 ²⁾	금액	595,900	147,699	153,820	152,514	155,898
		증가율	6.1	5.8	4.4	-0.1	-0.3
		구성비	73.0	71.3	74.0	72.7	67.8
	정기보험	금액	310,991	74,558	80,049	81,016	83,187
		증가율	6.9	3.8	2.1	1.1	3.2
	종신보험	금액	152,084	37,635	37,475	37,408	42,865
		증가율	4.7	10.9	2.1	-4.2	1.1
	생사혼합	금액	84,697	26,500	25,616	26,803	27,190
		증가율	-22.5	27.5	18.5	27.6	27.7
		구성비	10.4	12.8	12.3	12.8	11.8
	양로보험 ³⁾	금액	46,789	12,120	12,128	12,659	12,979
		증가율	-14.1	3.7	-3.1	13.7	13.4
	기타	금액	33,179	12,345	11,475	12,125	12,194
		증가율	-35.1	53.1	42.7	40.6	44.3
	생존	금액	18,444	3,405	4,021	4,372	4,721
		증가율	184.9	-32.5	-15.4	3.5	6.9
		구성비	2.3	1.6	1.9	2.1	2.1
개인연금	금액	86,553	20,116	19,085	20,046	24,303	83,550
		증가율	8.6	-5.7	-11.8	-8.5	12.2
		구성비	10.6	9.7	9.2	9.6	10.6
	정액연금	금액	70,019	16,063	15,185	16,741	21,659
		증가율	-0.7	-10.8	-11.1	-5.9	26.3
	변액연금	금액	16,534	4,054	3,900	3,304	2,643
		증가율	79.9	21.8	-14.6	-20.1	-41.3
단체보험	금액	30,609	9,383	5,441	6,026	17,886	38,736
		증가율	-31.7	-9.6	1.1	33.1	73.2
		구성비	3.8	4.5	2.6	2.9	7.8
	단체정기 ⁴⁾	금액	20,888	7,530	3,954	4,512	5,456
		증가율	-40.6	72.8	-9.3	35.7	-38.3
	단체산용생명	금액	9,722	1,853	1,487	1,514	12,431
		증가율	0.7	-69.2	45.8	25.9	739.4
합계	금액	816,204	207,104	207,983	209,761	229,998	854,845
	증가율	1.8	5.1	3.6	2.6	7.5	4.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생명보험 전체 실적대비 기준 구성비임.

2) FY2015 4/4분기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기부 종신 보험(定期付終身保險)과 이율 변동형 적립 종신 보험(利率變動型積立終身保險) 신규보험료가 각각 38.5%, 32.6% 감소하며 사망보험이 0.3% 감소함.

3) 양로보험은 정기양로보험을 포함함.

4) 단체정기보험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을 포함함.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지급률〉

■ FY2015 생명보험 지급률은 80.6%로 FY2014 88.2%보다 7.6%p 하락하며 FY2013 이후 하락세가 지속됨.

-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4% 증가하였고, 지급보험금은 7.3% 감소하여 지급률이 개선됨.
- 사업비는 전년대비 23.3% 증가한 7조 1,796억 엔을 기록함.

〈표 9〉 일본 생명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¹⁾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입보험료	금액	362,891	371,406	347,382	372,224	377,481
	증가율	5.3	2.3	-6.5	7.2	1.4
지급보험금	금액	298,854	294,967	319,978	328,233	304,320
	증가율	-3.8	-1.3	8.5	2.6	-7.3
지급률 ²⁾		82.4	79.4	92.1	88.2	80.6
사업비		62,429	60,842	57,350	58,247	71,796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5 4/4분기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규모는 전분기대비 0.1% 감소한 367조 1,679억 엔을 기록함.

- 현금 및 예금의 자산 규모는 전분기보다 58.7% 증가하였지만, 단기자금은 전분기보다 72.5% 감소함.
- 반면, 매입금전채권과 금전신탁은 각각 전분기대비 3.0%, 1.0% 줄어들었으며, 운용자산도 전분기대비 0.4% 감소함.
- 동 기간 유가증권은 지방채와 주식을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0.1% 증가하며 300조 5,235억 엔을 나타냄.
 - 국채와 회사채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0.7%, 1.8%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전분기와 동일함.
 - 반면, 주식 규모는 전분기대비 12.2% 감소하였고, 외화증권 규모는 2.6% 증가함.

〈표 10〉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증가율^{1),2)}

(단위: 억 엔, %)

구분	FY2014		FY2015							
	4/4		1/4		2/4		3/4		4/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56,080	17.0	43,772	-21.9	51,574	17.8	46,986	-8.9	74,584	58.7
단기자금	36,730	17.9	29,610	-19.4	42,912	44.9	46,569	8.5	12,809	-72.5
매입금전채권	27,908	0.6	27,724	-0.7	29,798	7.5	25,342	-15.0	24,572	-3.0
금전신탁	33,326	0.9	35,572	6.7	35,956	1.1	37,376	3.9	37,013	-1.0
유가증권	2,994,295	0.1	3,027,827	1.1	2,978,104	-1.6	3,001,722	0.8	3,005,235	0.1
- 국채	1,487,617	-0.2	1,491,066	0.2	1,486,502	-0.3	1,475,890	-0.7	1,485,685	0.7
- 지방채	138,686	-1.2	137,297	-1.0	136,997	-0.2	135,144	-1.4	135,179	0.0
- 회사채	248,553	-0.4	244,657	-1.6	248,621	1.6	249,038	0.2	253,635	1.8
- 주식	226,979	8.9	237,381	4.6	208,875	-12.0	225,713	8.1	198,130	-12.2
- 외화증권	732,805	-0.6	762,245	4.0	751,731	-1.4	766,972	2.0	786,532	2.6
대출금	368,103	-1.7	365,089	-0.8	359,140	-1.6	357,548	-0.4	349,869	-2.1
부동산	62,410	-0.6	62,566	0.2	62,538	0.0	62,361	-0.3	61,571	-1.3
운용자산 ³⁾	3,609,993	0.4	3,623,009	0.4	3,594,161	-0.8	3,612,679	0.5	3,599,269	-0.4
비운용자산	62,559	-1.2	63,674	1.8	63,934	0.4	63,362	-0.9	72,410	14.3
총자산 ⁴⁾	3,672,552	0.3	3,686,683	0.4	3,658,095	-0.8	3,676,041	0.5	3,671,679	-0.1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전분기대비 증가율.

3)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 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4)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당기순이익, ROE, ROA〉

■ FY2015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FY2014보다 12.7% 감소한 1조 3,383억 엔을 나타내었으며, FY2015 자기자본이익률과 총자산이익률은 각각 5.7%, 0.4%를 기록함.

○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대비 0.2%p 하락한 5.7%를 기록함.

- 자본은 전년대비 10.4% 감소한 23조 3,989억 엔을 기록함.
- 총자산이익률은 2013년 이후 동일한 0.4%가 지속됨.
- 총자산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367조 1,679억 엔을 기록함.

〈표 11〉 일본 생명보험 실적

(단위: 억 엔, %)

구분 ¹⁾		2011	2012	2013	2014	2015
당기순이익	금액	7,877	11,274	14,344	15,336	13,383
	증가율	-21.1	43.1	27.2	6.9	-12.7
총자산	금액	3,269,529	3,449,981	3,505,826	3,672,552	3,671,679
	증가율	2.0	5.5	1.6	4.8	0.0
자본	금액	114,829	163,244	181,514	261,270	233,989
	증가율	18.6	42.2	11.2	43.9	-10.4
자기자본이익률		6.9	6.9	7.9	5.9	5.7
총자산이익률		0.2	0.3	0.4	0.4	0.4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나.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현황〉

■ FY2015 4/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한 2조 1,682억 엔으로 집계됨.

- 화재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3.2% 감소하였고, 해상보험은 10.1% 줄어듦.
- 상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한 반면, 운송보험의 경우는 3.8% 증가함.
- 자동차보험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1조 15억 엔으로 집계되었지만, 자동차배상 책임보험은 7.0% 감소한 2,483억 엔으로 집계됨.
- 특종보험 중 배상책임보험과 이익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9%, 25.6% 증가하며,²⁵⁾ 특종보험의 전체 원수보험료는 9.9% 성장한 2,881억 엔으로 집계됨.

25) 일본손해보험협회 자료.

〈표 12〉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엔, %)

구분 ^{2),3)}		FY2014	FY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재	보험료	15,148	3,777	5,038	3,712	3,386	15,913
	증가율	4.3	4.2	44.7	-10.3	-13.2	5.1
	구성비	17.2	16.2	21.4	16.8	15.6	17.6
해상	보험료	2,227	602	541	526	515	2,184
	증가율	2.8	5.8	0.4	-3.5	-10.1	-1.9
	구성비	2.5	2.6	2.3	2.4	2.4	2.4
운송	보험료	642	172	155	161	166	654
	증가율	-0.3	0.0	2.0	2.5	3.8	1.9
	구성비	0.7	0.7	0.7	0.7	0.8	0.7
자동차	보험료	38,639	10,141	9,767	9,989	10,015	39,912
	증가율	3.0	4.1	3.7	2.8	2.5	3.3
	구성비	43.8	43.4	41.5	45.3	46.2	44.0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10,289	2,698	2,568	2,820	2,483	10,210
	증가율	0.6	4.5	3.3	11.2	-7.0	-0.8
	구성비	11.7	11.5	10.9	12.8	11.5	11.3
상해	보험료	10,373	2,888	2,467	2,402	2,237	9,995
	증가율	2.4	2.3	-6.7	-9.0	-1.3	-3.6
	구성비	11.8	12.4	10.5	10.9	10.3	11.0
특종	보험료	10,898	3,089	2,981	2,820	2,881	11,770
	증가율	3.9	2.8	8.9	11.2	9.9	8.0
	구성비	12.4	13.2	12.7	12.8	13.3	13.0
합계	보험료	88,217	23,367	23,517	22,071	21,682	90,637
	증가율	3.0	3.8	9.6	-0.9	-1.3	2.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FY2015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9조 637억 엔으로 집계됨.

- 화재보험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반면, 해상보험은 1.9% 줄어듦.
- 운송보험의 경우는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지만, 상해보험은 3.6% 감소함.
- 자동차보험 규모는 전년대비 3.3% 증가하였지만,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0.8% 감소함.
- 특종보험은 전년대비 8.0% 성장한 1조 1,770억 엔으로 집계됨.

〈지급률〉

■ FY2015 손해보험 지급률은 51.0%로 FY2014 52.9%보다 1.9%p 하락하며 FY2011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

-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9조 637억 엔을 기록함.
-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1.1% 감소한 4조 6,183억 엔을 기록함.

〈표 13〉 일본 손해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¹⁾		2011	2012	2013	2014	2015
원수보험료	금액	79,923	81,923	85,688	88,217	90,637
	증가율	3.2	2.5	4.6	3.0	2.7
지급보험금	금액	63,314	49,182	45,921	46,675	46,183
	증가율	46.9	-22.3	-6.6	1.6	-1.1
지급률 ²⁾		79.2	60.0	53.6	52.9	51.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5 4/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1.6% 감소한 30조 8,500억 엔으로 집계됨.

- 현금 및 예금은 전분기대비 24.1% 증가한 17,034억 엔을 기록한 반면, 단기자금은 전분기 대비 93.6% 감소한 407억 엔을 기록함.
- 환매조건부채권과 매입금전채권 규모도 전분기대비 각각 71.1%, 47.9% 감소한 1,130억 엔, 1,964억 엔을 기록하였고, 금전신탁 규모는 43.8% 증가한 1,994억 엔을 기록함.
- 유가증권의 경우 주식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1.2% 줄어듦.
 - 국채, 지방채와 회사채는 각각 전분기대비 3.3%, 7.3%, 5.6% 증가함.
 - 주식의 경우 전분기대비 14.7% 감소하였지만, 외화증권은 전분기대비 7.6% 증가함.
- 대출금과 비운용자산은 각각 전분기대비 23.5%, 3.8% 증가하였으나, 부동산과 운용자산은 각각 전분기대비 1.3%, 2.1% 감소함.

〈표 14〉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증가율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4		FY2015							
		4/4		1/4		2/4		3/4		4/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9,288	-2.3	9,227	-0.7	17,362	88.2	13,729	-20.9	17,034	24.1
단기자금		3,199	-4.9	4,422	38.2	8,627	95.1	6,402	-25.8	407	-93.6
환매조건부채권		1,735	-74.0	5,549	219.9	6,325	14.0	3,907	-38.2	1,130	-71.1
매입금전채권		4,453	108.4	3,785	-15.0	2,508	-33.7	3,771	50.3	1,964	-47.9
금전신탁		1,353	4.8	1,391	2.8	1,332	-4.2	1,387	4.1	1,994	43.8
유가증권	국채	64,809	-1.2	61,555	-5.0	57,996	-5.8	57,026	-1.7	58,935	3.3
	지방채	3,192	-0.6	3,073	-3.8	3,001	-2.3	3,198	6.6	3,432	7.3
	회사채	24,075	-0.9	23,595	-2.0	24,165	2.4	24,791	2.6	26,174	5.6
	주식	82,164	8.2	84,334	2.6	73,958	-12.3	78,245	5.8	66,767	-14.7
	외화증권	58,968	2.5	59,564	1.0	59,161	-0.7	67,865	14.7	73,029	7.6
	기타증권	2,315	-1.0	2,560	10.6	2,627	2.7	2,616	-0.4	2,632	0.6
	소계	235,523	2.9	234,680	-0.4	220,908	-5.9	233,743	5.8	230,969	-1.2
대출금		18,624	17.7	18,219	-2.2	15,142	-16.9	15,417	1.8	19,038	23.5
부동산		9,836	-0.6	9,777	-0.6	9,702	-0.8	9,613	-0.9	9,491	-1.3
운용자산		284,011	2.3	287,050	1.1	281,908	-1.8	287,969	2.1	282,027	-2.1
비운용자산 ²⁾		25,593	0.5	25,519	-0.3	26,015	1.9	25,507	-2.0	26,472	3.8
총자산		309,605	2.2	312,570	1.0	307,924	-1.5	313,476	1.8	308,500	-1.6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 전분기대비 증가율로서,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당기순이익, ROE, ROA〉

- FY2015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FY2014보다 50.4% 증가한 5,699억 엔을 나타냄.
-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대비 3.3%p 상승한 8.4%를 기록함.
 - 자본은 전년대비 8.2% 감소한 6조 8,160억 엔을 기록함.
- 총자산이익률은 전년대비 0.6%p 상승한 1.8%를 기록함.
 - 총자산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30조 8,500억 엔을 기록함.

〈표 15〉 일본 손해보험 실적

(단위: 억 엔, %)

구분 ¹⁾		2011	2012	2013	2014	2015
당기순이익	금액	-2,621	1,671	2,143	3,788	5,699
	증가율	-305.6	163.8	28.2	76.8	50.4
총자산	금액	279,958	284,598	289,298	309,605	308,500
	증가율	-5.7	-1.7	1.7	7.0	-0.4
자본	금액	43,270	53,207	58,137	74,277	68,160
	증가율	-9.3	23.0	9.3	27.8	-8.2
자기자본이익률		-6.1	3.1	3.7	5.1	8.4
총자산이익률		-0.9	0.6	0.7	1.2	1.8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참고 ▶ 일본 생·손보 지급률(손해율) 및 주요 지표¹⁾

◆ 생명보험

- 2015년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3.8% 증가하였고,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33조 2,052억 엔임.
- 지급률은 92.5%로 전년대비 1.5%p 하락함.
- 침투도는 7.2%로 전년대비 0.1%p 상승하였으며, 밀도는 284,801엔으로 전년대비 11,755엔 증가함.

〈참고 표 1〉 생명보험 지급률 및 주요 지표

(단위: 억 엔, %, 엔)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¹⁾
수입보험료 (Net written premiums)	금액	342,183	339,371	322,705	345,750	359,004
	증가율	4.2	-0.8	-4.9	7.1	3.8
지급보험금 (Paid Claims)	금액	295,762	291,789	316,773	324,836	332,052
	증가율	-3.8	-1.3	8.6	2.5	2.2
지급률 ²⁾		86.4	86.0	98.2	94.0	92.5
침투도 ³⁾		6.8	6.8	6.6	7.1	7.2
밀도 ⁴⁾		250,751	254,927	247,828	273,046	284,801

주: 1) 2015년 수치는 Timetric 전망치임.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3) 보험침투도는 명목 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로 이는 한 국가의 보험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임.

4)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수치로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자료: Timetric.

1) 일본 보험협회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손해보험

- 2015년 경과보험료는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으며, 발생손해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4조 1,637억 엔임.
- 손해율은 55.9%로 전년대비 0.3%p 하락함.
- 사업비율은 32.6%로 전년대비 0.1%p 하락함.
- 합산비율은 88.5%로 전년대비 0.4%p 하락하여 소폭 개선됨.
- 침투도는 1.7%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밀도는 66,106엔으로 전년대비 2,113엔 증가함.

〈참고 표 2〉 손해보험 손해율 및 주요 지표

(단위: 억 엔, %, 엔)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¹⁾
경과보험료 (Net earned premiums)	금액	76,260	71,500	72,193	73,308	74,492
	증가율	8.4	-6.2	1.0	1.5	1.6
발생손해액 (Incurred Loss)	금액	50,128	42,342	43,105	41,187	41,637
	증가율	22.3	-15.5	1.8	-4.4	1.1
손해율		65.7	59.2	59.7	56.2	55.9
사업비율		27.9	30.3	32.1	32.7	32.6
합산비율		93.6	89.5	91.8	88.9	88.5
침투도 ²⁾		1.5	1.5	1.6	1.7	1.7
밀도 ³⁾		55,282	57,218	62,068	63,994	66,106

주: 1) 2015년 수치는 Timetric 전망치임.

2) 보험침투도는 명목 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로 이는 한 국가의 보험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임.

3)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수치로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자료: Timetric.

◆ 자산 현황

- 일본 생명보험 2015년 총자산은 370조 4,354억 엔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함.
- 2015년 일본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25조 8,913억 엔임.

〈참고 표 3〉 보험산업 자산 현황

(단위: 억 엔,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¹⁾
생명보험	금액	3,223,941	3,389,559	3,435,360	3,597,631	3,704,354
	증가율	2.2	5.1	1.4	4.7	3.0
손해보험	금액	215,437	223,414	231,705	250,615	258,913
	증가율	-6.2	3.7	3.7	8.2	3.3

주: 1) 2015년 수치는 Timetric 전망치임.

자료: Timetric.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険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険会社資金運用状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해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해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4. 중국²⁶⁾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 2016년 1/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11,97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2.2% 증가함.
 - 손해보험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인보험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성장률은 대폭 상승함.
- 2016년 1/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25.1% 증가한 2,891억 위안임.
 - 인보험 증가율은 소폭 둔화되었으나 손해보험 증가율이 확대되면서 전체 증가율은 높아졌음.
- 사업비는 전년동기대비 19.9% 증가한 838억 위안으로 집계됨.

〈표 16〉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수입보험료	금액	20,235	8,425	5,277	5,338	5,242	24,283	11,979
	증가율 ²⁾	17.5	20.4	17.6	20.1	21.9	20.0	42.2
인보험	금액	13,031	6,446	3,238	3,445	3,158	16,288	9,825
	증가율 ²⁾	18.4	22.9	23.4	26.4	29.5	25.0	52.4
손해보험	금액	7,203	1,979	2,039	1,893	2,084	7,995	2,154
	증가율 ²⁾	16.0	12.6	9.3	10.1	12.0	11.0	8.9
지급보험금	금액	7,216	2,311	1,893	2,056	2,414	8,674	2,891
	증가율 ²⁾	16.1	24.3	13.2	20.5	22.0	20.2	25.1
인보험	금액	3,428	1,397	973	999	1,112	4,480	1,815
	증가율 ²⁾	23.6	36.3	22.7	28.4	33.6	30.7	29.9
손해보험	금액	3,788	915	920	1,058	1,302	4,194	1,076
	증가율 ²⁾	10.2	9.7	4.7	13.9	13.6	10.7	17.6
사업비	금액	2,796	699	794	811	1,033	3,337	838
	증가율 ²⁾	11.9	14.0	21.0	21.0	20.6	19.3	19.9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26)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국 보험산업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자산운용〉

- 2016년 1/4분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12.1% 증가한 13조 8,535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이 중 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7.3% 증가한 11조 9,943억 위안, 비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57.5% 증가한 1조 8,592억 위안임.
- 운용자산 중 주식 및 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예치금, 채권, 기타 자산은 모두 전분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식 및 주식형 펀드는 1조 6,821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0.9%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13.7%에서 12.1%로 하락함.
 - 예치금, 채권, 기타 자산은 각각 전분기대비 8.9%, 5.1% 13.1% 증가한 2조 6,510억 위안, 4조 392억 위안, 3조 6,219억 위안을 기록함.
 - － 예치금, 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1%, 29.2%로 전분기에 비해 0.6%p, 1.9%p 하락하였으나 기타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25.9%에서 26.1%로 상승함.

〈표 17〉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운용자산계	금액	93,314	98,941	103,685	103,935	111,795	111,795
	증가율 ³⁾						
	구성비	21.4	6.0	4.8	0.2	7.6	19.8
예치금	금액	91.9	91.0	90.7	89.9	90.5	90.5
	증가율 ³⁾						
	구성비	25,311	26,386	26,791	25,425	24,350	24,350
채권	금액	11.8	4.2	1.5	-5.1	-4.2	-3.8
	증가율 ³⁾						
	구성비	24.9	24.3	23.4	22.0	19.7	19.7
주식 및 주식형 펀드	금액	35,600	35,468	35,532	36,197	38,446	38,446
	증가율 ³⁾						
	구성비	6.7	-0.4	0.2	1.9	6.2	8.0
기타 자산 ⁴⁾	금액	35.0	32.6	31.3	31.3	31.1	31.1
	증가율 ³⁾						
	구성비	10,326	13,056	15,386	13,745	16,969	16,969
비운용자산계 ⁵⁾	금액	31.3	26.4	17.8	-10.7	23.5	64.3
	증가율 ³⁾						
	구성비	10.2	12.0	13.5	11.9	13.7	13.7
총자산	금액	22,078	24,031	25,976	28,569	32,030	32,030
	증가율 ³⁾						
	구성비	69.9	8.8	8.1	10.0	12.1	45.1
비운용자산계 ⁵⁾	금액	21.7	22.1	22.7	24.7	25.9	25.9
	증가율 ³⁾						
	구성비	8.277	9.762	10.612	11.845	11.802	11.802
총자산	금액	37.6	17.9	8.7	11.6	-0.4	42.6
	증가율 ³⁾						
	구성비	8.1	9.0	9.3	10.2	9.5	9.5
총자산	금액	101,591	108,703	114,297	115,780	123,598	123,598
	증가율 ³⁾						
	구성비	22.6	7.0	5.1	1.3	6.8	21.7
총자산	금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증가율 ³⁾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분기대비.

4) 기타 자산은 부동산, 인프라시설 자산 등이 있음.

5) 비운용자산은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이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²⁷⁾

〈수입보험료〉

- 2016년 1/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9,82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2.4% 증가함.
 - 생명보험,²⁸⁾ 건강보험,²⁹⁾ 상해보험 증가세가 모두 확대되면서 인보험 증가세도 확대됨.
- 2016년 1/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통형 상품 수입보험료의 급증으로 전년동기대비 50.2% 증가한 8,459억 위안을 기록함.
 - 낮은 시장금리 및 주식시장의 불황으로³⁰⁾ 최저보증이율인 3.5%를 보장하는 전통형 생명 상품은 판매실적이 급증하면서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87.8% 증가한 5,790억 위안을 기록함.³¹⁾
- 2016년 1/4분기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79.3%, 22.2% 증가한 1,169억 위안, 197억 위안을 기록함.
 - 건강보험 성장세의 확대는 2015년 5월 발표된 세금우대정책³²⁾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7)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28) 중국의 생명보험은 크게 전통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음. 배당금이 없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은 전통형 상품으로 통칭되며 투자형 상품은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 등이 해당됨.

29) 중국의 건강보험은 한국과 유사하며 의료보험, 질병보험, 소득보장보험, 간호보험 등이 있음.

30) 중국 5년 만기 국고채의 수익률은 2015년 11월 15일 이후부터 3.0% 미만의 수준에 그쳤으며, 상하이종합지수는 2016년 1월 8일 3,536에서 2016년 2월 25일 2,979로 하락함.

31) 中華人民共和國中央政府門戶網站(2016, 4), “一季度全國保費收入首破萬億”.

32) 중국 정부는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개인에게 연간 2,400위안 한도에서 소득세 세전 공제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표 18〉 인보험 수입보험료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보험료	13,031	6,446	3,238	3,445	3,158	16,288	9,825
	증가율 ²⁾	18.4	22.9	23.4	26.4	29.5	25.0	52.4
생명보험	보험료	10,902	5,633	2,477	2,685	2,446	13,242	8,459
	증가율 ²⁾	15.7	22.3	19.1	21.2	22.4	21.5	50.2
건강보험	보험료	1,587	652	594	591	574	2,410	1,169
	증가율 ²⁾	41.3	32.5	48.1	60.8	75.6	51.9	79.3
상해보험	보험료	543	161	168	169	138	636	197
	증가율 ²⁾	17.6	11.8	18.3	18.1	21.0	17.1	22.2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지급보험금〉

■ 2016년 1/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1,81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9.9% 증가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은 각각 1,544억 위안, 227억 위안, 4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29.2%, 34.6%, 34.1% 증가함.

〈표 19〉 인보험 지급보험금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보험금	3,428	1,397	973	999	1,112	4,480	1,815
	증가율 ²⁾	23.6	36.3	22.7	28.4	33.6	30.7	29.9
생명보험	보험금	2,728	1,195	778	771	822	3,565	1,544
	증가율 ²⁾	21.1	38.5	21.8	27.7	31.9	30.7	29.2
건강보험	보험금	571	169	162	186	247	763	227
	증가율 ²⁾	38.9	27.1	30.6	32.4	42.3	33.6	34.6
상해보험	보험금	128	33	34	42	43	152	44
	증가율 ²⁾	17.3	13.8	13.3	25.1	20.5	18.2	34.1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지급률〉

- 2016년 1/4분기 인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의 급증으로 전분기 35.2%에서 18.5%로 크게 하락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은 각각 전분기에 비해 15.4%p, 23.5%p, 8.4%p 하락함.

〈표 20〉 인보험 지급률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26.3	21.7	30.0	29.0	35.2	27.5	18.5
생명보험	25.0	21.2	31.4	28.7	33.6	26.9	18.2
건강보험	36.0	25.9	27.3	31.4	43.0	31.7	19.5
상해보험	23.7	20.5	20.2	25.0	30.9	23.9	22.5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6년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4/4분기와 비교할 때 상승한 데 반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하락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3.7%로 전분기에 비해 2.2%p 증가하였으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전분기 8.5%에서 6.3%로 하락함.
- 한편,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³³⁾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4.6%p 증가한 51.2%로 나타났으며,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ICBC-AXA Life, Bocomm Life, Generali China인 것으로 조사됨.

33)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는 China Life, Ping An Life, PICC Life, Sino Life, CPIC Life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0.9%, 11.1%, 7.2%, 6.6%, 5.4%임(2016년 1/4분기 기준).

〈표 21〉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사	62.5	60.3	57.2	53.6	46.6	55.6	51.2
		중·소형사 ³⁾	31.8	34.3	37.3	39.9	44.9	38.1	42.5
		소계	94.2	94.6	94.4	93.5	91.5	93.8	93.7
	외국계		5.8	5.4	5.6	6.5	8.5	6.2	6.3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³⁴⁾

■ 2016년 1/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15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함.

○ 손해보험 증가세의 축소는 자동차 판매량³⁵⁾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손해보험 주력상품인 자동차 보험 증가세가 축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22〉 손해보험 수입보험료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보험	보험료	7,203	1,979	2,039	1,893	2,084	7,995	2,154
	증가율 ²⁾	16.0	12.6	9.3	10.1	12.0	11.0	8.9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34) 중국은 원수보험료가 아니고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손해보험의 보험료를 발표하고 있음.

35) 2016년 1/4분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은 6.1%로 전분기에 비해 10.1%p 크게 하락하였음.

〈지급보험금〉

■ 2016년 1/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1,07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7.6% 증가함.

〈표 23〉 손해보험 지급보험금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보험	보험금	3,788	915	920	1,058	1,302	4,194	1,076
	증가율 ²⁾	10.2	9.7	4.7	13.9	13.6	10.7	17.6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지급률〉

■ 2016년 1/4분기 손해보험 지급률은 49.9%로 전분기에 비해 12.6%p 하락함.

〈표 24〉 손해보험 지급률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보험	52.6	46.2	45.1	55.9	62.5	52.5	49.9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6년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4/4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데 반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소폭 하락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3%p 상승한 98.1%로 나타났으나,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전분기 2.2%에서 1.9%로 하락함.
- 한편,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상위 3사³⁶⁾의 시장점유율은 64.5%로 전분기에 비해 1.9%p 상승하였으며,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AXA Tianping P&C, AIG, Liberty Mutual인 것으로 조사됨.

36)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PICC P&C, Ping An P&C, CIPC P&C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4.8%, 18.6%, 11.0%임(2016년 1/4분기 기준).

〈표 25〉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사	64.7	65.0	64.2	64.3	62.6	64.0	64.5
		중·소형사 ³⁾	33.1	33.1	33.8	33.6	35.2	33.9	33.6
		소계	97.8	98.1	97.9	97.9	97.8	97.9	98.1
	외국계		2.2	1.9	2.1	2.1	2.2	2.1	1.9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라. 연금보험³⁷⁾

■ 2016년 1/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26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였고, 누적 운용보험료는 4,323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3.7% 증가함.

○ 2015년 1/4분기 연금보험회사 수탁보험료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는 2016년 1/4분기 연금보험회사 수탁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표 26〉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4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수탁보험료 ²⁾	금액	607	256	248	166	204	874	264
	증가율 ²⁾	3.1	54.2	75.9	25.3	21.9	44.1	3.2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3,160	3,479	3,837	3,881	4,169	4,169	4,323
	증가율 ³⁾	26.6	10.1	10.3	1.2	7.4	31.9	3.7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3) 전분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web/site0/tab5179/>).

37) 중국은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연금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연금보험회사를 정식으로 허용함. 현재까지 중국 내에 설립된 연금보험회사는 타이핑, 평안, 런쑤우, 장장, 타이강 등 5개 회사임.

참고 중국 인·손보 지급률(손해율) 및 주요 지표

◆ 인보험

- 2015년 수입보험금은 전년대비 25.6% 증가한 1조 6,095억 위안,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12.7% 증가한 3,707억 위안임.
- 지급률은 23.0%로 전년대비 2.7%p 하락함.
- 보험침투도는 2.6%로 전년대비 0.1%p 상승하였으며, 보험밀도는 1,225위안으로 전년대비 223위안 증가함.

〈참고 표 1〉 인보험 지급률 및 주요 지표

(단위: 억 위안, %, 위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¹⁾
수입보험료	금액	9,966	10,634	11,306	12,816	16,095
	증가율	-8.0	6.7	6.3	13.4	25.6
지급보험금	금액	1,738	1,897	2,786	3,289	3,707
	증가율	21.6	9.2	46.8	18.1	12.7
지급률 ²⁾		17.4	17.8	24.6	25.7	23.0
보험침투도 ³⁾		2.1	2.4	2.4	2.5	2.6
보험밀도 ⁴⁾		802	822	856	1,002	1,225

주: 1) 2015년 수치는 Timetric 전망치임.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3) 보험침투도는 명목 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로 이는 한 국가의 보험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임.

4)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수치로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자료: Timetric.

◆ 손해보험

- 2015년 경과보험료는 전년대비 14.6% 증가한 6,729억 위안, 발생손해액은 전년대비 14.0% 증가한 4,157억 위안임.
- 손해율은 61.8%로 전년대비 0.3%p 하락함.

○ 사업비율은 32.0%로 전년대비 0.3%p 하락함.

○ 합산비율은 93.8%로 전년대비 0.6%p 하락하여 소폭 개선됨.

■ 보험침투도는 1.2%로 전년대비 0.1%p 상승하였으며, 보험밀도는 585위안으로 전년대비 56위안 증가함.

〈참고 표 2〉 손해보험 손해율 및 주요 지표

(단위: 억 위안, %, 위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¹⁾
경과보험료	금액	3,588	4,267	5,072	5,874	6,729
	증가율	28.4	18.9	18.9	15.8	14.6
발생손해액	금액	2,197	2,608	3,255	3,646	4,157
	증가율	15.6	18.7	24.8	12.0	14.0
손해율 ²⁾		61.2	61.1	64.2	62.1	61.8
사업비율		28.0	30.4	31.2	32.3	32.0
합산비율		89.2	91.5	95.4	94.4	93.8
보험침투도 ³⁾		1.0	1.0	1.1	1.1	1.2
보험밀도 ⁴⁾		344	395	458	529	585

주: 1) 2015년 수치는 Timetric 전망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3) 보험침투도는 명목 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로 이는 한 국가의 보험산업이 동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임.

4)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수치로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자료: Timetric.

◆ 자산 현황

■ 2015년 인보험 총자산은 10조 8,96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4.5% 증가함.

■ 2015년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년대비 13.2% 증가한 1조 5,433억 위안임.

〈참고 표 3〉 보험산업 자산 현황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¹⁾
인보험	금액	51,892	64,386	72,544	87,553	108,963
	증가율	16.3	24.1	12.7	20.7	24.5
손해보험	금액	7,721	9,292	10,693	13,631	15,433
	증가율	34.5	20.3	15.1	27.5	13.2

주: 1) 2015년 수치는 Timetric 전망치임.

자료: Timetric.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産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産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투자형 상품인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형 상품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産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신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부 록. 통계표

〈부록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4	3/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성장률	3.4	3.4	2.7	2.4	2.2	2.8	3.1	2.8
경상수지 ³⁾	24,108	20,665	26,451	22,439	27,918	29,108	26,406	24,076
수출 ⁴⁾	145,672	141,759	147,697	133,400	135,104	128,235	130,017	115,615
수입 ⁴⁾	130,957	132,840	129,351	111,767	110,497	107,960	106,275	93,558
실업률	3.7	3.3	3.2	4.1	3.8	3.4	3.1	4.3
금리	국고채(3년)	2.82	2.50	2.17	1.98	1.80	1.72	1.70
	회사채(3년)	3.25	2.89	2.51	2.26	2.04	1.98	2.07
소비자물가지수	109.13	109.36	108.90	109.37	109.71	110.10	110.06	110.49
환율	원/달러	1,030.38	1,025.76	1,086.72	1,100.26	1,097.77	1,167.80	1,157.69
	원/엔화	1,008.72	988.33	949.95	923.39	904.73	955.75	953.07
KOSPI	1,993.47	2,041.86	1,948.13	1,964.87	2,095.29	1,983.39	1,999.03	1,926.92
외환보유고	366,546	364,407	363,593	362,750	374,749	368,114	367,962	369,840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임.

3)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 수지를 모두 합한 값임.

4) 상품 수출 및 수입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부록 표 2〉 금융기관 수신

(단위: 억 원)

구분	2014			2015				2016	
	2/4	3/4	4/4	1/4	2/4	3/4	4/4	1/4	2/4
보험 ¹⁾	145,570	135,769	196,083	139,618	149,469	151,589	202,313	156,684	-
- 생보	110,963	104,478	165,865	104,840	114,114	121,369	162,090	120,205	-
수입보험료	264,960	255,554	327,771	273,358	278,525	271,624	348,629	289,933	-
지급보험금	153,998	151,076	161,906	168,518	164,412	150,255	186,539	169,728	-
- 손보	34,607	31,291	30,218	34,778	35,355	30,219	40,222	36,480	-
원수보험료	180,217	179,023	223,433	193,204	192,156	188,827	225,647	197,804	-
원수손해액	145,610	147,732	193,215	158,425	156,802	158,608	185,425	161,324	-
은행	250,005	76,442	391,862	138,338	370,258	407,283	412,913	169,501	271,653
- 일반 ²⁾	231,527	32,411	314,189	28,931	327,515	338,489	296,116	110,081	204,782
- 신탁	18,478	44,031	77,673	109,407	42,743	68,794	116,797	59,420	66,871
증권 ³⁾	19,088	53,478	-6,648	65,495	55,742	-3,238	4,222	-20,384	69,604
자산운용 ⁴⁾	16,946	196,161	160,044	278,994	163,004	80,769	-45,360	235,149	160,056
종금 ⁵⁾	2,733	826	3,420	-6,816	8,403	5,195	-1,453	4,634	10,854

주: 1) 보험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수입(원수)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이는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포함함.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은 보험금지급 사유 발생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의미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실세예금은 수표 등을 뺀 나머지로 은행이 대출과 유가증권투자 등에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예금액임.

3) 고객예탁금 + RP 매도 + CMA, 고객예탁금은 고객이 주식 및 채권을 매매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맡긴 자금과 주식 및 채권을 매도하고 인출해 가지 않아 증권회사에 남아있는 자금이며, 이는 장래에 주식에 재투자될 자금이라고 볼 수 있음.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임. CMA는 고객이 맡긴 예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임.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초단기 공사채형 상품임.

5) 발행어음 + CMA 예탁금 + 어음매출, 발행어음은 금융회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식의 1년 미만 단기 금융상품임. 어음매출은 종합금융회사가 매입 보관하고 있는 할인어음을 고객의 요청에 의해 매출하는 것임.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부록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료	58,776	62,910	240,340	62,882	61,157	61,327	61,482	246,848	57,044
	증가율	8.9	13.4	-7.6	8.4	0.8	4.3	-2.3	2.7	-9.3
	초회보험료	15,262	17,443	66,636	17,646	15,243	15,071	14,238	62,198	11,565
	계속보험료	43,514	45,467	173,704	45,237	45,914	46,256	47,244	173,704	45,479
사망	보험료	83,131	85,238	331,788	89,041	88,434	90,538	92,349	360,361	96,491
	증가율	4.6	6.2	4.6	9.5	7.7	8.9	8.3	8.6	8.4
	초회보험료	204	3,717	10,720	682	4,015	5,346	4,479	20,272	7,470
	계속보험료	80,527	81,521	321,069	82,609	84,418	85,191	87,871	321,069	89,022
생사 혼합	보험료	49,171	49,038	200,544	51,932	53,500	51,152	57,187	213,771	66,400
	증가율	6.4	6.8	-3.5	2.4	3.6	4.0	16.6	6.6	27.9
	초회보험료	9,945	8,935	44,185	11,628	10,807	8,719	12,015	43,169	22,310
	계속보험료	39,226	40,103	156,359	40,304	42,693	42,433	45,172	156,360	44,090
변액 보험	보험료	51,622	51,957	206,709	51,122	53,539	52,629	49,140	206,431	48,231
	증가율	0.5	0.9	-1.9	-1.5	4.5	2.0	-5.4	-0.1	-5.7
	초회보험료	2,819	2504	10,451	238	3,942	4,168	2,377	12,831	2,152
	계속보험료	48,803	49,453	196,259	48,779	49,597	48,461	46,763	847,391	46,079
개 인 계	보험료	242,701	249,143	979,382	254,977	256,631	255,646	260,158	1,027,412	268,166
	증가율	5.0	6.8	-1.7	5.4	4.5	5.3	4.4	4.9	5.2
	초회보험료	30,631	32,599	131,991	38,048	34,008	33,304	33,109	138,470	43,497
	계속보험료	212,070	216,543	847,391	216,929	222,623	222,342	227,049	196,259	224,669
일반 단체	보험료	1,999	1,877	8,150	2,105	1,906	1,879	1,845	7,735	2,120
	증가율	2.5	-2.3	-2.5	-6.6	-5.7	-6.0	-1.7	-5.1	0.7
	초회보험료	284	214	1,266	479	258	289	255	1,281	552
	계속보험료	1,715	1,663	6,884	1,625	1,648	1,590	1,590	6,454	1,568
퇴직 연금	보험료	10,854	76,751	118,221	16,276	19,988	14,100	86,626	136,990	19,647
	증가율	54.9	46.9	45.4	22.0	15.7	29.9	12.9	15.9	20.7
	초회보험료	4,548	33,745	51,381	6,337	3,924	4,317	28,858	43,436	4,400
	계속보험료	6,306	43,006	66,841	9,939	16,064	9,783	57,768	93,553	15,247
단 체 계 ¹⁾	보험료	12,853	78,629	126,371	18,381	21,895	15,979	88,471	144,725	21,767
	증가율	43.5	45.2	45.8	17.9	13.5	24.3	12.5	15.9	18.4
	초회보험료	4,833	33,959	52,646	6,816	4,183	4,606	29,112	44,717	4,952
	계속보험료	8,021	44,669	73,725	11,564	17,712	11,373	59,359	73,725	16,815
합계	보험료	255,554	327,771	1,105,753	273,358	278,525	271,624	348,629	1,172,137	289,933
	증가율	6.5	14.1	1.9	6.2	5.1	6.3	6.4	6.0	6.1

주: 1)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1),2)}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31,034	33,554	125,365	33,783	34,524	35,582	38,160	142,048	37,057
	증가율	17.4	12.4	12.9	9.8	15.1	14.7	13.7	13.3	9.7
	지급률	52.8	53.3	52.2	53.7	56.5	58.0	62.1	57.5	65.0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42,686	43,569	173,147	44,961	42,363	42,408	44,450	174,183	47,084
	증가율	-0.4	-1.5	-1.6	-0.9	2.0	-0.7	2.0	0.6	4.7
	지급률	51.3	51.1	52.2	50.5	47.9	46.8	48.1	48.3	48.8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29,169	28,512	120,537	32,693	29,682	27,718	27,589	117,682	31,838
	증가율	15.9	2.9	11.4	-0.5	-1.1	-5.0	-3.2	-2.4	-2.6
	지급률	59.3	58.1	60.1	63.0	55.5	54.2	48.2	55.1	47.9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33,595	29,620	125,012	33,278	37,211	29,418	30,828	130,736	29,813
	증가율	19.9	-10.2	6.4	15.5	12.8	-12.4	4.1	4.6	-10.4
	지급률	65.1	57.0	60.5	65.1	69.5	55.9	62.7	63.3	61.8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36,484	135,255	544,062	144,715	143,780	135,126	141,028	564,649	145,792
	증가율	11.4	0.4	6.1	5.0	6.9	-1.0	4.3	3.8	0.7
	지급률	56.2	54.3	55.6	56.8	56.0	52.9	54.2	55.0	54.4
일반 단체	지급보험금	2,735	2,146	9,905	2,428	2,243	2,046	2,136	8,853	2,317
	증가율	24.2	-6.1	10.4	-5.2	-8.9	-25.2	-0.5	-10.6	-4.6
	지급률	136.8	114.3	121.5	115.4	117.7	108.9	115.7	114.5	109.3
퇴직 연금	지급보험금	11,857	24,505	68,544	21,375	18,389	13,083	43,375	96,222	21,620
	증가율	75.4	64.9	53.8	40.9	8.1	10.3	77.0	40.4	1.1
	지급률	109.2	31.9	58.0	131.3	92.0	92.8	50.1	70.2	110.0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14,592	26,651	78,449	23,803	20,631	15,129	45,511	105,075	23,937
	증가율	62.8	55.4	46.6	34.3	5.9	3.7	70.8	33.9	0.6
	지급률	113.5	33.9	62.1	129.5	94.2	94.7	51.4	72.6	110.0
전체	지급보험금	151,076	161,906	622,511	168,518	164,412	150,255	186,539	669,724	169,728
	증가율	14.9	6.6	10.0	8.4	6.8	-0.5	15.2	7.6	0.7
	지급률	59.1	49.4	56.3	61.6	59.0	55.3	53.5	57.1	58.5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1),2),3),4)}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	사업비	7,566	8,482	31,737	7,907	7,623	7,433	7,490	30,454	6,444
	증가율	-4.6	-3.0	-9.1	4.4	-6.1	-1.8	-11.7	-4.0	-18.5
	사업비율	12.9	13.5	13.2	12.6	12.5	12.1	12.2	12.3	11.3
사망 보험	사업비	24,297	27,531	101,100	25,238	25,608	26,518	28,422	105,786	27,327
	증가율	2.4	8.8	3.7	8.2	-1.3	9.1	3.2	4.6	8.3
	사업비율	29.2	32.3	30.5	28.3	29.0	29.3	30.8	29.4	28.3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4,400	4,548	17,830	4,102	3,977	3,799	3,933	15,811	3,721
	증가율	-2.9	-7.3	-11.3	-6.3	-11.7	-13.6	-13.5	-11.3	-9.3
	사업비율	8.9	9.3	8.9	7.9	7.4	7.4	6.9	7.4	5.6
개인 보험계	사업비	36,263	40,560	150,667	37,247	37,209	37,750	39,844	152,050	37,492
	증가율	0.2	4.1	-1.2	5.6	-3.5	4.1	-1.8	0.9	0.7
	사업비율	14.9	16.3	15.4	14.6	14.5	14.8	15.3	14.8	14.0
단체 보험계	사업비	994	1,127	4,447	986	958	980	1,060	3,985	295
	증가율	-8.1	-15.5	-4.2	-6.8	-24.4	-1.4	-5.9	-10.4	-70.1
	사업비율	7.7	1.4	3.5	5.4	4.4	6.1	1.2	2.8	1.4
전체	사업비	37,257	41,687	155,115	38,234	38,167	38,731	40,904	156,035	37,787
	증가율	0.0	3.5	-1.3	5.2	-4.2	4.0	-1.9	0.6	-1.2
	사업비율	14.6	12.7	14.0	14.0	13.7	14.3	11.7	13.3	13.0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임.

4)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1,2)}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³⁾	1/4
화재	보험료	905	3,106	728	736	683	893	3,041	720
	증가율	-1.9	-3.6	-4.0	-0.4	-2.8	-1.3	-2.1	-1.2
	구성비	0.4	0.4	0.4	0.4	0.4	0.4	0.4	0.4
해상	보험료	1,830	7,343	1,880	1,837	1,820	1,554	7,091	1,506
	증가율	11.7	-2.2	7.6	-4.7	-1.0	-15.1	-3.4	-19.9
	구성비	0.8	1.0	1.0	1.0	1.0	0.7	0.9	0.8
자동차	보험료	35,183	135,484	35,298	37,269	37,355	39,992	149,914	39,382
	증가율	6.9	5.2	9.0	10.7	9.0	13.7	10.7	11.6
	구성비	15.7	17.7	18.3	19.4	19.8	17.5	18.7	19.9
보증	보험료	4,048	15,152	3,898	4,054	3,713	4,150	15,816	3,884
	증가율	1.8	-0.6	1.5	11.0	2.8	2.5	4.4	-0.4
	구성비	1.8	2.0	2.0	2.1	2.0	1.8	2.0	2.0
특종 ²⁾	보험료	12,793	49,991	13,347	13,651	11,536	13,088	51,622	14,102
	증가율	2.9	1.2	6.2	4.2	0.0	2.3	3.3	5.7
	구성비	5.7	6.5	6.9	7.1	6.1	5.7	6.4	7.1
해외 원보험	보험료	1,559	5,832	1,217	1,122	1,557	1,413	5,309	1,318
	증가율	-11.5	-6.8	-11.5	-22.9	8.0	-9.3	-9.0	8.3
	구성비	0.7	0.8	0.6	0.6	0.8	0.6	0.7	0.7
장기 손해	보험료	112,412	444,037	116,499	115,632	116,554	117,116	465,801	117,868
	증가율	5.9	6.1	5.1	5.6	4.8	4.2	4.9	1.2
	구성비	50.3	58.0	60.3	60.2	61.7	51.3	58.0	59.6
개인 연금	보험료	10,295	41,090	10,066	10,015	9,994	10,137	40,211	9,796
	증가율	-3.2	-3.2	-2.7	-2.3	-2.0	-1.5	-2.1	-2.7
	구성비	4.6	5.4	5.2	5.2	5.3	4.4	5.0	5.0
퇴직 연금	보험료	44,408	63,718	10,270	7,840	5,639	39,905	63,653	9,227
	증가율	98.5	78.9	11.5	32.8	34.4	-10.1	-0.1	-10.2
	구성비	19.9	8.3	5.3	4.1	3.0	17.5	7.9	4.7
계	보험료	223,433	765,754	193,204	192,156	188,851	228,261	802,473	197,804
	증가율	15.9	8.3	5.5	6.6	5.5	2.2	4.8	2.4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고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1),2),3)}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1/4	2/4	3/4	4/4	1/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45.4	66.6	43.5	57.7	32.3	59.9
	사업비율	44.3	55.1	49.7	48.2	50.4	48.6
	합산비율	89.7	121.7	93.2	105.9	82.7	108.6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85.4	55.1	70.1	94.3	69.8	64.7
	사업비율	45.5	25.1	20.0	30.2	45.5	32.8
	합산비율	130.9	80.1	90.1	124.5	115.3	97.5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41.6	81.5	50.3	54.3	26.9	26.9
	사업비율	20.0	38.3	17.0	17.8	21.3	15.2
	합산비율	61.5	119.8	67.3	72.0	48.2	42.1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6.5	65.1	67.1	70.3	65.5	66.2
	사업비율	19.4	21.5	17.3	21.1	20.2	18.1
	합산비율	85.9	86.6	84.4	91.4	85.7	84.3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124.7	84.2	135.0	235.2	15.5	75.4
	사업비율	62.2	52.3	58.2	38.4	69.3	57.8
	합산비율	186.9	136.5	193.2	273.6	84.8	133.2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83.2	50.2	61.7	76.1	72.7	61.7
	사업비율	29.3	30.2	30.6	31.1	30.4	34.2
	합산비율	112.5	80.5	92.3	107.3	103.1	95.9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95.5	85.6	84.8	87.7	92.2	82.2
	사업비율	19.4	19.7	19.8	18.9	19.2	18.3
	합산비율	114.9	105.3	104.6	106.6	111.4	100.5
장기보험 ³⁾	경과손해율	86.1	86.0	84.5	84.1	84.5	85.2
	사업비율	18.5	18.2	18.1	18.3	20.1	19.0
	합산비율	104.7	104.1	102.5	102.4	104.6	104.2
전제	경과손해율	85.6	83.6	82.3	83.7	82.9	81.6
	사업비율	19.4	19.6	18.9	19.1	20.6	19.4
	합산비율	105.1	103.2	101.1	102.8	103.4	101.0

주: 1)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3) 경과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4)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금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

- 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
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
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
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
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정봉은·김유미 2016.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고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
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억·지재원·
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
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손해보험 효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56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6년 여름호 (통권 78호)

발행일	2016년 8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5년 4월 30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19)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9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